어린이 영성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A Study on Children's Spiritual Development Program

By
CHOI, AUTHORITY (MYONG HEE)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Guro-gu, Seoul, South Korea
2018

ABSTRACT

A Study on Children's Spiritual Development Program

By

Choi, Authority (Myong Hee)

The core of this project is the study of the spiritual ministry of children and the plan of evangelical ministry of the Gaewoong Church. The cor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gram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hildren's spirituality which prov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restoration of the spirituality of the children of Gaewoong Church. Pastor Cho Kyung-suk established the church for thirty years of his pastoral ministry, and although there were difficult times, led many to green pasture through his precious shepherd ministry. As a result, last year, there was a revival in the educational department and the church rose to become a church joined together of many faithful members. Although I am not able to work through pastoral ministry with Pastor Dam-Im, God has prepared me so that I can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s department.

This study and data has features and meaning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pap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data and demonstration:

First, all of the research process was done through execution.

Second, the research process was conducted through the Children's Spirituality Program.

As I was doing this project, I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a lot through the children. For example, a child has spirituality and a desire for God that is the same as an adult's. Children can also serve in the church, and serve each other through Bible study, praise,

prayer, and lov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piritual development programs, it is clearly shown that children can deepen the roots of faith and change their surroundings. Indeed, God is using children as a driving force to preach the gospel on earth, which I have objectively written of in my thesi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bearing God's will and express my heart’s endless gratitude.

ACKNOWLEDGEMENTS

먼저 이 논문을 연구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영혼구원과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제 스스로는 걸어올 수 없는 과분한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길'이 되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제 진심을 담아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역의 기회를 허락하신 개웅교회와 남편이며 당 회장이신 조 경석목사님께 감사 드리고 늘 응원해 주는 자녀인 조 나단, 조 이삭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선교 어린이 집 원장, 원감, 선생님들과 사이트 팀,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제게 동역자 들이시며 협력자들이셨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시며 지도해주신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의 백창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의 지도 없이는 불가능한 과정이라 여깁니다. 이외 논문을 써 나가는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본 연구 과정이 목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웅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복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논문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8. 2. 4

서울에서 최 권능 (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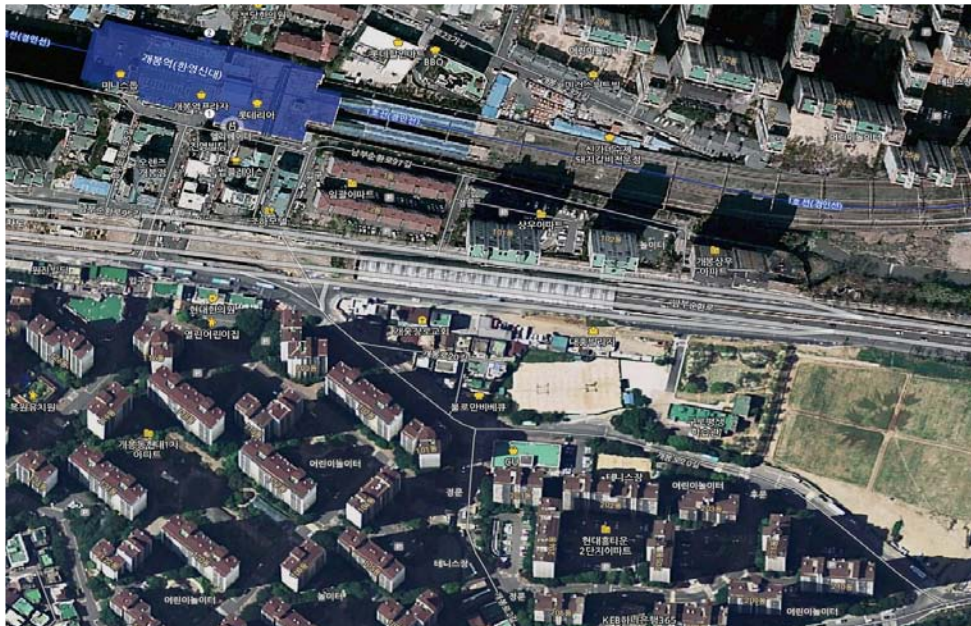
목 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Introduction to setting)

1. 개웅 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Gaewoong)

1) 목회의 지역적 배경(Geographical Setting)

개웅 교회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98 – 6 에 위치해 있다. 이 곳 개봉동의 지명유래는 그 지역이 경인선과 남부 순환로가 교차 하는 곳에 남쪽으로 개웅산이 북쪽으로는 매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 그림 1 > 개웅 교회 지역지도[1]

[1] https://map.naver.com/?mapMode=1

“ 개웅산”의 “개”자와 “매봉산”의 “봉” 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지명이다. 개봉 1 동은 그 면적 중 매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개봉천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광명시와 철산동과 경계사이에 있다. 서쪽으로는 양천구 신정동과 인접해 있고 오류동 가까이 있다. 그리고 남쪽은 개봉 2 동, 또는 북쪽으로는 양천구 신정동과 경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북쪽으로는 고척동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하여 안양천 서쪽의 구로구 지역 가운데서 가장 번화한 곳이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일직으로 들어서 도시화가 전진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을 조선 시대에는 부평도 호부 갈탄이었다. 1914 년 3 월 1 일 경기도 부천군 계남면 개봉리로 되었다가 1941 년 10 월 1 일 부천군 소사읍 개봉리로 바뀌었다. 1963 년 1 월 2 일 부로 서울시에 편입된 곳이며 영등포구 오류출장소 개봉동으로 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1973 년 7 월 1 일 법률 2596 호에 의해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일부를 영등포구 개봉동에 편입하게 되었고 개봉동의 일부를 시흥군에 편입하였다. 개봉동은 1969 년부터 1970 년대에 걸쳐가면서 대한주택동사에서 개봉천 북쪽 저지대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해 나가면서 신시가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로 4 개의 행정동으로 분동하게 되었다.

2) 교회 역사적 배경(Historical Setting)

개웅교회는 1988 년 5 월 성령강림 주일에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는 말씀 안에서 “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첫 예배시에는 가족 중심의 소수 인원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영입하는 구령 사역으로 시작되었다. 1988 년 3 월 6 일 조경석 강도사 외 7 명이 구로구 개봉동 303-34 번지 2 층(개봉로 17 가길 43)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설립되었다. 1990 년 10 월에 개봉동 407-18 번지로 교회를 이전하였으며, 1995 년 자유교회에서 "개웅교회"로 지역 이름의 개봉동 "개"와 지역 산 이름 개웅산"으리 첫 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7 년 7 월에 개봉동 407-19 번지(개봉로 20 길 84)로 이전한 후 1999 년 10 월에 개봉 2 동 198-6 번지(개봉로 20 길 91-10)를 매입하여 2001 년 성전 건축이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역에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세워졌으며 나아가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영혼 구원으로 지역사회에 무료급식소를 세워 일주일에 두 번 지역 어르신들을 섬긴다.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0-7 세) 목회자 자녀들에게 무료 혜택과 교회와 심방으로 자녀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교회에 자녀들을 유임하고 사역하시도록 돕는 기관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다니엘 공부방을 열어 맞벌이 부부들과 홀로된 자녀들을 방과 후 맞아주어 공부와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봉사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래서 Kund, Hans. The Church.에서 말한다. "교회를 은사 공동체로 부르는 것은 교회를 봉사 공동체로 부르는 것과 같다 " 라고 했다. [2]개웅* 교회는 지역적 섬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이다.

---

[2] Hans Kung,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3) 목회적 배경(Ministerial Setting)

(1) 목회적 비전

대한 예수교 장로교 소속인 개웅 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토대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이다. 조 경석 담임목사를 위주로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말씀 슬로건 하에 전 교인이 한마음과 한 뜻을 품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는 기준으로 보수를 고수하며 진보해 나가는 교회이다.

Lee Strobel‘s *The Case for The Real JESUS*에는 “예수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분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다시 지상에 오실 것이다.” 이 대목은 개 웅 교회 목회 비전에 핵심을 말해 주는 것이다. 교회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3]

개웅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교회이다.

주제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이며 주제 성구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5) 이다. 목표를 아래 열거한 것을 보도록 한다. 개웅 교회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성령체험을 통한 신앙생활의 열심,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행하는 교회,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교회이다.

---

[3] Lee Strobel, *The Case for The Real JESUS*, (서울: 두란노 출판사, 2009), 9

(2) 개웅 교회는 이런 교인을 만들어간다.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 가정적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가꾸는 성도,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세계적으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3) 이런 신앙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말씀 중심의 무장으로 확실한 신앙, 기도 생활의 철저화로 뜨거운 신앙, 성경 원리에 충실하여 복 받는 신앙,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신앙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웅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성령을 통한 열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사랑과 봉사의 삶을 통한 설교이다. 추구하는 교인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 가정적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가꾸는 성도,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세계적으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교인이다. 추구하는 신앙은 말씀 중심의 무장으로 확실한 신앙, 기도 생활의 철저화로 뜨거운 신앙, 성경 원리에 충실하여 복 받는 신앙이다.)

(4)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매일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금요 철야 주일예배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며 찬양대를 통하여 매주일 1 시 30 분부터는 찬양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리며 합심기도를 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교회이다. 말씀중심으로 성경공부가 활발하게 진행 하면서 말씀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현존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이다.

The Church 에서 Hans Kung은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Kung은 자유주의 신학과는 달리 교회가 그리스도 현존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4] 1:1 , 구역별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의 삶을 실천하며 섬김의 본을 성경공부 후에는 음식으로 서로 나눈다. 개웅 교회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어린이 집과 학생들 다니엘 공부방과 교회 반주자를 양육하는 다윗 음악원을 개설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토요일 날 인근 학교어린이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점심무료급식과 성경공부와 기독교 영화 상영을 해왔다.

(5) 청소년 사역

청년과 학생들을 위하여 "아름다움 만남"이라는 모임을 통해 반항의 시기에 주님을 붙들었던 청년들을 멘토로 세워 청소년들을 매달 함께 만남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 기도와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기는 법을 서로 기도하고 고수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악기를 가르치며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도구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 43:21) 을 가르치고 있다.

(6) 기도와 섬김 사역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 문지기"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24 시간 돌아가며 기도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외롭고 고달픈 어르신들을 향하여 미용사업,

---

[4] Hans Kung,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정지련역, xxxv

영정 사진, 건강 체크를 해왔으며 무엇보다 매주 화요일, 주일날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식탁”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매주 토요일 노방전도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오류 애육원 (고아원) 방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교회 상황

본 연구자는 미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어린이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사역은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치유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그런 사역을 토대로 어린이 영성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함께 동역 하는 조 경석 담임목사가 지향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모태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적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에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 영성은 교회의 미래적 가치는 보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의 원초가 될 수 있다.

개웅 교회는 주위가 아파트로 지역이며 신세대들이 많아 어린이 전도하여 영성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가는데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어린이들에게 영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성령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2.연구 목적과 목표

1) 목적(GOAL)

어린이 교회 학교가 현 문화 권 속에서 급속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 학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현재는 미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래에는 교회학교라는 이름도 사라져 버릴 위기에 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영성 개발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므로 현 교회학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여 현존하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영성을 회복하도록 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나아가 어린이들의 영성을 개발하여 스스로 개인의 신앙과 전도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해 내어야 한다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고자 한다. 어린이들은 미래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교회를 형성하는 일원이므로 어린이 영적 개발은 꼭 필요한 것이며 현 문화권이 커다란 과제이다.

이미 주일학교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변화 가운데 저출산이 가장 큰 요인 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 문화로 어린이들이 주일 학교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며 어렸을 때부터 영성 개발을 통하여 어른과 같이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 연구 발표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본문의 연구 범위는 어린 미취학 전으로 국한 하여 연구한다. 이 논문에서 ‘ 어린이는 발달 단계적으로 영아기와 구별하여 만 2 세에서 6 세말까지 취학 전 시기로 정의한다.[5]

[5] 조복희, *인간 발달* (서울: 교문사, 1989),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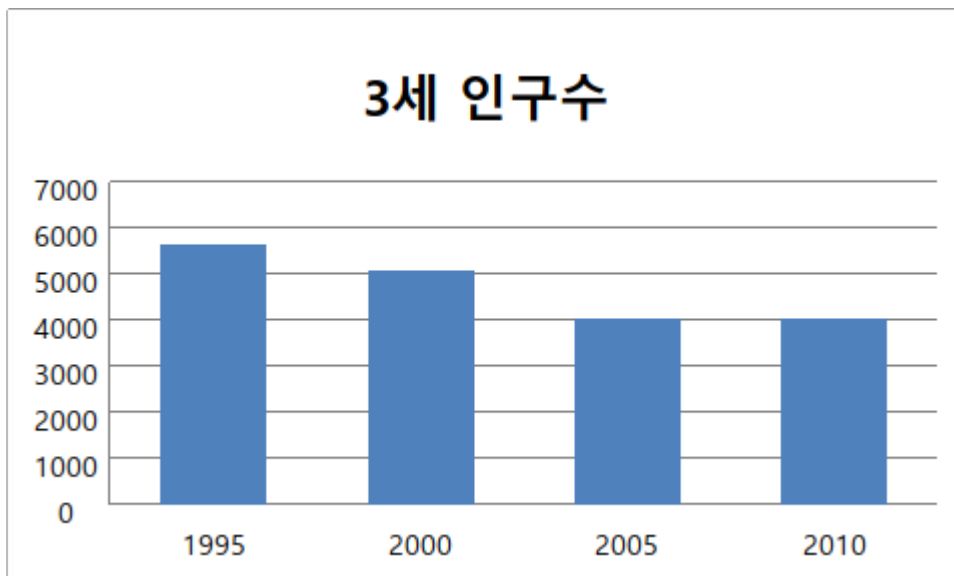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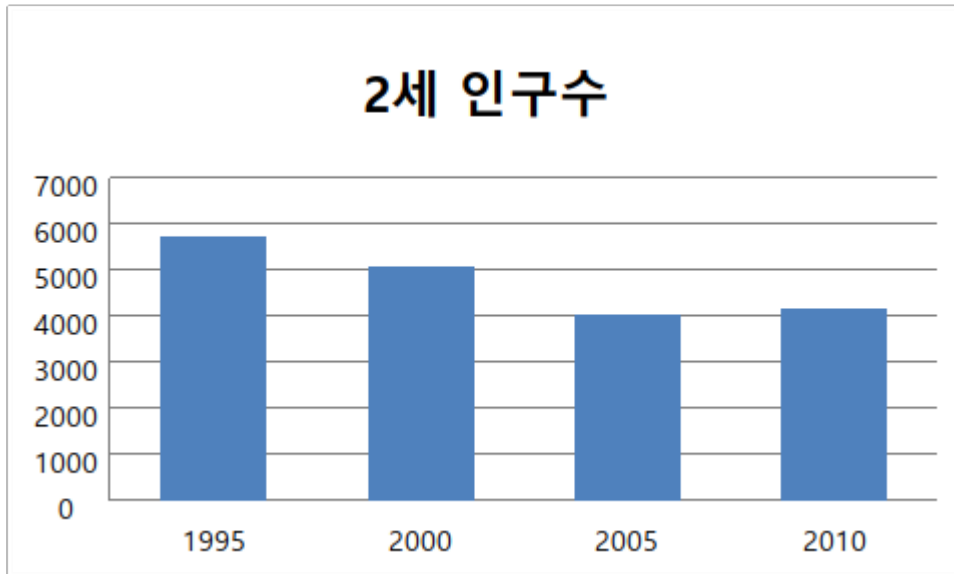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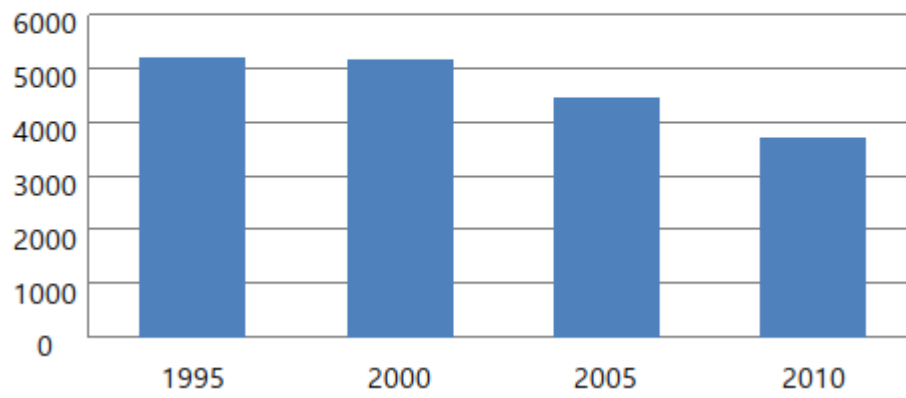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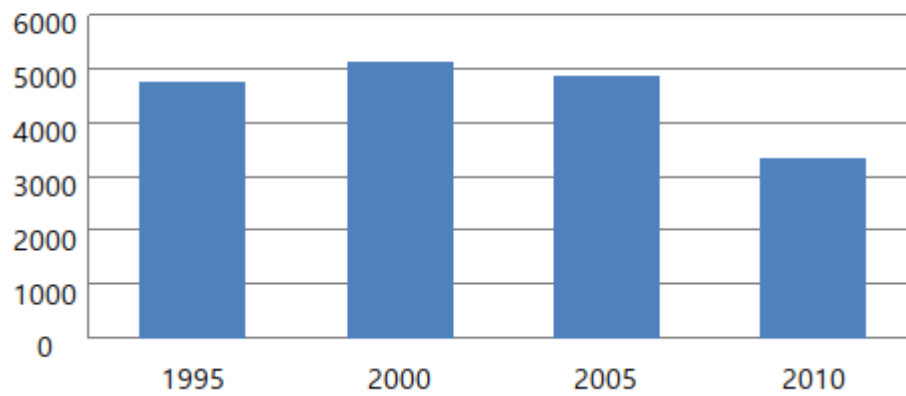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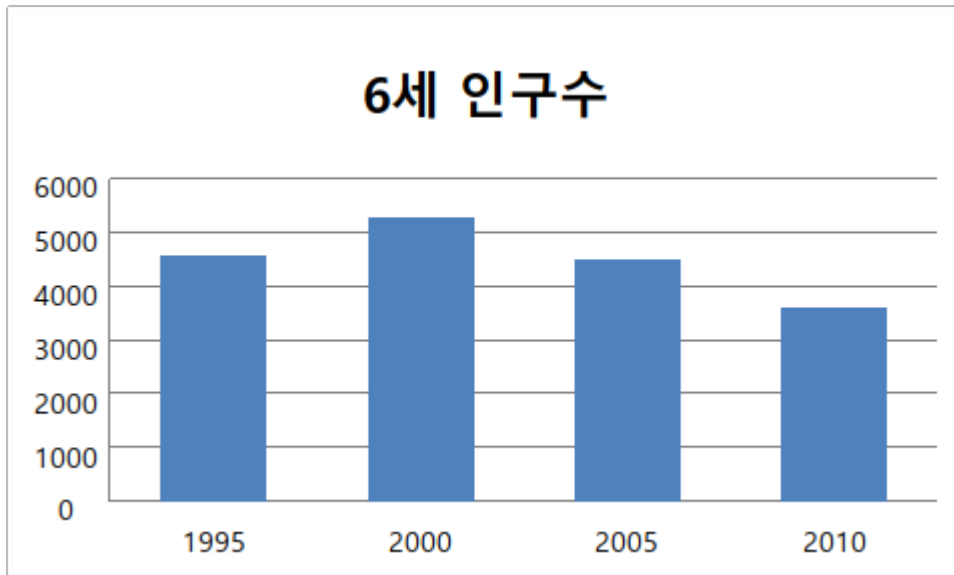
< 표 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체 0 세~6 세 인구 [6]

행정구역	연령별	1995	2000	2005	2010
		인구 (명)	인구 (명)	인구 (명)	인구 (명)
구로구전체	0 - 4 세	27,965	25,536	20,662	20,325
	0 세	5,654	5,255	3,968	4,335
	1 세	5,760	4,913	4,163	4,047
	2 세	5,720	5,093	4,026	4,168
	3 세	5,631	5,087	4,050	4,052
	4 세	5,200	5,188	4,455	3,723
	5 - 9 세	23,287	25,774	23,737	17,841
	5 세	4,784	5,157	4,863	3,345
	6 세	4,585	5,271	4,492	3,599

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11&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

< 차트 1 > 구로구 어린이 인구수

4세 인구수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95
2000
2005
2010

5세 인구수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95
2000
2005
2010

본 연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프로그램을 토대로 현 문화권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나가고자 한다. 교인과 부모님 교사들의 도움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실패가 없기 위해 믿음의 반석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 용수 박사는 잃어버린 지상명령 쉐마에서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자녀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에 그 요인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 신학의 빈곤이다. 구약의 '쉐마' 가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 쉐마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오늘날 정통과 유대인들의 교육인지를 몰랐다. 따라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유대인만큼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다. 즉 이웃 전도나 세계 선교를 자녀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둘째는 그들의 자녀교육 방법이 유대인만큼 성서적이지 못했다.

셋째는 자녀교육의 질이 유대인만큼 철저하지 못했다.

넷째는 정통파 유대인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일전한 원칙 없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타협했다.[7]

결국 이웃 전도에는 세계선교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어린이 선교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영적 자녀로써의 성숙도 미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장통합 통계위원회에 86 차 총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교회 학교 유치원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보고를 볼 수 있다.

“1998 년 10 월~1999 년 8 월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경우 유치부는 109,755 명이었으나 1999~2000 년 80,252 명, 2000~2001 년 238,030 명이던 학생 수는 2001 년의 197,871 명으로 20%가량 줄었으며, 6 년 전에는 264,467 명에 비해서는 30%인 7 만 명 가 량이 줄어드는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일보, 교회학생 급감 ‘비상’, 2001 년 9 월 28 일).[8]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93 차부터 102 차까지 예장통합 통계위원회에 보면 아래 도교를 보면 계속적인 감세를 볼 수 있다. 매년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미래적으로 어린이 예배가 없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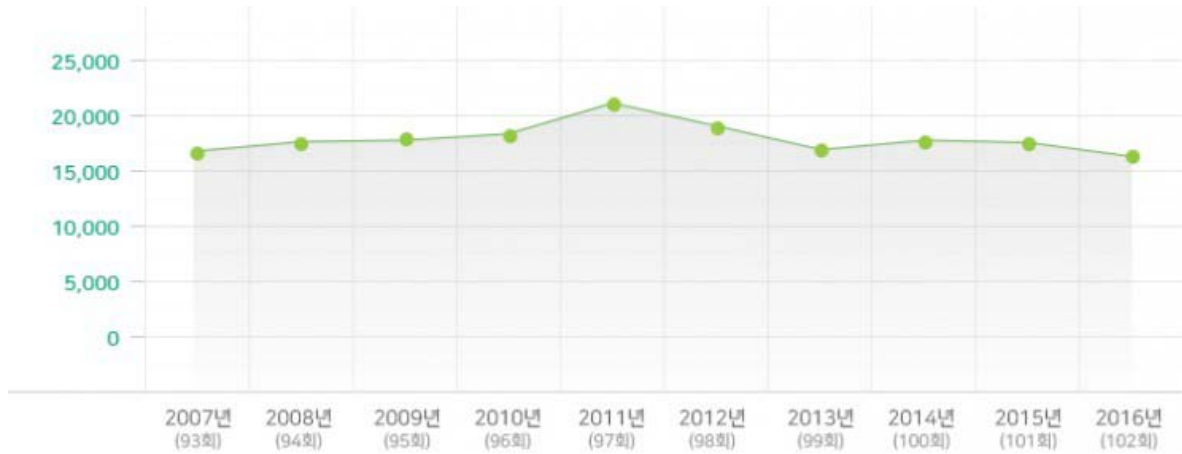
[7] 현용수, *잃어버린 지상명령 쉐마*, (도서 출판 쉐마, 2004),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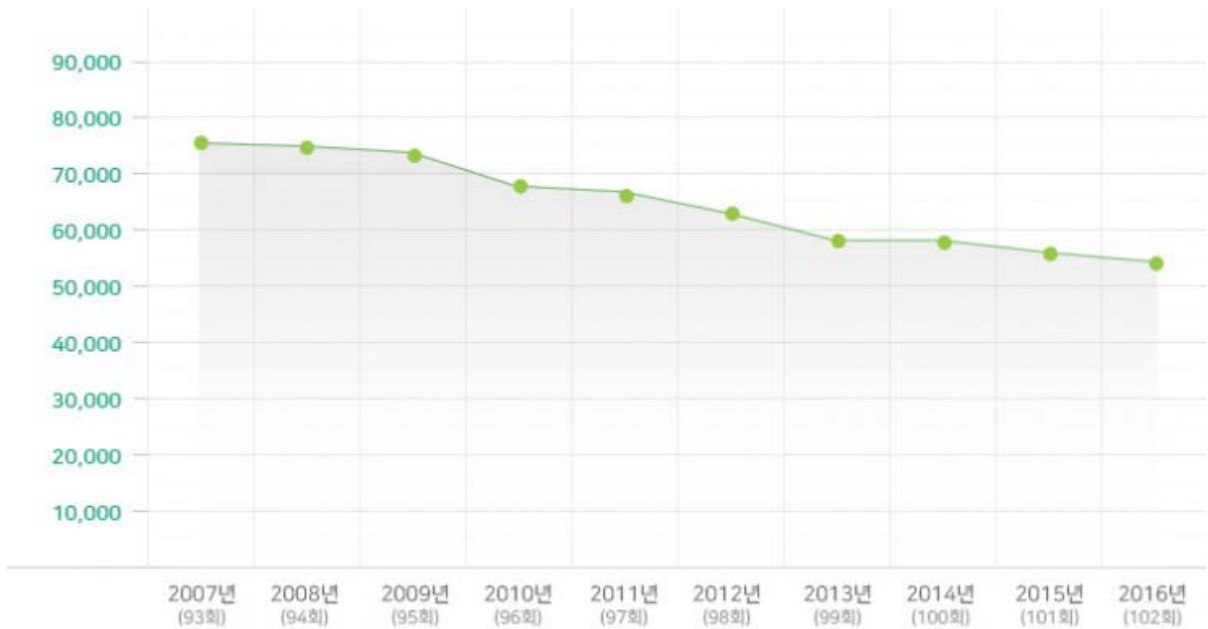
[8] Ibid., 48

< 표 2 > 교회 학교 어린이 인원 [9]

주일학교 통계 변동 현황							
연도(항목)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세례 교인수	전체 교인수
2007 년(93 회)	16,655	23,025	75,136	79,532	85,580	106,015	193,215
2008 년(94 회)	17,737	23,184	74,751	74,223	83,783	104,897	193,344
2009 년(95 회)	17,297	22,956	72,184	69,924	80,056	100,520	195,275
2010 년(96 회)	18,305	24,571	67,378	64,232	74,327	89,900	188,304
2011 년(97 회)	21,429	24,130	64,731	58,419	69,015	83,266	180,308
2012 년(98 회)	18,733	23,641	62,251	56,519	64,175	76,090	171,660
2013 년(99 회)	17,101	21,555	58,293	50,840	59,423	68,175	157,409
2014 년(100 회)	17,523	23,323	57,649	51,112	57,880	64,637	152,327
2015 년(101 회)	17,325	22,659	55,435	48,110	55,317	62,358	146,763
2016 년(102 회)	16,403	22,109	52,053	46,020	54,173	56,147	134,904

[9]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1_05&wr_id=1

2007-2016 년 영아부 변동 현황

2007-2016 년 유아부 변동 현황

2007-2016 년 유치부 변동 현황

통계를 보면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어린이들로 현저히 교회 출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본다. 빠져 나가는 교회 학교 인원도 막고 기존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영적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성경말씀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영성 훈련을 하도록 실시하고자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영성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어린이들의 교회 정착을 도모한다.

하지만 영성 개발과 훈련에는 두 가지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 할 수 있다고 'Richard J. Foster' 는 *'Celebration of Discipline'* 에서 말하고 있다.

첫째의 어려움은 철학적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물질주의적 기반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다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큰 의심을 하게 된다.[10]

---

[10] Richard Foster,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권달천.황을호 옮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1986 년) 18

물질 만능 시대에 있어서 과학적 사상 속에도 깊게 물들어 있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 훈련의 타당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 어린이에게 영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는 어른들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지적인 교만에 차있으므로 사상적 어려움으로 직면하게 된다.

둘째 어려움은 실제적인 어려움이다. 우리는 이 내면의 삶을 어떻게 탐구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다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1 세기와 그 이전에는 영적인 삶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 더 앞서 복음 보급화가 줄어들고 성경은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 예배, 찬양 등과 같은 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교훈도 하지 않았다.[11] 는 것이다. 훈련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훈련의 방법과 지도로 앞서 복음 보급화가 줄어들고 있는 이 때에 어린이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 나가 세상의 중앙에 빛을 발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녀로 이 시대의 본이 되는 빛의 영적 지도자로 장성하게 한다.

2) 목표 (OBJECTIVES)

Donald S. Whitney는 그의 저서인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에서 영성의 목표에 대한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취를 원하는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원해서는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

[11]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12] 라고 한다. 즉 영성 훈련은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위의 사실을 숙고하면서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실천해 나감으로 어린이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영적 우월성을 인식시키며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첫째, 어린이에게도 영성을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될 수 있을 까? 하는 질문이다. 지금까지는 영성은 교회 내에 등록된 교인들의 프로그램으로 집중되었던 것을 어린이도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어린이에게 영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했을 때 어린이의 변화로 교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어린이 영성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교회의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인격적 어린이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넷째, 어린이들의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봉사를 행하는 어린이로 변화 할 것인가? 라는 기대이다.

다섯째, 예배와 찬양으로 몸과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총명함도 함께 자라가도록 한다.

여섯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장성하도록 한다.

---

[12] Donald S. Whitney,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 (출판사: 네비게이토, 1997) 23

일곱째,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어린이로 영적 성숙을 기대한다.

여덟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어린이로 자라게 한다.

본 연구는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 에게 과연 영성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및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취미 활동으로 교회 내에 어린이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교육부서의 재투자를 줄여 가는 교회 실정 가운데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어린이 영성 회복을 위해 교회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해

첫째, 영성을 위한 기도 프로그램으로 ‘다니엘 기도 훈련’을 개설할 것이다.

둘째, 찬양 프로그램으로는 사람이 지은 받은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라.’ (사 43:21) 했다. 어린이들의 영성 개발을 위해 ‘도레미 하늘 찬양’과 다윗 음악원을 열 것이다.

셋째, 섬김 프로그램으로는 ‘요셉 섬김’으로 구제와 섬김을 실천 할 것이다.

넷째, 말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성경통독’을 개설한다.

이런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영적 부흥과 영적 리더십을 키워주므로 하나님 나라와 사회 지도자로 양육되는 빛의 역할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Ⅱ. 현대 사회의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특성

본 논문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 개발” 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또한 어린이에 대한 영적 이해를 전재로 해야 한다. 어린이 영성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린이 영성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이다. 즉 어린이를 영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영적 탐구의 여정에 서있는 능동적 존재로 이해하고, 어린이들의 영(Spirit)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Spirit)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진리로 이해해야 한다.[13]그러므로 현대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발달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전개하여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에 나간다.

1. 어린이의 정의와 이해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child, children) 라는 말을 명사로 나이 어린 사람으로 표현 한다. 명사의 옛말로는 15 세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브린다 ㅎ、니"이라고도 한다. 16 세기에 들어서 ‘나이가 어리다’는 라는 의미가 주어졌고 18 세기에는 후자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특히 4,5 세를 시작으로 초등학생까지로 아동을 지칭해주는 것이다. 즉 격식을 갖추어 말하는 문체로 보면 된다.[14] '어린이‘ 라는 용어에서 어린이를 젊은이, 늙은이와 대등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는 아동 존중 사상을 읽을 수 있다.[15] 1920 년 소파 방정환 (方定煥)이 아동을 인격체로 봐주어야 한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보급되었다. 또 다

---

[13] 양금희 (2010). “어린이 영성 (Children’s Spirituality)” 연구의 어린이 영성 이해와 어린이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38, 472-473

[14]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5] 이희경, *유아교육 개론*, (태영 출판사: 2008), 113

른 표현으로는 아이(줄여서 '애') 아동(兒童)이라고도 말한다. 영어로는 Child(單) / Children(複) 나무라고도 표현되며 어린이를 보통 만 6 세 이상 13 세 미만으로 보기도 하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유아 (1-5 세)를 포함한다.[16]

하지만 본 연구는‘ 만 2 세부터 취학 전을 어린이로 명명하며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어린이 발달 특성

1) 신체적 발달 특성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에서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이리 말하고 있다. “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 발달 속도가 완만해 진다. 하지만 신체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 매년 신장은 5~7(m , 체중은 2~3kg씩 증가 한다. 신체적 비율도 키에 비해 머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해 영아기보다 훨씬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한편, 신체발달에서 이전 시기보다 개인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신장과 체중뿐만 아니라 체형에서도 유아들마다 차이를 나타낸다. 이 같은 차이를 일으키는 영향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외에 영양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17]는 것이다. 또한 유아들은 나이에 따라 키와 몸무게의 성장률이 매년 감소해 가는 추세를 나타낸 다고 한다.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에서는 유아의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지적했다. “유아기 동안 남아와 여아는 몸통이 길어짐에 따라 살이 빠져 보인다. 아직 머리가 몸에 비해 상당히 크지만 유아기 말이 되면 대부분의 유

[16] 위키백과, 하지만 본 연구는 “만 2 세부터 초등학교 전‘까지를 어린이로 명명한다.

[17]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80

아들은 머리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게 된다. 몸의 지방도 이 시기 동안 천천히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지방층이 많다.[18] 라고 말했다.

조복희외 '*인간발달*'에서는 유아기에 대해 말한다.

"기초 대사량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하다. 영아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던 것에 비해 낮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신체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유아들은 매우 활동적이자 쉽게 지친다는 것이다. 신체의 양적인 성장률을 여아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된다. 운동 능력 발달은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낮잠을 잘 자지 않는 유아는 점심시간 이후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9]

유아기는 특히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 하는 시기이다. 영아기 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두뇌의 크기도 계속해서 성장해 5 세 말경에는 성인의 두뇌 크기의 90%가 된다. 또한 두뇌의 신경계도 시냅스(synaptogenesis) 생성 및 가지치기, 수초화(myelination)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뇌의 질적인 성숙과정이 계속 진행된다.[20]

아동기 어린이들은 유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간다. 이 시기의 완만한 신체 발달 덕분에 운동기능 발달이 더 용의해진다. 그 이유는 아동

---

[18]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5), 99

[19] 조복희외, *인간 발달*, (서울 교문사, 1989), 186

[20]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80

이 신체적 크기나 비율의 급속한 발달에 적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Craig, 1992)[21]

2) 운동 발달 특성

유아기 시기에는 운동 발달을 통해 운동발달에는 남아 여아 다소의 차이가 있다. 여자는 소 근육운동을 즐겨하며 남아들은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때는 영아기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보이는 운동 발달 단계에 접어든다. 유아기 운동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표를 보도록 한다.[22]

< 표 4 > 유아기의 운동 특성

	2 세	3 세	4 세	5 세
눈. 손 협응	6-7 개의 블록 장난감을 쌓을 수 있다. 책을 한장씩 넘길 수 있다. 숟가락을 똑바로 입으로 가져간다. 한 손으로 유	9 개 정도의 블록 장난감을 쌓을 수 있다. 팔을 쭉 펴고 공을 잡는다. 주전자에 물을 붓는다. 단추를 끄르고 신발을 신을 수 있다. 원을 베낄 수 있다.	가위로 그어진 선을 따라 자를 수 있다. 조그만 공을 받을 수 있다. 옷을 스스로 입는다. 머리 위로 볼을 던질 수 있다.	삼각형과 사각형을 베낄 수 있다. 작은 공을 받을 수 있다. 똑바로 던질 수 있다.. 단추를 채울 수 있다.

[21] 곽노의 외, *영유아 발달,* (출판사: 양서원, 2010) 317

[22] 하재휘, 영성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장로교 신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87

	리잔을 잡는 다.			
이동운동	달린다. 큰 공을 친다. 사다리를 내려 간다.	발뒤꿈치로 걸을 수 있다. 두발로 깡충 뛴다. 세 발 자전거를 탄다. 계단을 내려간다.	질주한다. 세 발 자전거를 아주 능란하게 탈 수 있다.	열 번 이상 깨금발로 뛸 수 있다. 쉽사리 발을 바꾸면서 큰 사다리를 내려간다. 그어진 선을 따라 똑바로 걸을 수 있다.

신체 발달이 되어가면서 운동 발달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뛰고 넘어지고 뒹구는 등의 대 근육 활동과 블록으로 건물을 만드는 등의 소 근육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 근육 운동과 소 근육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23]

"유아기는 운동기술이 정교화 되고 몸의 균형을 필요로 하는 대 근육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관련된 운동기술을 익히는 영아기와는 달리, 자신의 몸과 물체와의 관계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해간다. 또한 체력과 기술이 강화됨에 따라 운동능력에 힘과 속도 및 지구력이 증가하면서 신

[23]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5), 99

체적으로 유능해진다."[24] 즉 여아는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뛰어넘기를 즐기며 남아는 달리기나 뜀뛰기 같은 대 근육 운동을 즐기게 된다.

3) 언어 발달 특성

유아들은 어휘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가 된다. 이 시기는 유아의 상징적인 기능을 획득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휘와 문법과 화용론에서 급속히 발달해 나간다. 언어발달에서 의사소통능력(화용론)의 발달을 보면 유아는 이 시기에 많은 대화 기술을 습득한다. 언어발달의 과정 있어서는 단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유아기 2 년차가 되면 두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가하고 30 개월이 되면 세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한다. 3 세 유아도 대화 상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묘사하는 등 상대방을 조금 고려해 줄 수 있는 단계이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성으로 인해 대화가 짧고 반복, 혼잣말, 집단적 독백 등의 자기중심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이 때 어휘 수가 1,000 개에 이르는데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Papalia, 1998). 어휘력의 증가를 보면 5 세경에는 2,500 개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휘 수는 계속 증가하여 6 세까지 10,000 개의 단어를 습득한다. 문장 길이도 길어져 3~4 세경에는 3~4 개의 단어로 문장을 구성하며, 4~5 세경에는 4~5 개 단어로, 5~6 세경에는 6~7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사용한다.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유아들은 2 세경에 200~300 개의 단어, 3 세까지는 1,000

[24] 박랑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81

개 단어, 4 세까지는 1,500 개 단어, 5 세까지는 2,000~2,500 개의 단어를 알고 사용한다" (이옥형, 2002).[25]

유아기 말경이 되면 자기중심적 언어가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사회화된 언어로 넘어가 사용하게 된다.

유아의 언어 발달에 있어 독백의 경우를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독백(monologues)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하는 자기대화로 4 세 유아의 발화 중 20~30%를 차지한다. 유아기의 귀에 들리는 독백은 아동기로 들어서면서 줄어들고 들리지 않는 자기말(self-talk)이 늘어난다 (Owens, 2001)".[26] 유아기 말에는 독백보다 자신의 말과 의사 표현이 늘어 나게 되는 시기가 되어 간다.

문혁준외 '*INTRODUCTION TO CHILD PSYCHOTHERAPY*' 에서 유아기 언어발달의 특징 다음과 같은 특색을 나타냈다. 첫째로는 유아들의 언어발달 능력은 운동반응표현과 언어반응표현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유아들의 언어는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유아들은 주위의 사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을 계속함으로 어휘와 문장의 구조를 발달시킨다.[27] 어린이들은 주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언어 반응이 다르고 단순하고 뚜렷이 나타내는 특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으로 언어를 발달 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성인이 직접적으

[25]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5), 102

[26]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84

[27]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5), 102

로 언어 학습이 없어도 도래 집단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단서를 추적 활용하여 추론해 낼 수 있다.

4) 정서, 사회 발달 특성

유아기 때는 독립심과 주도성을 기르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는 성역할의 발달을 보이는 시기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 나가는 단계이다. 또한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목적 지향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동시에 유아기는 또래 집단으로 대인관계가 넓어지며 가족과의 관계성을 넘어서 정서와 사회성 발달이 확대되어가는 시기이므로 억압적인 리더는 어린이에게 자존감을 낮추어 줄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1) 정서 발달

유아기 정서 발달에는 대인 관계에서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고 나아가서는 인정해 주는 지도자적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지도 받아야 하는 학습자로만 대한다면 정서적으로 안정 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아이의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면 어린이 영성 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며 영성 개발 프로그램에 적극 지향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서를 설명하는 한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정서를 경험하는 능력과 정서적 메시지를 보내는 능력과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메시지를 받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정서 과정은 하나의 측면이 다음 측면을 이끌어 내고

그것이 또 다음 측면을 이끌어 내는 식으로 마치 바람개비와 같이 빙빙 도는 순환적 특성을 보인다. 정서의 발달 역시 이처럼 순환하면서 한 측면이 성숙하면 이에 따라 다른 측면이 발달해 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Kalat & Shiota, 2007).[28]

a. 유아기 정서와 감정 표현

유아기 때는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긍정적인 정서면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 할 수 있다.
둘째는 부정적인 정서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아기에 보는 공포심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TV 에서 또는 어두운 공간과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느끼게 된다. 상상력이 풍부해 가는 시기라 스스로 상항 파악과 자신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공포심에 빠지기 쉬울 때이다.

b. 자아 발달과 개념

유아 때는 자신의 성, 외모, 능력, 태도, 가치 등 자신의 특징에 대한 지식과 평가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자아개념은 일상생활 적응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은 개인의 행동과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총체적으로 지각하고 느낀 결과로서의 자기 자신이라 날 할 수 있는데, 자아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자기 인식은 자신과 타인이 별개의 존재임을 알아가는 것이다.[29]

---

[28]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85

[29]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5), 106

자아개념은 자아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이라면 자아 존중감은 감정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아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느낌이라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믿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30] 또한 "유아기가 되면서 자신의 정서 상태 및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인 정서조절능력도 발달적 변화를 나타나기도 한다. 즉 이전 시기에는 부모의 통제나 지시에 의해 외적으로 정서가 조절되었던 반면 유아는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내적 정서 조절이 가능해진다. 유아는 불쾌한 정서를 일으키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재해석해 불쾌한 정서의 각성에 대처하며 이로 인해 더 어린 유아가 나타내는 성질부리기 같은 감정적 폭발은 점차 사라진다. 이 같은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는 부정적 정서를 건설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보여 주고 경험시키는 것 등을 통해 유아를 도와주는 부모나 성인의 역할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Shaffer, 2002)."[31]

한편, 정서의 의미와 정서들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추론과 문제해결에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인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있다. 정서지능에 대해 연구자들의 견해와 측정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Kalat & Shiota, 2007).[32]

---

[30] Ibid., 107

[31]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85

[32] Ibid., 87

유아기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에 따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한다. 보통 유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매우 높은 편인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며, 또래 관계도 원만하다.[33]

(2) 사회적 발달

유아기 때는 언어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감정을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표현을 길러야 할 때이다.

교회적으로도 어린이에게 기독교적인 리더십만 발휘하려고 하면 사회성을 넓혀 나가는 시기이므로 사회성이 결여 될 수 있다.

a. 성역할 발달

이 시기는 독립심과 주도성을 기르며 유아는 성역할의 발달을 보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가는 시기이다. 이 때 "성역할(gender role)은 각 문화에서 여자 또는 남자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행동, 태도, 기술 및 성격적 특성을 말할 수 있다. 유아기는 이와 같은 성역할을 습득하는 과정인 성유형화(gender typing)가 일어나는 시기다.Freud의 심리성적 이론에 의하면 유아기는 남근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유아는 자신과 다른 성의 부모를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는 아버지를,

---

[33]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그리고 여아는 어머니를 동일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 행동, 생각을 내면화시켜 부모의 성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발달시킨다.”[34]

또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성역할발달에 있어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호르몬의 분비와 성역할발달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출생 전후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소량의 세로토닌은 공격성이나 경쟁적 지배행동과 관련 있으며 태내기에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수치가 높았던 여아는 훨씬 더 활동적이고, 놀이친구로서 여아보다 남아를 선호하며, 남아가 주로 갖고 노는 놀잇감을 좋아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남아보다 우월한 여아의 언어적 능력을 언어적 유창성과 관련된 두뇌의 뇌량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35]

b. 또래와의 관계성

유아기의 또래관계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또래는 친구로, 모델로, 비교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인기 있는 유아는 활동적이며 독립적이며 적대적인 공격성을 덜 보이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이다. 또래는 서로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모델의 역할을 한다. 다른 유아의 행동을 지켜보고 모방하면서 규칙을 배운다. 또한, 친사회적인 행동과 반사회적인 행동도 관찰을 통하여 학습한다.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자아에 대한 이해 증가와 더불어 타인의 감

[34]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87

[35] Ibid., 87

정이나 생각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기술 역시 급속한 진전을 보인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수평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연령에 적절한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얻게 되고, 공통된 관심을 갖는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박성연, 2006).4 세경이 되면 '가장 친한' 친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대부분 유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까우면서 상호적인 또래관계에 참여하게 된다(Erwin, 1998)."[36]

또래관계의 형성에는 유아의 타고난 기질, 애착의 역사, 그리고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 기질적으로 수줍음이나 억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행동에 부모가 지나치게 우려하고 비판적이며 통제적일 경우 오히려 유아의 행동억제는 더 심해진다. 반대로 부모의 민감하여 반응적인 양육태도, 즉 유아의 기질에 조화로운 양육태도는 행동억제를 감소시켜(박성연, 2006)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밖에 부모는 유아가 또래와 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유아기의 또래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또래와의 놀이도 다양한 형태로 발달해간다. 유아의 놀이를 처음으로 연구한 학자인 Parten (1932; 박성연, 2006 에서 재인용)은 관찰을 통해 아동의 놀이를 비참여적 놀이, 혼자놀이, 방관자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 등의 6 가지 형태로 분류한 바 있다.

[36] Ibid., 88

인지적이며 사회적 발달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대적 놀이 분류에서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지적으로 보다 성숙해져 영아기(~2 세)에는 단순 반복적인 기능적 놀이를 보이다, 점차 구성하는 놀이(3 세~6 세) 및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이 결합해 나타나는 가상놀이(2~6 세)로 발달해 간다(박성연, 2006)고 하였다.

c. 친 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

유아는 그가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승인 받는 행동이며, 규제 받는 행동인지를 학습한다.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돕기, 나누기, 협동하기, 위로하기 등의 친 사회적 행동과 이기적인 행동, 거짓말하기, 훔치기, 신체적 공격 등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37] 친 사회적 행동은 약 3 세경의 유아는 곤경에 처해 있는 또래를 도와주거나 놀잇감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타적인 행동은 4~6 세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친 사회적 행동은 조망수용 능력, 감정이입, 문제 해결 기술의 세 가지 사회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아기 이후부터 현저히 발달된다. 또한, 이러한 친 사회적 행동은 주변의 사람들을 모방함으로써 촉진되기도 한다. 유아가 일상 가운데 관찰 가능한 대상인 부모, 교사, 친구의 행동이나 텔레비전 속의 대상이 보여주는 친 사회적 행동은 이 시기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

반사회적 행동이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유아는 반사회적 행동을 다양한 매체나

---

[37]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5), 104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배운다. 전형적인 반사회적 행동인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또는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 있다 (조복희, 공인숙, 권희경, 김혜선, 박은미, 서소정 외, 2007). 도구적 공격성은 자신의 영역, 물건 등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공격성으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거의 없다. 반면, 적대적 공격성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이다. 적대적 공격성보다 도구적 공격성이 유아기에 더 많이 나타난다.

5) 인지적 발달 특성

(1) 인지 발달

인지(認知)란 감각적 자료를 해석하고 이것을 기억해 주었다가 필요할 때 재생시켜 주고 추리, 문제 해결 등에 이용하여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획득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38]

(2) Piaget 는 인지 발달 단계

Piaget 는 인지 발달 단계를 크게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해서 네 가지로 단계로 나누었다. 여기서 필자는 유아기에 맞는 '전조작기'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Piaget 의 전조작기 (preoperational period) 는 연령을 18 ~24 개월에서 6~7 세 까지를 지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아직도 감각 운동적 적응 형태가 많이 남아 있으나 상징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조작적 단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베개가 아기 될 수 있고 막대가 총이 될 수 있는 등

[38] 김경중 외, *Psychology of Child Development*, (서울: 학지사, 2012), 135-136

어떤 사물을 상징하는 상을, 단어, 행동을 어떤 기호로 쓸 수 있게 된다. Flavell은 이시기에 성취되는 이러한 상징적 사고의 특징을 매우 놀라운 것으로 기술한 반면 Piaget는 취학 전 유아들이 조작 할 수 없다는 점을 맞추어 부정적 어조로 기술 했다 (Flavell, 1985).[39] Piaget의 부정적 어조로 기술 했지만 필자는Flavell의 유아 상징적 사고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며 Piaget의 유아 시기의 사고의 특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a. 자아 중심적 사고 (egocentric thought)

"자아 중심적이란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 지각 등이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아는 사물이나 현상을 자신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타인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유아가 자신의 조망과 타인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독단적인 것과는 다르다 (김수희, 전대성, 나용선, 김지현, 2006). 이러한 사고를 하는 유아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어렵다. 오직 자기 생각하는 방식만이 존대한다." [40]결국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받아 드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는Piaget 와 Inhelder의 유명한 '세 개의 산 실험' 과제를 통해 잘 드러난다. 또한 유아기의 자기 중심성(egocentrism)은 유아의 자기중심적 언어(egocentric speech)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유아는 자신이 하는 말을

[39] 김경중 외, *Psychology of Child Development*, (아동 발달 심리, 출판사: 학지사, 2012), 148.

[40]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5) , 100

상대방이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자기 생각만 전달하는 식으로 의사소통 한다” (정옥분, 2002).[41]

b. 상징적 사고 (symbolic thought)

감각운동기 말기에 표상능력의 출현과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상징인 언어의 발달은 상징적 사고를 더욱 활발하게 나타내 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상징의 사용으로 인해 유아의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게 증가 되며 시행착오가 감소 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지금-여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다. 가상 놀이도 점점 빈번해지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달 해간다.”[42] 상징적 사고는 영아기 말부터 유아기에 활성화 되어 가며 모방이나 상징놀이를 접하게 된다.

정갑순은 ‘*Psychology of Child Development*’에서 말한다. “이 시기의 유아는 놀이 활동에서 비언어적인 상징 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베개를 아기처럼 업고 다니며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는 흉내를 내고, 막대를 가지고 총 놀이를 하며 엄마 아빠가 되어 역할 놀이를 하게 되는 가상 놀이(make - believe play) 또는 가정놀이(pretend play)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마치 ~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표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43]

c.물환론적 사고(animistic thinking)

---

[41]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42]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43] 김경중 외, *Psychology of Child Development*, (아동 발달 심리, 출판사: 학지사, 2012), 149.

Piaget는 유아들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아동이나 성인들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었다. "유아는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물환론적인 사고를 보인다. 이는 특히 유아기 초기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4~6 세 유아는 모든 사물은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44]

d. 도덕적 실재론

유아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동기에 의해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결과 여부에 따라 잘못한 정도를 판단한다. 바로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판단 하다는 것이다.

e. 보존 개념의 결여

보존개념(conservation)이란 사물의 외형이 변해도 원래의 상태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감하지 않으면 물질의 양, 수, 길이, 면적 등은 그 형태나 위치를 변화 시키더라도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말한다. " 유아는 이러한 보존 개념을 자지고 있지 못하지만 유아기 말부터 수, 길이, 질량, 무게의 순으로 보존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하여 부피 보존 개념이 가장 늦게 발달한다."[45]

f. 인공론적 사고

유아가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자연현상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늘이

---

[44] 박랑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83

[45]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파란색인 이유는 누군가가 파란색 물감을 하늘에 색칠하였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다.[46]

g. 변환적 추론 (transductive reasoning)

이 시기 유아의 사고의 특징은 변환에 유의하거나 열중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유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계열적 상태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한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는 과정보다는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하나하나의장면의 상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변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갑순은 *Psychology of Child Development* 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연역적 사고(deduction)eh 아니고 귀납적 사고(induction)아닌 비약적 도출과 같은 사고를 갖게 된다." 는 것이다.

Ⅲ. 영성의 의미와 어린이 영성

본 장은 먼저 영성의 의미를 본다. 그리고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심도 깊게 어린이 영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영성의 성경적 근거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조사와 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1. 영성(Spirituality)의 의미

영성의 의미는 웹스터 사전에는 영성의 여러 정의 들 중 첫 번째로 "생명의 숨 유기체에 생명을 주는 생기나 활력" 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흡을

[46]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5), 101-102

뜻하는 라틴어 ‘spirare'에서 유래한 것이다. [47]'영성'이란 사전에는 형용사로 ‘영성적인'의 그리스말 '프네우마티코스(pneumatikos)'를 번역한 말로 '영에 따라서', '영에 충만하여'라는 뜻으로 쓰인다.

'영성'이란 말은 그리스도교에서 쓰기 시작했고 명사로 사용한 것은 19세기 프랑스 가톨릭교회에서였는데 그 당시엔 영적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영성(spirituality)'이라고 한다. 결국 영성이란 영을 따르는 삶, 성령의 샘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뜻한다는 것이다. 영성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Thomas a Kempis*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48] 말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을 어두움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

김 상복의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에서는 “참된 영성이란? 율법적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거나 좋은 영적 습관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참된 영성이란, 나를 비우고 내 안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변화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49] 라고 말했다. 영성은 영적 생활을 전개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가르침,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인용된다. 영성은 점점 더 예수님의 영에

---

[47] Aline D.Wolf , 조성자, *어린이들에게 영성은 존재하는가?*, (서울:학지사, 2000), 26

[48]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49]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따라 이루어지고 변화되게 하는, 예수님의 태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인 것이다. 모든 종교는 영성의 길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신앙 내용을 실현한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다른 종교 또한 영성의 길을 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기에 모든 영성을 뒤섞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미국 원주민 Onondaga Nation의 Faithkeeper은 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성은 우리 삶의 정수이다. 영성은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새와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 영성은 사람이 미소 짓도록 하는 것이다. 영성은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으며, 그 나름의 존재를 가지며, 볼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힘이다"[50] 라는 것이다. 영성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삶을 창조주가 운행하고 계시며 영성은 우리를 자연의 세계를 누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Donald Coggan 은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에서 영성에 대해 "나는 한 나그네로서의 영원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고 말했다. 진정한 영성이란 삶의 변함없는 영향을 주며 나아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위키 백과*에서는 또한 영성은 낱말이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쓰여 지기도 한다. 첫째는 궁극적인 물질적 실재 (reality)

둘째는 자신의 존재의 에센스를 발견 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

[50]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셋째에 의거하여 살아야 할 준칙으로서의 가장 깊은 자치들과 의미들을 말한다.[51]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만나기도하며 대화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기독교 타임즈에서 영성에 대해 로렌스형제(brother Lawrence)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마조리 톰슨(Marjorie Thomson) 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증가 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의 성품들이 점차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배드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다.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종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했다.[52]

신약에서는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영성으로 볼 수 있다.

이태복은 그의 저서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에서 올바른 성경적 영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첫째, 성경을 영성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거듭남의 은혜를 영성의 수원지로 삼아야 한다.

셋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51]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52]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넷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영성 방법, 즉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세 가지 영성 방법, 곧 설교와 성례, 주일 성수, 성도의 교제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여섯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는 것을 영성의 자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삼아야 한다.

일곱째,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성을 실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53]

결국 영성은 성경을 올바른 가치관을 준범하지 않고는 그리고 행하지 않고는 진정한 영성의 정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영성을 형성 할 때에는 영성 생활의 유일한 설계도인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에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54] 영성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행할 때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말씀 떠난 영성은 기도교의 영성이 아닌 것이다. 계속적으로 영성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인 것이다. “성경의 영성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2. 어린이 영성(Children's Spirituality)의 본질

유선희는 ‘*어린이 영성의 본질*’에서 이렇게 말한다.

---

[53]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54] Donald S. Whitney,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 (출판사: 네비게이토, 1997), 23

“어린이에게 영성은 존재하는가?”라는 논문에서 이에 대한 해이와 나이의 대답은 당연히 ‘예!’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존재한다는 ‘영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영성은 한마디로 ‘특별한 의식’(unusual consciousnes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 의식(everyday awareness)을 넘어서고 또 그것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종류의 의식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상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식인 영성은 소속종교의 종교적 학습과 경험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종교적 학습과 경험을 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어린이(인간)의 생득적인 혹은 자연 본성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영성은 일상을 넘어서 종교적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어린이의 존재적 자영 본성임을 말하고 있다.

1) 어린이 영성에 이르는 길

케리토마스는 인간 (어린이 포함) 의 영적인 기질에 따라 아홉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 갈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예배에 참석하거나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례에 참여 하는 전통 방식

둘째,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방식

셋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다.

넷째,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다.

다섯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방식이다.

여섯째,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다.

일곱 번째, 불의에 저항하거나 사회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다.

여덟 번째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방식을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예배를 통해 영성을 강화 하는 방식 있다는 것이다.[55] 영성의 이와 같은 입장은 수평적이며 수직적인 현상이며 현실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영성은 삶의 모든 부분과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삶의 모든 면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영성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Ⅳ. 연구 분석 RESEARCHING QUESTION

Chapter 1. 성서적 접근 BIBLICAL COMPONENT

본 장은 어린이 영성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면서부터 영성을 지니신 예수그리스도의 영성과 지도력을 통해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성서적 접근 방식을 예수님이 행하신 Leadership 과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하며 어린이들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1. 예수님의 영성과 Leadership

예수님은 이름자체에서 영적인 절대 지도자로 표현 할 수 있다.

---

[55]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마 1:21) 이심이라고 했으며 즉 그것은 '여호수아' 라는 헬라어 형태로'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을 '선생' (' 에피스타테스' ἐπιστάτη ς) 으로 불리는데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암시적 용어로 쓰인다. 히브리어로 "아돈"(אָדוֹן) 하며 이라는 주권자 형태로 쓰이며 , 헬라어는 "디다스카로스"(δίδάσκαλος), 조직체에 ' 가르친다 ' 라고도 하며 더 큰 존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 ('쿠리오스 ' (κύριος) 라고도 호칭을 따라 영성을 갖춘 리더십을 예수님은 발휘하셨다.[56]

한홍은 "리더십이란 한 끼치는 영향력으로서, 그 단체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그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따르는 이 (follower)들도 분명한 리더십의 중요한 일부분이다.[57]

많은 사람들은 때론"따르는 이"하면 무조건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군종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런 선입관부터 깨어 날 필요가 있다. Follower는"따르는 이"라는 영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돕다, 후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독일어인 "follaziohan"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팔로워에 대해 엄격히 정의를 내린다면 "리더 에게 없으면 안 되는 돕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58]

---

[56], D.J.Wiseman 외, *NEW BIBLE DICTIONARY*, 기독교 문서 선교회, p1292

[57] 한홍, *Survey of Christian Leadership*,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4),p 29

[58] 한홍, *거인들의 발자국*, *(Survey of Christian Leadership)*, 비전과 리더십, p. 405

미국의 해군 함대 제독 니미치는(Chester W, Nimitz)는 "지도력이란 그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견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감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다. 라고 정의 했다."[59]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영적 지도력 (Spiritual Leadership) 에서 좋은 리더란 "예수께서 미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켰으며 뛰어난 훈련 방법을 택한 것"[60] 이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훈계보다는 모본을 가르치셨으며 의례적인 것보다 즉흥적인 리더십을 삶을 통하여 보여 주셨다는 것이다.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 은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인격만으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비춤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인격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61] 결국 영적 지도력은 영적 지도자의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으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의 실천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해 보도록 한다.

1) 예수님의 권위와 Leadership

---

[59] Oswald Sanders. *영적 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5), 39

[60]Ibid., 24

[61] Ibid., 41

만왕의 왕이신 것을 거절하시고 모든 자의 죄악 속에서 구원자로써의 권위를 가지셨다. 여기서 권위와 구원에 원어의 뜻을 알아보도록 한다. 권위는 권능이라는 POWER로 표현 되기로 하는 단어로 뒤나미스(δύναμις) 와 엑수시아(ἐξουσία) 는 나타내는 것으로 권위, 즉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능과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국 뒤나미스는 영적 능력이나 힘을 나타내기도 하며 엑수시아는 구체적으로 땅 위의 권세자들이나 영적 세계의 권세자들을 나타내기도 한다.[62] 구원의 의미는 (Salvation)의 (히. 예샤 ישׁע ,헬. 소테리아 σωτηρία) '넓은 환경으로 이끌어 들이다'이나 그것은 원래는 ' 제액으로 부터의 자유'와 억제하고 구속하는 요소들로부터 구출한다는 뜻이기도 한다.[63] 영원한 만 왕의 권위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사 이용규는 내려놓음에 대해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라고 했다. 움켜잡히면 소멸되나 내 맡기면 풍성해 진다는 영적 비밀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내려놓음의 리더십의 원천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권위자 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리더십을 몸소 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셨다.

Oswald Sanders "자기들의 세대에서 가장 능력 있고 영구하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보았던 사람들 즉, '앞일을 내다보는 사람들' 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다. 이것은 구

---

[62] D.J.Wiseman 외, *NEW BIBLE DICTIONARY,* 기독교 문서 선교회 , p. 199-200

[63], Ibid., 189.

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의 믿음은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었다.[64]

비전이 있는 리더는 현재에 억매이지 않고 내려놓기에 익숙하게 된다. 목적을 향해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유력한 영향력을 통해 제자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숨까지 내려놓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2) 예수님의 Leadership 과 영적 행위

리더가 계획과 말에 대한 권위는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웃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마 7:14)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게 말씀을 행하셨다. 진정한 리더십은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목표로 영향력 있게 인도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과 생명력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Richard Foster는 *‘Celebration of Discipline'* 에서 예수님의 혁명적인 종속관계는 위대함에 대한 “ 현대인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지도력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데 있고 힘은 복종에 있다. 이 철저한 종의 도를 으뜸가는 상징은 십자가이다.” [65] 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

[64] Oswald Sanders**,** *영적 지도력*, (요단 출판사, 2005)

[65] Richard Foster.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6), 168

CROSS(헬, 스타우로스 σταυρός) 로 일차적으로는 곧은 말뚝이나 큰 각재 (beam) 를 의미하고, 이차적으로는 처벌과 사형 집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말뚝을 의미한다. 구약 시대에는 살아있는 범죄자를 십자가에 못박는 일은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형 집행으로는 페니키아인들과 카르타고 인들에 의해 습관적으로 실행 되었다. 대부분 노예들, 지방 사람들 그리고 최하층의 범죄자들이 십자가 형을 당했으며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다는 일은 거의 없었다.[66] 예수님 스스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그리스도는 진정한 행위의 능력을 보이신 리더시다. 죽음으로 나타낸 거룩한 행위는 오늘 날 온 인류의 구원의 선포를 자져다 주신 것이다.

Richard Foster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으로 삶을 사셨다. 십자가의 길, 즉 고난 받는 종의 길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 종의 정신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셨다.”[67] 진정한 리더는 행위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영양을 미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류에 악인을 선인으로 이끌어 주셨다.

3) 예수님의 섬김과 영적 Leadership

---

[66] D.J.Wiseman 외, *NEW BIBLE DICTIONARY*, 기독교 문서 선교회, p 1020

[67] Ibid., 168

Donald G. Bloesch는 섬김에 대해 "영적 훈련들을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격려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 훈련의 목적이다."[68]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섬기려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 20:27)

예수님은 완벽한 섬김의 종이셨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위해 섬김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웃을 향해 섬겨야 한다. 진정한 섬김을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Thomas R. Kelly는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참을 수 없을 만큼 열기에 찬 극한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다"[69]

주님은 우리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작은 섬김도 귀한 것으로 섬기며 즐기게 하신다. 자신의 의는 자신을 나타내는데 힘의 소비로 소모되지만 주님의 의는 모든 것을 감당 할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또한

---

[68] Donald S. Whitney,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 (출판사: 네비게이토, 1997), 23

[69] Thomas R. Kelly, *A Testament of Devo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1), 124

섬김을 통한 유익을 추구하고자 작성하고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이것을 Richard J. Foster 는 "自己義賊 섬김이라"고 말한다.

"自己義賊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보며 그 수고 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갈채를 추구하며, 이와 함께 물론 적절한 종교적인 고상함도 추구합니다" 자의의적 섬김은 결과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그것은 자 기가 섬긴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보답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육은 섬김에 대해 우는 소리를 하며, 은밀한 섬김에 대해서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명예와 인정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은 자기가 베푼 섬김에 주의를 끌기 위해 교묘하면서도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단 들을 강구할 것입니다.[70]

예수님의 섬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희생의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서 희생이란 구약 성경 에는 ' 가까이 가져 오는 것'(קורבן)이라는 뜻을 가진 , 고르반 (qorban)이라는 단어로 상당히 드물게 사용되지만 의미적으로 ' 죽임을 당하는 것'(제바흐, 희생)과 ' 위로 올라가는 것'(히 . 올라)라는 종류로 희생이 의미된다.[71] 그리스도의 섬김은 오직 우리를 향한 온전한 희생적 섬김이며 속이지 않는 섬김이셨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연회가 끝날 무렵이면 나오는 낮은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70] Richard Foster,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권달천. 황을호 옮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1986 년), 18

[71] D.J.Wiseman 외, *NEW BIBLE DICTIONARY,* 기독교 문서 선교회, p1795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요 2:7-11) 예수님의 섬김은 연회장을 연회장 되게 하시는 진실하신 리더십을 보여 주셨다. 세상의 리더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차기의 리더들을 양육하지 않고 섬겨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3 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숙식하시면서 섬김을 다해주셨다. 그리고 친히 하늘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다. 예수님을 리더들을 리더 되게 섬겨 주셨다.

Henry Blackaby의 *영적 리더십* (2002) 에서는 주변에 리더 무리를 양성하기 위해 리더가 꾸준히 시행해야 할 네 가지 습관을 제시한다. 한 결정에 집중한다는 것이다.[72] 예수님도 열 두 제자를 뽑으시고 후에 70 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눅 10:1) 추수 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일꾼 즉 리더들을 보내셨다.

첫째로는 리더는 위임하기도 한다. 리더가 본질상 결정을 내리는 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리더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73]

---

[72] *영적 리더십*, Henry Blackaby, (윤종석, 두란노, 2002), 166

[73]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둘째로는 리더는 실수를 이해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74] 리더를 위임하고 위임 할 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참여는 금물이다.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 소관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 없이 많은 실수 앞에도 즉 말고의 귀를 자를 때도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하셨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를 리더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진정한 리더십을 볼 수 있다.

셋째로는 리더는 타인의 성공을 인정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75]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이것을 수많은 사람이 먹으라고 가지고 왔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축복해주시며 축사하시고 (요 6:9-13)도리어 오 천명 정도되는 무리를 먹이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면서 리더를 양육하셨다.

넷째로는 리더는 격려하며 지원해야 한다. 일단 업무를 위임했으면 절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라는 뜻은 아니다. 맡기도 리더는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가면 된다.[76]

진정한 리더는 팔로우를 리더로 양육하기 위해 섬김과 준비하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팔로우에게 위임했다면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세부터가 필요하다.

---

[74] Ibid., 167

[75] Ibid., 168

[76]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한 탁월한 리더 자의 부분적 천재성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한 명의 천재보다 지속적이며 탁월한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지도자를 발굴하며 훈련하고 지속적인 지도자 훈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라마다 지도층의 탁월한 리더 자를 세우는 것이 그 나라의 저력이다." [77]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겨주셨다.

예수님은 산상수훈(마 5 장)에서도 늘 말씀으로 삶의 도를 이해하도록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

Henry Blackaby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림줄이다.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리더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비해 본다."[78]

팔로우를 말씀으로 섬기며 리더는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는 자이다.

4) 진정한 리더인 그리스도와 영적 성품

Henry Blackaby는 "리더의 성공적인 척도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했느냐는 것이다. "[79]

많은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 하지 못하고 남도 하나님의 뜻하는 자리에 인도하지 못한다.

Henry Blackaby는 "영적 leader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 지위와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한다. 즉 인도하시고 능

[77] Lee Strobel 홍종락, *The Case for The Real JESUS,* (서울: 두란노 출판사, 2009), 9

[78] *영적 리더십*, Henry Blackaby, 윤종석, (서울: 두란노, 2002), 342

[79] Ibid., 112

력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리더는 직위와 상관없이 영적인 권위를 얻을 수 없다."[80] 리더는 자신의 위치에서 권력을 따르는 자에게 남용하는 사회적 리더인 사람들이 조성된 분위기가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압도적인 리더에게 반기를 들고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의 명령은 남아 있는 시대이다. 이런 리더에게 서로의 삶을 위한 요란한 소리를 낮추며 순종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리더와 따르는 자의 삶은 아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leadership 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도 지니신 온유와 겸손이셨습니다. (마 11;27~28)

결국 말없이 지신 십자가에서 지금까지도 진정한 리더로 영원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참된 리더는 단체에 영향력을 격려와 위로와 칭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영 육적인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원한 리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영적 리더십이란? 인간 쪽에서 지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맡기실 일을 정하신다.[81]결국 영적 지도력은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온전한 희생이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

---

[80] Ibid., 115

[81] Ibid., 66

다. 논문에서 영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풀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리더는 Followers 들과 공동체 생활을 즐기는 것이며 예수님은 자신 있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Followers 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변함없는 진리를 지키며 행하신 사랑이다. 그리고 팔로우의 일용한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제자를 부르신 리더로 삶을 통한 비유로 Followers 에게 다시 제자를 낚는 법을 가르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주시므로 좋은 리더가 무엇인가를 말없이 보여주셨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리더로써 Followers 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으로 좋은 리더가 되라고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팔로우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 좋은 리더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Followers 에게 리더의 자리에 있게 하는 법을 지시하는 자는 리더이다.

2. 하나님을 향한 성서적 영성기도

어린이 여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어린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실행 하기 위한 영성 기도를 논하도록 한다.

William Carey의 '*기도의 능력*'에서 다음과 같은 말한다. "기도는- 은밀하고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밑뿌리이다,"[82] 라고 했다. 결국 영성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Martin Luther는 다음과 같이 선언 했다. "나는 일이 너무 많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세 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고 했다.[83]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성서적(영성) 기도 없이는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John Wesley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라고 했다.[84]

성서적 기도는 영원한 생명선이고 축복선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것은 놓아도 놓지 말아야 하며 다른 거대한 것을 기대하고 품고 있어도 진정한 축복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Juliana Norwich 는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에서 기도에 대해 이리 말한다. "나는 너희가 간구하는 근거가 되며, 너희가 그 근거를 갖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너희로 그것을 원하게 한 후에야, 내가 너희로 간구하도록 한 후에야 너희는 그것을 간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구하지 않는 일을 있을 수 없다."[85]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 모습을 통하

---

[82] Edward McKendree unds, *Power through Prayer*, (기도의 능력: 생명의 말씀사, 2014), (Chicago: Moody Press, n,d), 24

[83] Richard Foster,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권달천. 황을호 옮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1986 년), 18

[84] Lee Strobel 홍종락, *The Case for The Real JESUS*, (서울: 두란노 출판사, 2009), 9.

[85]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리처드 포스트, 권달천. 황을호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86 년), 56

여 본을 보이시며 기도에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며 뒤를 따르길 원하신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힘이 주어진다고 느낀다. 기도는 타지의 광야 가운데의 길과 같은 것이다. 특별히 성서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Oliver Cromwell의 지도 목사인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John Owen은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해 말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 모든 빛 줄기와 진리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강하게 와 닿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에 대해 기도하십시오."[86] 많은 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마음으로부터 울러 나오는 성서적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테이트 (Tait) 대감독은 기도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보다 더 고귀하고 보다 더 깊고 그리고 보다 더 진실한 기도의 삶을 원한다."[87] 진실된 기도의 삶이 진정한 성서적 기도이다.

1) 영적 기도의 내용인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일상적으로 아람어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 의해 헬라어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88]마 6 장과 누

---

[86] Donald Whitney,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 (서울: 네비게이토, 1997), 96

[87]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Richard J. Foster, 권달천. 황을호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86 년), 74

가복음 11 장에서 언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 (프로스코마이 προσεύχομα)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며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룩한 대화이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communion with God)이다.

3 세기 중엽 카르타고의 주교 Cyprian은 주기도문에 대한 글에서 우리의 특권을 아주 잘 해주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서 이 이름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허락하시지 않는 한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관대하심은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의 겸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선하심은 또한 얼마나 위대한가!"[89]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인 것을 증명하고 자녀임을 확증하면서 아버지께 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

[88] D.J.Wiseman 외, *NEW BIBLE DICTIONARY*, 기독교 문서 선교회, p

[89] Donald S. Whitney,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 (출판사: 네비게이토, 1997), 23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의 독특한 특권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90]

기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祈禱 內容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主祈禱文)인 것이다.

Timothy Keller 는 *‘PRAYER’*에서 주기도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거스틴과 루터, 칼뱅처럼 기도를 가르친 위대한 스승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경험을 토대로 기도의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산산 수훈에 이루는 주기도문(마 6:9-13)을 최고의 본보기로 삼아 거기서 무얼 믿고 훈련할지 뽑아냈다. 루터의 고전적인 편지들도 그렇지만 < 기독교 강론> 역시 예수님이 본보기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줄 한 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관련 된 지면(20 장)이 대부분 차지한다. 그들은 하나 같이 성경적인 주석과 해석항적인 저자들 뿐 아니라. 목회 적이고 신학적인 글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한 군데씩은 적잖은 분량을 배정해 주기도문에 대해 설명했다.”[91] 이 대목을 보면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논리와 논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의 기본 진리와도 같은 것이다. 기도에 대해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 다 있다,”[92] 라고 할 정도 이다.

---

[90] Ibid., 210

[91] Timothy Keller, *PRAYER*, 최종훈 옮김, (두란노서원, 2015), 159
Martin Luther 와 관련해서는 "A Simple way to Pray," 뿐만 아니라 “Personal Prayer Book" in Luther's Works, 그리고 Large Catechism and Small Catechism, Luther's Work:

[92] Ibid., 16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눅 11:2-4)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접할 수 없는 존재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말해 준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전적인 타자’(the wholly Other)이시다. 그러면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 질문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모두 열여섯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열다섯 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93]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창조세계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

[93] 김남준, *깊이 읽는 주기도문*,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2013), 71

19:2-4)[94] 결국 구별된 존재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늘에 계신 칭호는 높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와의 무한한 질적 격차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부릅니다.(레 11:44)[95]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시며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주기도문 안에서'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통치 하십니다.이 사실을 굳세게 믿는 것은 진실한 기도의 실천을 위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모든 세계와 인간 존재의 원인 뿐 아니라 그것들의 운명과 존재의 목적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96]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여"이 구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여"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πατηρ) 라고 한다. 당시 이 단어는 가족 관계에서 통용되는 '아버지' 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을 부르실때, 아람어 단

---

[94] Ibid., 71

[95] Ibid., 76

[96] Ibid.

어 ‘아빠’(אבא) 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막 14:36) 요아힘 예레미아스(JOACHIM JEREMIAS, 1900-1979)는「바빌로니아 탈무드」(babylonia talmud)의 기록을 근거로, ‘아빠’라는 아람어가 원래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호칭하며 말을 더듬는 소리라고 보았는데, 이는 마치 어머니를 호칭하며 ‘임마’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97]

Martin Luther는 그의 주기도문에서 말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곧장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려는 의도가 아니라 기도로 진행하기 전에 우선 스스로의 처지를 되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위치를 자각하려는 부름말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평안해 하는 믿음을 마음에 심어 주시길"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98] 또한 칼뱅은 “주님은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든 불신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99] 라고 말했다.

김남준의 ‘*깊이 읽는 주기도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호칭은 4 중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로는 삼위일체 안에서 위격적 아버지 되심(inter-trinitarian Fatherhood)입니다. 성자와 성령과 구별된 성부가 아버지로 불리십니다.

---

97 Ibid., 78.

98 Timothy Keller, *PRAYER*, 최종훈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15), 161.

99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둘째로는 창조적 아버지 되심(creative Fatherhood)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만물과 함께 인간의 기원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된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셋째로는 신정적 아버지 되심(theocratic Fatherhood)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중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당신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넷째로는 양자적 아버지 되심(adoptive Fatherhood)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속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가리킵니다.[100] 즉 아버지라는 호칭 안에는 위격적 아버지 되심, 창조적 아버지 되심, 신정적 아버지 되심, 양자적 아버지 되심, 으로 우리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2)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도리어 "그 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거룩한 건 아니다."[101]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존귀한 이름이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다. 칼뱅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조를 같이 하면서 내면 깊숙이 새기고 있던 생각을 말했다. "은혜를 짓밟는 행위로

---

[100] Lee Strobel 홍종락,*The case for The real JESUS*(서울:두란노 출판사,2009),9.

[101] Richard Foster,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권달천. 황을호 옮김 ,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 1986 년)18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면, 그 만큼 가당찮은 짓이 어디에 있겠는가?"[102]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며 닮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영성 있는 기도 인 것이다.

(3)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면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럴수록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입술의 고백이 되고 기도에 내용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린 것 같다.

김남준 목사는 한국의 청교도적 설교가로서 그의 저서 "*깊이 읽는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쁨을 드리는 신자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기도의 열렬함과 삶의 치열함이 서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누가 주기도문을 죽였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103] 사람들은 너무도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주기도문은 의미 상실이 되어 버린 오랜 시간이 이어오고 이어가는 것에 대한 가장 예리한 변론을 유도하는 말을 그리스도인에게 던졌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 는 그의 저서 "A Simple way to pray" 형식적으로 외우는 주기도문은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

---

[102] Richard Foster,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권달천. 황을호 옮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1986 년), 18.

[103] Lee Strobel 홍종락, *The Case for The Real JESUS*, (서울: 두란노 출판사, 2009), 9.

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드려지지 못할 것이며, 주기도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용 당해 온 “가장 끔직한 순교자”라고 말했다.[104]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내용이 죽어 버렸고 마음도 없는 입술로 암송하는 것으로 중얼거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생각은 다른 것에 집중되기 쉬운 것이다.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수 천년 동안 외운다고 하더라도 주기도문 안에 있는 1 점 1 획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그러하듯,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은 온 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105]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떠한 기도 내용보다 더욱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어느 면에서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여러 기도문이 나오기도 한다. 요 17 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라고 말하신 것이 주기도문이며 이것은 기도의 原型이고 근본이라고 볼 수 있다.

[104] Martin Luther, *"A Simple way to Pray,"* 193.

[105]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Thomas Wright 는 그의 저서 “*The Lord and His Prayer*”주기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적인 방식을 소개할 수 있다. 말하자면 주기도문을 사순절이나 대림절 같은 특별한 때에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다는 것이다.

첫째, 예로부터 전해 오는 방식이 있는데, 주기도를 토대로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주기도의 구절을 하나씩 선택해 생각하고 있다가 그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자신이 기도하려는 특별한 것들을 그 제목 아래 불러내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구절을 선택했으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몇몇 구체적 사례를 기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정교회 교인들이 ‘예수 기도’(Jesus - prayer)를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이 주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호흡에 맞춰 주기도를 천천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고 한다. 분주하여 스트레스를 잔뜩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이 훈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한동안 주기도의 구절을 하나씩 차례로 택해 ‘오늘의 기도’로 삼아도 좋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월요일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화요일에는 “나라가 오게 하시며”,

수요일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목요일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금요일에는 “악에서 구하소서”,

토요일에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그날의 구절 구절들을 자신의 골방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언제라도 거기 들어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된다.[106]

이 말은 주기도문을 첫 번째 주석한 사람으로 알려진 주후 3 세기의 라틴 교부 터틀리안이 했던 말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전복음의 요약” (a breviarium totius evangelii) 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으로 일축해서는 안 되며 주님의 전 인격과 사역이 투영되어 있는 기도중의 기도도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따라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받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주님이 삶을 이해 할 수 있고 그의 사역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 할 수 있다.

장로교의 창시자 장 칼뱅 (프랑스어: Jean Calvin, 1509 년 7 월 10 일 - 1564 년 5 월 27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 1 목적이라 했다. 장 칼뱅은 존에 대해서 칼빈 또는 요한 칼빈은 종교 개혁을 이끈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고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기도라는 것으로 보면 된다.

2) 기도의 방법

[106] Richard Foster,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권달천. 황을호 옮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1986 년), 18.

“기도 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6) 하셨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는 이미 그 기도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셨다.

“기도 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말을 많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하느니라” (마 6:7).

지용훈의 저서 ‘말씀으로 기도하라’에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 군더더기 없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한다.

강요셉은 그의 저서 ‘응답 받는 기도 습관 20 가지’ 중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한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만 했지 바르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성품의 변화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 기도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기도의 시간과 양을 채우고 어느 선에 도달하려는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기도가 내 영혼과 마음에서 나오기 보다는 머리에서 목청에서 제 감정에서 열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머리와 생각과 말로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바른 기도로 방향을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서 영육의 쉼을 얻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를 원합니다." [107]

E. M. Bounds 의 '*기도의 능력*' 의 저서에 말한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108]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힘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더라" (눅 22:44).

3) 묵상훈련(Discipline of Meditation) 과 기도훈련 (Discipline of Prayer)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쉬지 기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

Donald Whitney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기 위해,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기위해, 그리고 효율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누가복음 11:1 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해야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

[107] Richard Foster,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권달천. 황을호 옮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1986 년), 18.

[108] E. M. Bounds**,** *기도의 능력*, 이정윤 역, (생명의 말씀사, 2008), 23-24**.**

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109]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배워야 한다.

Oliver Cromwell 의 지도 목사요 청교도 신학자인 John Owen 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우리를 손길로 창조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내어 놓는 진실한 기도를 원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 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 하셨다.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후기 청교도 설교자 중에 윌리엄 베이츠 (William Bater)는 의사이자 의명한 저술가시던 아버지 자녀로 어린 시절부터 부와 성공을 누리면서 자랐다. 그런 성장가운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가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영국 국교 기도서를 사용하라는 “예배 통일법”에 불복하며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기를 원하는 행함의 길을 선택하여 간다.

Thomas Merton은 “그리스도의 고난만 묵상하고 닥하우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

[109] Donald Whitney,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 (서울: 네비게이토, 1997), 93.

것이다,"[110] 라고 했다. 이 형태의 묵상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질 때 가장 잘 할 수 있다. 또한 Thomas Merton은 진정한 묵상은 "일종의 심리학적 요법이 아니라 신학적인 은총이다,"라고 했다. 그의 말에는 진정한 묵상의 중점이 있는 말을 했다. 심리적 치료가 아닌 기도묵상은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이다.

하지만 묵상의 핵심을 침묵으로 오해하기 쉽다지만 어원상 그 뜻이 아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원은 '하가'(hagah)인데 그 뜻은 '잠잠히 생각하다'가 아니라' 소리를 내다'라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는 도다" (시 1;2).

성경의 올바른 묵상은 눈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턱을 움직여 소리 내어 암송해야 하는 것이다. 즉 묵상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로 암시되는 것이다. 묵상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을 향해 온전한 집중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지용훈의 저서 '말씀으로 기도하라'에서는 "제가 뉴욕 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대인들은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입술을 움직이며 뭔가를 소리 내 중얼거립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걸 '하가'(시 1:2)한다고 말합니다. '하가' (hagah)란 히브리어로 소리를 낸다는 뜻인데 시편 1편 2절의 묵상이 그것입니다. 잠잠히 생각한다는 우리말 번역은 왜곡된 것이죠. 성경

---

[110] Lee Strobel 홍종락, *The Case for The Real JESUS*, (서울:두란노 출판사, 2009), 9.

을 인쇄된 글씨로만 보기만 해선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리 내 암송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입술과 혀가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111]

4) 끈질긴 영적 기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며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하며 끈질기게 기도하신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눅 22:44).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기 위한 끈질기게 하셨다.

윌터 윙크(Walter Wink)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성경적 기도는 뻔뻔스럽고, 굽힐 줄 모르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정중한 독백이라기보다는 야외에서 열리는 바자회에서 끈질기게 값은 깐 흥정과 흡사 하다.”[112]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세 시간 동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 연구를 잘 한다” 고 했다.[113]

---

[111] Timothy Keller, *PRAYER*, 최종훈 옮김, (서울:두란노서원, 2015), 161.

[112]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113] Lee Strobel 홍종락, *The Case for The Real JESUS*, (서울: 두란노 출판사, 2009), 9.

기도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기름 없이 차를 굴리려고 하는 행동과 같은 것이다. 위험한 현상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앞세워 일을 행하지 않는 교만으로도 볼 수 있다.

아도리담 저든슨(Adoniram Judson)은 "기도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루에 일곱 차례씩 물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이며 그 가운데 거룩한 일을 삶에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기도 없이는 결국 거룩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보아도 된다.

한 과부의 억울함으로 인해 기도에 대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 촉구하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니 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눅 18:7-8).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는 들으시고 땅에서도 풀어지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억울함이 열리는 것은 끈질기게 아뢰고 부르짖는 것이다.

5)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하시느니라"(고전 2:10) .

R. A. Torrey 는 그의 책 '기도의 영을 받는 법'에서 기도에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 미묘한 차이는 하나

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기도의 영을 받기를 사모하라고 한다.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며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 즉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 주시는 감동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를 쌓으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참된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성령님의 거대한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R. A. Torrey 는 더불어 올바른 기도법에서 '기도의 영을 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기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구할 때 기도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함과 동시에 기도응답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앞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말씀 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기도의 영인 성령께서 기도하는 법을 친히 가르쳐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114]

---

[114] 한홍, *거인들의 발자국, (Survey of Christian Leadership)*, 비전과 리더십, p. 405.

R. A. Torrey 말에 근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말에 따르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책에서는 기도하는 삶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행동할 때에야 이 땅에 도래할 부흥을 꿈꿀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부흥이 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고 부흥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영을 새롭게 받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힘쓰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할 수 있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기도는 인간적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 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情慾)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약 3:2-3) 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 할 수 없고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뢸 수 밖 에 없다. 개인 적인 것을 구하는 만족 함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하시는 분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R. A. Torrey 는 더 나아가 성령님이 돕는 기도는 이성과 수사력이 아닌 기도의 영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뜻한다고 했다. 참되고 진실 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온전하신 하나님

을 의지하며 온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소원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리고 행 할 수 있는 성령의 힘도 부여 된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눅 22:42).

Thomas Wright 는 "신약의 모든 기도"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 중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때라고 했다. 우리는 기도 할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정돈된 언어(이것은 안도감을 주겠지만 우리는 아직 기도에서 안도감을 느낄 준비가 안 되었기에)가 아닌 아직은 언어가 될 수 없는 말, 곧 탄식을 발하신다. 그것은 기도 너머의 기도, 인간의 시각이나 지식이 닿을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심연으로 뛰어드는 기도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란 없다. 바울이 그리는 (세상과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에서 우리는 초월적인 창조자가 자신의 백성들 마음에 거하는 영과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계심을 발견한다.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있다. 세상의 고

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 편히 쉴 수 없는 영이 세상의 창조자 앞에서 뒤척거릴 때, 우리에게는 오직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만 들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이 된다."[115]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두는 기도란,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이 보여 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지하는 것을 배워 가는 기도다. 기도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의 탐험이다. 우리가 그 탐험을 하는 이유는 그저 거기에 머물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닌 (그런 것도 따라오겠지만), 그의 치유하시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교회와 세상을 그분 앞으로 데려오기 위함이다.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는 자신감이 자라가는 기도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주님이 어떻게든 다른 신이나 군주들의 능력을 제칠 수 있기를 바라는 이들처럼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훨씬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에베소서 3:20)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6) 치유기도

[115] Thomas Wright,*New Testament Prayer for Everyone*, 백지윤,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IVP): 2015, 45.

20 세기의 탁월한 치유 자 칼 융(Carl Gustaf Jung)은 자신이 치유한 환자들의 대부분이 마음속에서 신(神)과 어긋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하였다.

Timothy Keller, 'PRAYER'에는 루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간구한 생생한 고백이 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온갖 질병과 가난, 수치와 고통, 역경을 기꺼이 견디며 주님의 거룩한 뜻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알게 해 주소서"[116] 그는 고통에 대한 치유 기도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없고 병든 자 에게 라야 쓸데 있나니" (눅 6:31).

병든 자에게 치유기도가 필요 했고 그 기도는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들린 자 들을 만나 치유하실 때 사용하셨다.

Chapter 2. 신학적 접근 THEOLOGICAL COMPONENT

1. 기독교 영성 신학 노선

영성 프로그램을 위해서 영성의 신학적 측면의 의미와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적용 실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의 노선과 어린이 영성 신학의 특징을 알아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근본주의 노선을 따라 진행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본다.

---

[116] Lee Strobel 홍종락, *The Case for The Real JESUS*, (서울: 두란노 출판사, 2009), 9.

종교를 하나님(God)이 주체(主體)가 아닌 인간의 종교적 감정 안에 하나님이 내재(內在) 해 있다는 자유주의에 대항 하는 근본주의노선 그리고 복음주의노선을 통한 기독교 영성의 노선별 주장을 펼쳐보고 어린이 신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기독교 영성의 자유주의 노선

(1)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macher, 1768-1834)

Friedrich Schleiemache의 기독론은 "예수님의 이상성(ideality Urbildichkeit)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 속에 재생 시킬 수 있는 그의 능력(Vorbildichkeit)이 있다는 뜻의 개념"[117] 으로 말한다. "그는 - 종교라는 것이 진정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있데 마련인 어떤 경험에 뿌리를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것과 동일하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는 신학을 시도하려고 했다." [118]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의 종교적 체험이나 감정을 우선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슐라이어마허는 종교적 감정 (경건)이 인간의 본성 중 이성이나 양심과 같은 다른 것으로 전환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적 감정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우월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슐라이어마허의 신앙적 본질을 감정(感情)으로 본다. 그는 감정(느낌)에 대해서 우주와의 일치 관계 혹은 감전 이입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가 보는 감정은 단순한 것이 아닌 최극한(最極限) 에 이르는 감정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슐라이어마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절대의존감정(絶對依

[117]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118] Lee Strobel 홍종락, *The Case for The Real JESUS*, (서울: 두란노 출판사, 2009), 9.

存感情)이기는 하나 교의(敎義)에 대한 합리적 동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자유주의자들의 아버지"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의 신학적 심각성에 대해 논하기도 한다.

슐라이어마허 의 첫째 신학적 방법의 심각성은 종교라는 것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필연적 경험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신학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모두를 묶으려는 시도였다. 둘째로는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과 실재 전체에 대한 의존 감정에 기초를 두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기초를 직관을 통한 하나의 대안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자 했다.

셋째로는 슐라이어마허는 합리주의와 (기독교의)정통 사이에 놓여져 있는 궁색스러운 문제는 하 나님에 대한 권위적 명제가 신학의 근거가 되기보다 인간의 경험, 특히 절대 의존 감정 이 그 근본이 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째로는 슐라이어마허 이전에는 신학이 이러하였다. 정통주의는 이 학문을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진리들에 대한 성찰로 보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신학이었다. 계몽주의적 신학(이신론, deism)은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 사고에 성찰이라고 보고,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했다.

슐라이어마허 (그리고 그 이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따르면, 정통주의의 접근 방법은 권위적 신학이 되게 해서 인간의 창의력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교의(敎義)와 하나님 자신을 혼동케 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슐라이어마허는 경건과 종교를 과학과 도덕과는 다른 것으로 구분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교의적이나 신학의 체계들과 구분됨을 보이고자 했다. 후자는 그 자체로 볼 때 진정한 종교와는 상이한 것으로 기껏해야 경건을 말로 표현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119]

슐라이어마허는 신학적 방법을 보더라도 종교를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으로 여기며 기독교의 전통 교리와 신앙 고백(Creeds)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가 자유주의 아버지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육신을 거부하며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한다. 종교는 그 자체에서 진실성이 있으며 우주 조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처럼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드린다. 교리를 중요시하는 정통주의 결별을 하고 신학보다 인간의 종교 체험과 감정을 더 우선시 했으며 종교에 대해 인간이 굴복하거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자유주의가 더 들어 나는 근본적인 정의가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으로서 목적론적 (윤리적) 형태의 종교에 속하며, 기독 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가 성취한 구속과 관련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여타 신앙들 (유대교, 이슬람교) 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주의자들의 기초적 방법이다.

(2) “알브레히트 리츨(Ritschl)

리츨(Ritschl)의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들을 보면 19 세기 말과 20 세기초를 거쳐서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알브레히트 리츨

---

[119] Hans Kung, 정지련역,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562.

(Albrecht Ritschl, 1822 -1889), 아돌프 하르낙 (Adolf Harnack), 월터라우셴부시 (Walter Rauschenbusch)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120]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계몽주의 이후에 피어난 문화 속에 기독교적 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현대적 신학 속에 넣으려고 재구성 하는 데 노력했다. 이들의 신학을 하나로 결집하여 만들어진 운동이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도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유주의 신학은 클로드 웰치(Claude Welch)가 말했듯이, “현대 주장들을 최대한 인정” 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주의 신학은 개개 기독교 사상가가 전통적 신조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과 교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이들 대부분은 진리의 공동체를 깊이 인정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전통적 신조를 무시하는 경향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셋째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실천적, 윤리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츨(Ritschl)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신학적 논의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둠으로써 교리를 도덕화 하려고 했다.

넷째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의 기초로 하여 성경이 절대적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이외의 다른 것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려고 했다. 이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영감에 대한 전통적인 교의가 ‘역사 비평적’ 연구에

[120] Hans Kung,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정지련역, xxxv.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경이 불변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보질 않는다는 것이다.[121]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본다면 무의식 중에 앞에서 말한 특징들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계몽주의에 의하여 시작되고 19 세기 초의 위대한 독일 사상가들에 의해 지속된 바, 초월성을 간과하고 신적 내재성 쪽으로 계속 흘러갔다는 것이다. 물론 리츨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하나님의 초월성을 해체하려는 자의적 의도는 없다. 하지만 리츨은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적, 윤리적 사랑을 강조한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연속성(discontinuity) 보다는 연속성(continuity)을 더 높여, 계몽주의의 사상과 일치되게 하는 경향을 가졌던 때문이다.

자유주의 운동의 주도자인 한 사람의 선포한 말 가운데는 극단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한 지지자들의 정신을 모두 담긴 말을 했다. "과거에 이의 없이 받아들였던 많은 것이 소멸되더라도, 개신교적 기독교를 현대인의 영적 필요에 부합시킴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힘을 가미하여 유포시킬 필요가 있음에 대하여 동의 할 것" 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으며 예수를 죄악 된 세상에 진주(進駐)한 그리스도로 보기보다는 모범적인 인간으로 보는 것으로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적 요소를 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독교 영성의 근본주의 노선

---

[121] Ibid., 77.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근본주의가 일어나서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굳건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 5 대 강령(신앙)은 근본주의 의 원초라고 볼 수 있다.

20 세기 초부터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파 사이에서 자유주의에 대립하여 일어난 보수파(保守派)의 신앙운동으로 처음에는 침례파에서 일어났으며 이어서 장로파의 J.G.메첸에 의해 근본주의 5 대 강령의 신조가 제창되었다. 신학내용으로 개신교 정통과 동일하고 천년 왕국설에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성경의 권위와 진화론의 타당성, 성서비평 기술 문제 등의 논쟁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를 근본주의는 성경에 두었으나 자유주의는 이성에 두고, 축자영감에 그리고 관심분야를 개인에 둔 근본주의에 비해 자유주의는 문학과 역사비평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개인보다는 사회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 근본주의는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지만 자유주의는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한다. 근본주의는 성서와 역사적 신앙을 믿으며 교리 대부분이 프로테스탄스 정통주의 교리와 거의 동일하다. 근본주의는 한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했던 신학을 부분적으로 또한 평신도의 관점에서 되살려낸 것이다. 딤후 3:16-17 와 벧후 1:20-21 을 근거로 5 대 신앙을 근본주의는 정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먼저 알 것은 경(經)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김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0,21).

첫째는 성경 원본의 무오성, 둘째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셋째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넷째는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의 실재성 이다.[122]

성경무오가 성서의 초자연적 기원을 강조하며, 나머지 교리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본주의자들은 5 개 조항을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로 받아들이지만,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기적, 인간의 전적인 타락, 영광스런 승천, 및 재림(再臨), 성령의 중생(重生)케 하심을 통한 새로운 출생,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 불경건한 자들의 부활과 최종적 심판과 영원한 죽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교제 등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진리들을 확언(確言) 하는 자 등의 교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른 성경적 진리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추가 한 것이다.

2. 어린이 신학과 어린이 영성

어린 시절 신앙과 영성이 순교적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그렇다”는 대답을 남기는 결론을 얻었다. 어린이 영성이 성장 과정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이 이어져 순교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선과 악에 분별없고 어지럽고

[122] Hans Kung, *The Church,* (서울: 한들 출판사, 2014), 정지련역, xxxv.

혼탁한 세대에 어린이들의 영성은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며 가족과 이웃에게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 15 -16) 어린이 영성 개발과 적용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나타낼 것이다.

1) 어린이 예수님

남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성령으로 잉태 되어질 아이가 있다고 하였고 그는 아들이라고 말씀 하였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 7:14) 예언 속에서 태어나셨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눅 3:31) "어린이 복음" 이라고도 불리는 누가 복음은 아기예수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다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123]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빼고는 전개 할 수 없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큰 소리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축복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눅 1:42)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본

---

[123] Donald S. Whitney,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 (출판사: 네비게이토, 1997), 23.

후였다 (눅 1:41, 44).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 된 것에 대한 증표인 것이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성경은 깊이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눅 2:40)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52) 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지혜롭게 성장 했다는 것이다. “지혜(Wisdom)는 세상일의 이치와 상황을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다. ”[124]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한다. 호크마란 능숙, 경험, 솜씨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얻는 사람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125] 앞서 엘리사벳을 통해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인 것을 위에서 알아보았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성장하여 지혜의 하나님이셨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지혜(헬 프로니모스)로 세상을 분별하여 사역 하셨다. 또한 세상의 지성이 넘은 지혜(헬:소피아)로 세상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압도 하셨다.”[126]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구두전승이나 문헌 수집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다만 누가복음 41-52 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대인의 속죄절에 예수의 부모가 어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 버렸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랍비들 가운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던 예수를 만난 이야기

[124] (사)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예수님의 품성 닮기, (범아 출판 주식회사, 2014), 48.

[125] Ibid., 49.

[126] Ibid., 49.

가 바로 그것이다."[127]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진술하지만 성숙하게 그러진 것 같다. 더욱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랍비들 과도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으로 어린이 영성의 중요성이 상기된다. 알버트 페인(Albert Bigelow Paine, 미상)도 '어린이 예수'에서 다음과 같이 어린 예수를 그린다.

"그는 티 없는 어린이였습니다.

여름 날, 너나 또 나처럼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동안에

문 밖에서 놀리기도 하였고,

마루에서 대팻밥을 모으기도 하던 그는 티 없는 어린이였습니다."[128]

예수님에 대해 신성만 강조하고 신비주의, 영지주의로 몰고 가는 시대에 예수님은 인성의 어린 기간도 있으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2) 예수님과 어린이 신학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 4:17)고 하셨다. G. Lohfink, 는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한다. 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반드시 만사를 예전과 달리 보아야 하고,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며 , 예전과는 철저히 다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129] 기존과 철저히 단절된 삶은 기존 세력과 다른 운명적 삶을 말할 수 있다.

---

[127] Ibid., 72.

[128] Ibid., 79.

[129] Ibid., 81.
G. Lohfink,Wie hat Jesus seine Gemeinde gewollt? HERDER 1982 를 참조하라. 로핑크에 따르면 은 병든 옛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하는데 있다. 이 백성은 세상에 대해 '대인공동체' (Kontrastgsellschaft)이다.

“가라사대 진실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 3-4).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 옴으로써 바로 ‘작은 자들’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왔다. 어린이를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의 구체적 모델을 어린이들로 제시하신 것이다. “예수의 ‘어린이 신학’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관점 아래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 어린이에 대한 태도는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린이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태도와 비교 함으로써 확연하게 드러나다. 예수의 사회에서 과연 어린이는 누구였는가? 어린이는 어떠한 존재로 여겨졌는가?”[130]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이스라엘에 맺어진 계약을 따라 매우 귀중한 존재로 여겨졌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 자녀교육의 목적은 부모가 하나님께로 받는 혈통적 자녀에게 말씀(613 개의 율법)을 가르쳐 전수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유대인‘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대대로 전수 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131] 구약시대의 어린이들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혈통적 유대인‘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고 그 ‘혈통적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유산 전수하는 것을 부모의 몫이라는 것이다. 신약 시대의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130] Ibid., 82.

[131] 현용수, 잃어 버린 지상명령 쉐마, (출판사: 쉐마 2, 2006), 87.

구원 받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기독교인들이다.[132] 어린이 신학적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는 유대인이고 신약에서는 기독교인 모두 포함에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3) 어린이 영성과 순교적 신학

순교란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고수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육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순교자들의 어릴 때 믿음으로 인한 영성이 순교 신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1) 어린이 영성과 Dietrich Bonhoeffe

Dietrich Bonhoeffer는 1906 년 2 월 4 일 당시에 정신의학과 신경학의 권위자인 칼루드비히 본회(KarlLudwing Bonhoeffer) 라는 대학 교수의 아들로 대학 교수의 아들로 브레슬라우(Breslau)에서 태어났다. 영성이 있는 가정이고 신학적 전통을 지닌 집안이었다.[133] 그의 친가쪽 사람들 중에는 자랑할 만한 신학자들을 배출했던 가문이다.[134] 귀족으로 부유하게 자랐으며 그의 삶은 순조로운 삶의 출발이며 앞으로 그에게 순교의 길을 걷는데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토대였다. 즉 어릴 적 기초적 영성이 없었다면 순교적 신앙의 기초선이 없는 것이며 어릴 적 영성 훈련은 순교적 신앙을 이어 나가도록 지도한다.

---

[132] Ibid., 87-88.

[133] 스탠리그렌츠, 로저올슨, *20th Century Theology*, 신재구, (한국기독학생회, 1997),232.

[134] Ibid., 233.

유년기 때부터 본 회퍼는 신학에 관심을 가졌다.[135] 값비싼 은혜를 아는 성경에 기반을 둔 확고한 신학자였으며 전쟁 후에 교회를 생각하는 목양의 가치를 소중히 아는 자였다. 미국에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그는 사형의 형틀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본 회퍼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내세우는 루터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정교육이 그를 순교의 길로 인고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2 살 때부터 신학 책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많은 신학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의 성장은 당시의 유럽의 신학계에 떠오른 별과 같았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1927 년), 튀빙겐 대학교 (1923 년–)에서 공부했으며 본 회퍼는 1927 년 학업을 마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스페인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를 섬겼다가 베를린으로 돌아와 베를린 대학에서 조직 신학 전임 간사로 있다가 가르치는 일에 더욱 쓰임 받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지내다가 독일로 돌아온다.

(2) Dietrich Bonhoeffe 의 두 가지 은혜 비교

Dietrich Bonhoeffer 는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cheap grace)는 교리에 의존하여 그것만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대조되는 값비싼 은혜(costly grace)는 구원이 값진 것임을 선언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대가로 요구했고, 동시에 우리에게 제자로 사는 삶, 즉 순종을 요구한다.

[135] Ibid., 235.

Dietrich Bonhoeffer 는 “싸구려 은혜를 온몸으로 거부한 자이며 삶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값비싼 은혜(costly grace)는 값이 정해진 은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표현하자면 이것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그 밭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값으로 측량 할 수 없는 것이 값비싼 은혜(costly grace)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천지에 모든 것을 값으로 따진다고 해도 값비싼 은혜(costly grace)의 값은 정할 수도 지불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행함으로 몸소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불순종의 근원의 대가로 순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한다. 값비싼 은혜를 어떤 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 값의 의미를 알 때 값 비싼 은혜를 알고 지켜 행하여 나갈 수 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이다. 너무도 값의 무게가 커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이다. 또 다시 말하고 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도 부족한 것이며 세상의 모든 보물로도 값이 비싸서 치를 수 없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 ,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은혜이다.

Dietrich Bonhoeffer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를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숙한 현대세계에서 우리는 연약해지시고 무력(無力)해지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인간의 내재적 종교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 받은 예수그리스도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연약함의 본을 보이시면서 발자취를 남기신 예수님의 연약함 속에 나타난 세상을 이기신 능력을 바라보며 성경의 하나님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곡 후 기도한 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도록 요구하셨다면 그것을 따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 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시며 그 인간은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고난에 참여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지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본 회퍼는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는 십자가에서만 존재되어 자신을 버림 받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신 초월적 하나님을 기대한다.

자비네 드람은 그의 저서 ‘*본 회퍼를 만나다*’에서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 본 회퍼 말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쫓겨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리고 바로 때문에 그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본 회퍼의 거룩한 세속(holy worldliness)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그 분은 그리스도를 특정한 종교적 영역에 묶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제자화 시키는 것이다. 기독교적 세속을 부르짖는 이유는 기독론적인 공식을 제자화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세상에서 빠져 나와 경건한 영지(領地)를 찾아 살아 갈 것을 구상한다. 그것이 개인의 내면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며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본 회퍼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금욕주의를 키워 가는 것도 세상과 고립된 상태에서 독립된 단체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회퍼의 거룩한 세속이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보호막 속에 숨어 기독교적 영지나 무미건조한 종교적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음이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결국 본 회퍼는 세상의 세속적 흐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의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세속으로 본다.

(3) Dietrich Bonhoeffer 순교 신학

본 회퍼는 믿음으로 죽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는 히틀러 암살 공모에 가담했다가 1945 년에 플로센뷔르크 강제수용소에서 처형되었다.

그는 악에게 맞서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단호한 신념으로 자신의 소신을 따라 목숨을 내 놓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순교했다.

죽음을 앞 둔 본 회퍼의 모습을 지켜본 수용서 담당의사는 그에 대해 “의사로서 지난 50여 년 간 일 해 왔지만 이 사람처럼 (본 회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를 본적이 없었다” 고 말할 정도였다.[136]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소명으로 마지막을 부르셨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행했다. 1945 년 4 월 9 일 디트리히가 본회퍼의 1945 년 4 월 9 일 Dietrich Bonhoeffe 의 믿음을 위한 목숨의 희생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했으며 믿음의 신학적 유산을 남기게 해주었다.

Chapter 3 교육학적 접근 EDUCATIONAL COMPONENT

1. 기독교 교육과 인본주의 교육 차이

1)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에 답을 구하길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 정도로 알고 지나간다. 즉 인간을 형성하는 작용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을 하는 지대하고 장기적 노력으로 비추어 진다. 교육자가 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교육은 인간을

[136] Ibid., 235.

변화 시키는 계획적 단계이며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r. Gerry Benn은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기독교 교육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에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이라고 했다.[137]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귀정 사실이다.

Karen B. Tai 는 네 가지 기독교 정의에 대해에 말했다.

첫째는 기독교 교육을 신앙교육으로 보는 것이다. 가르침, 교육, 신앙전수, 신앙보전, 교리 주입, 교리, 신앙형성으로 이해 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전수하고자 하는 교회의 신중하고도 의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정의로는 사회화 과정으로 본다. Jack Seymour 와 Donald Miller 이를 공동체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어떤 이들은 “ 신앙 문화 화 공동체” 모형이라고도 부른다. 기독교 교육의 이러한 정의 방식은 신앙과 습관 그리고 행동을 습득하는 방법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믿는 가에 대해 주의를 불러 일으키는 현상을 준다. 이러한 이해로 말미암아 예배 참석에 확고한 가치를 두게 된다. 즉 찬송과 기도 대화를 통해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

[137] 총회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 (총회 신학교 출판부), 4.

셋째 정의로는 인성 발달적 접근 방법으로 성장, 신앙 발달, 영성 형성, 도덕성 발달, 그리고 인격 형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의는 해방의 과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해방으로서의 교육은 교회, 사람 그리고 “전환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38] Karen B. Tai의 기독교 정의는 신앙교육과 사회화 인성 발달과 해방화에 대한 것으로 기독교 교육의 원초적 사상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Aleshire는 광의적 시각으로 통합 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와 현재의 기독교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들만의 신앙을 행위로 표출하기 위한 기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는 진리에 대해 깨어있는 삶의 살기 위해 Christian story를 숙고하게 한다. 또한 언약 공동체로서의 함께 사는데 필요로 하는 감수성을 훈련해 나간다 [139]는 것으로 Aleshire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토대로 배우고 말씀의 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이란 말씀을 전달하여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지식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리고 본다.

Adelaide Case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하기를 “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인간들의 공동 생활에 영위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풍부한 기독교적 사상과 생활을 해야 한다. 어린이와 젊은 이와 장년들에게 유용하게 적응시키는 데 있다” 고

---

[138] Karen B. Tai, BASICS OF CHRISTIAN EDUCATION, (출판사: 크리스챤, 2009), 21-23.

[139] Ibid., 25.

말했다.[140] 이는 기독교 교육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실시하여 실현 되어 이루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같이 이루어 나가도록 가르치며 교육 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본다. 성경의 바른 지식과 믿음과 행위를 수반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독교 교육이다.

2) 인본주의 교육

교육의 의미는 미 성숙자를 '가르쳐 기른다'는 뜻으로 쓰여 지며 아동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서질을 외부의 어떠한 고도, 육성시키는 작용이거나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위한 조성작용으로 보면 된다. "페다고지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피동적 교육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안드라고지는 능동적인 교육으로 '인간 성숙 교육'을 뜻하는 것 [141] 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궁극적인 의미는 교육자의 가르침과 시범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습득과 모방을 해 나가므로 본래 내재되어 있는 성품들이 바른 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도덕적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교육이란 교육의 받을 대상자인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표출 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 더 나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

[140] 총회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 (총회 신학교 출판부), 4.

[141] 김 운삼, *교육학 개론*, (출판사: 창지사, 2003), 16.

인본 주의 교육은 학습자의 독립적고 독창적인 능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에 목적은 아동들이 자기 지시성을 증가 시켜서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이다.

Rogers는 "우리는 지식의 가치보다 독립성의 가치를 더 소중히 해야 한다. 우리가 독립에 가치를 둘 때만이 자기 지시적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 또한 독창성을 키우기 위한 학습의 조건이 조성된다," 고 했다. [142]

R. S. Peters는 "교육은 바람직한 정신 상태를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현 하는 일" 누구를 교육한다는 것은 비단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것만 아니라,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방법이 도덕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뜻도 그 속에 들어 있다. "지력과 인경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가치 있다는 것을 개발한다는 말의 의미이다"라고 교육에 대해 첫째로 정의 했다.둘째 유형의 정의로는 인간행동의 변화에 강조를 두는 정의들이며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를 추구하며 이 정의는 교육의 의도성과 계획성이 강하게 들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유형의 교육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 시키도록 돕는 일이며 최대한의 자기 실현을 돕는 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143]

또한 교육이란 정의에 대해 한 마디로 말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러 학자의 견해와 공통점을 찾아 제시한 입장을 보도록 한다.

---

[142] 신명희외, *교육 심리학의 이해*, (출판사: 학지사, 2003), 247.

[143] 김종서외, *최신 교육학 개론*, (출판사: 교육 과학사, 2001), 19.

(1) 인격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입장

사람들의 이상을 인격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도야하는 활동을 위주로 인격주의와 이상주의, 규범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자연적이고 동물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완성 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Kant는 교육이라는 것을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 하는 작용이며, 현실적 존재를 이상적 당위로 변화하는 일" 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교육되어져야 하는 유일한 피조물로, 교육이란 인간을 동물성에서 인간성으로 변화 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이다.[144]

(2) 자연성에 중심을 주는 교육 입장

여기서의 교육이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잠재적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되며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며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의 정의로 본다. 결국 인간에 대한 사회적 전통이나 외부적이며 인위적인 영향을 배척하고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연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바탕을 둔 성선설 인간관의 입장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인간의 자발적이고 자전을 돕고 조성하는 작용으로 보는 견해라고 말 할 수 있다.

Rousseau는 교육을 '인간의 자연적 발전을 위한 조성 활동'으로 보았고 교육 소설' 에밀'에서는 '만물이 조물주의 손에서 태어 날 때는 모두 선하나

---

[144] 김 운삼, 교육학 개론, (출판사: 창지사, 2003), 17.

인간의 손에서 타락하여 악으로 변한다'는 성선설에 입각한 자연주의 교육을 주장하는 것이다.[145]

(3) 종교성에 중심을 두는 교육 입장

기독교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개인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고 행위를 수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도 한다. 믿는 신의 모습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본다

Comenius는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써 그의 교육목적은 '신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지상에 올바른 생활을 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146] 그는 인간의 생활을 모태 중에서 생활, 지상의 생활, 천국의 생활을 위해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에서 신으로부터 영원한 성복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147]

이상으로 기독교 교육과 인본주의 교육의 차이, 의미를 알아 보았다. 필자의 논문은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접목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일반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인간형성이 활동이란 말고 요약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피교육자의 성장 발달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145] Ibid., 18.

[146] 유영희 외, *유아 교육 개론*, (도서 출판: 오래, 2001), 44.

[147] 김 운삼, 교육학 개론, (출판사: 창지사, 2003), 20.

지도하는 활동이다."[148] 또한 성숙자와 비성숙자간의 바람직한 성립 조성으로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두면서 양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인간 교육 목표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으로 기반을 세워 좋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으로 형성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독교 유아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시 보아도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것"[149]이다.

2. 중세 사회, 르네상스 사회,종교 개혁기의 유아 교육 사상

1) 중세 유아교육

중세 사회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 기독교와 민족주의 적 본건 국가에 의해 새롭게 확립되었다. 그들 문화 중에는 그리스, 로마문화, 기독교 문화, 게르만 문화가 융합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지배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로마교회에 속하여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국가의 세력은 쇠퇴하여 가고 교회세력이 확장 되어가는 때이다. 중세 교회의 교과 내용을 보면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 왔지만 사상적 기반은 기독교적 신념을 구축으로 이루어졌다. 중세 교육의 특징으로는 기독교 교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나갔으며 숭고한 신앙인으로 도덕심을 함양 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중세교육에 있어 유아들은 대표적으로 수도원

---

[148] Ibid., 20.

[149] 총회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 (총회 신학교 출판부), 14.

생활을 둘 수 있다. 유아교육 기관이 따로 설치 된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부속된 교육장소이며 현재의 교회 부설 선교 어린이 집 같은 교육 장소라고 보면 된다. 이 곳에서 교육은 이 세상에 대한 준비가 아닌 재세에 대한 준비와 육체의 욕망을 배제하며 현실을 부인하고 종교적 교육에 힘쓰는 때이다.

이때는 기사도 교육 제도가 있는데 기사도교육의 십계명이다. 이 기사도 교육 내용의 1 단계에는 출생에서 7 세까지의 가정을 이루며 교육한다. 중세 유아 교육의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는 기사도 십계명을 이러하다.

(1) 기도하기

(2) 죄악을 피하기

(3) 교회를 지키기

(4)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기

(5) 여행하기

(6) 충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기

(7) 귀부인과 숙녀를 위해 싸우기

(8)정의를 지키기

(9) 하나님을 사랑하기

(10)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의 말을 듣기 [150] 등이다.

이것을 기초로 유아들에게 순종의 미덕, 쾌활한 성격과 경건한 신앙심과 예의를 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어 교육 된다.

---

[150] 유영희 외, *유아 교육 개론*, (도서 출판: 오래, 2001), 37.

중세 봉건 사회는 14 세기경에 들어 서면서 점점 교회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2) 르네상스 유아교육

중세 봉건 사회가 쇠퇴해 가면서 중세 의 종교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간 생활에 추구하는 인본주의로 변화되어 간다.인간이 중심이 되어가는 인간적 세계관의 중심이 되고 가치관이 인간 중심으로 르네상스 인간관은 확립된다. 종교적 가치관이 아닌 인본주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 교육은 편협한 주지주의, 전문적인 직업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념을 배격하였고 인간성 함양을 위한 덕과 시민 생활의 덕을 갖춘 인간을 존중하는 교육을 중시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극히 소수의 유능인에 의해 수용되었었을 뿐이며 대중들에게 확산되는 것에는 미흡했다. 또한 고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고 소수 신흥귀족을 위한 인문학적인 중심교육에 치우쳐서 자유주의 적 사고에 발전에 대해 보환 되지 않아서 보편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151]

Erasmus 는 유럽 르네상스기의 대표적 교육사상가이면서 기독교 인문주의 자이다. 그는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Erasmus 는 아동 교육의 목적은 경건한 마음을 기르며, 도덕정신을 함양해 나가며, 선한 생활을 해나가는데 두었다. Erasmus 의 교육 방법은 *The Liberal Education of Children*(1529)이란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인용해 보도록 한다.

[151] Ibid., 38.

(1) 체벌은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에 부적절하며, 회초리 없는 자유 교육이 참된 교육이다.

(2) 아동이 성격을 면밀히 조사 영구하여 개별적으로 학습을 지도해야 한다.

(3) 아동의 정신발달과 흥미에 따라 가르치는 교재의 분량을 정한다.

(4) 운동, 놀이, 체조가 중요하다.[152]

하지만 Erasmus 의 교육 방법 중 회초리 없는 교육은 성경적 측면에서 성서적 가르침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Proverbs 13:24).

3) 종교 개혁기 유아교육

신앙회복운동이 Luther 의 종교 개혁으로 시작되면서 가톨릭의 우위가 부정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신앙을 우선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종교 개혁의 핵심은 신앙만으로 구원에 이르며 신앙과 성서를 통해서만 복음을 얻을 수 있는 진면모를 주장하며 성서중심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종교 운동이면서 교육운동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관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교육이 교회가 아닌 국가에 교육에 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수단으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이루어 나감으로 종교개혁은 성공으로 이어졌으며 성서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152] Ibid., 39.

Luther 는 십자가 신학에 대해 강의하는 신학교수로써 교육 학자나 교사는 아니었어도 종교개혁 시대에 새로운 교육 관으로 학교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하여 의무 교육을 최초로 주장하며 교육 개선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그의 교육 목적은 각 개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달성 시켜 나가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면 아동들을 기독교인 신사 숙녀로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 Luther 는 아동을 자연스럽게 성장하며 과정에 있어서 아동 능력에 알맞은 교재의 배열을 중시했다. 교육자들의 매우 온화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수 방법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유쾌하며 즐거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벌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영성 교육을 강조하며 도서관 설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Luther는 보통 교육의 중요성을 중시했으며 국가 중심의 공교육 제도를 확립하였고 무엇보다 교수 방법을 개선해가며 여성교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의 위상을 높이므로 근대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153]

시대적 변화로 유아의 교육이 변화해 가지만 중세시대나 르네상스, 무엇보다 종교 개혁 때의 교육들에서 수도원 교육들을 통한 신앙적 교육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미래적 교육인 것을 우리는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Chapter 4. 심리학적 접근 PSYCHOLOGICAL COMPONENT

[153] Ibid., 40-41.

1. 어린이의 심리적 장애

1) 애착 장애 특성과 원인

(1) 애착 장애 특성

애착(attachment)이라는 용어는 Bowlby(1969, 1973,1980)가 아기와 엄마와 유대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Bowlby 는" 애착(attachment)을 특정한 두 사람간에 형성되는 애정적인 유대관계로 정의하고, 특정 인물에게 애착을 느낀 영아는 그 인물을 세상을 탐색하는 안전기기 (secure base)로서 사용한다"고 했다.[154]

Ainsworty는 " 애착 행동을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 접근하려 하거나 접촉하게 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신호 행동(signaling behavior), 지향 행동 (orienting behavior), 적극적인 신체접촉 행동 (active physical contact behavior)으로 분류 할 수 있다"[155]고 밝혔다.

건강한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가 일관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따뜻하며 온정적인 유대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애착 문제는 옆에 누군가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증상에서 시작된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면 반응성 애착 장애로 진단되는 어린이들도 있다. 이런 어린이는 가벼운 증상부터 심각한 증상에 이르기 까지 애착문제에 모든 것을 건다.

Ainsworty 도 안정적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구분은 Eriksondm lrqhswjrdls 신뢰감 대 불신감의 구별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154] 김경중 외 , *아동 발달 심리* , (출판사: 학지사, 2012) .,277

[155] Ibid.,278

도한 생의 초기에 형성하는 신뢰감은 그의 이후에 맺게 되는 모든 사회 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 표 > 낯선 상황에서 관찰된 유아의 애착의 행동 특성.[156]

애착 유형	행동 특성
안정된 애착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금방 장난감에 애착되어 잘 논다.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를 반갑게 맞이하고, 유아가 당황해 하더라도 금방 달랠 수 있다. 낯선 사람보다는 분명히 엄마를 더 좋아한다.
불안전-회피 경향의 애착	방 안을 탐색하며 잘 놀지 못한다.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 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유아는 엄마가 돌아오면 접촉하기를 피한다. 엄마가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면 거부하지는 않으나, 안겨 있어도 달라붙지 않는다. 낯선 사람이나 엄마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불안전-저항 경향의 애착	엄마와의 분리 이전에 엄마에게 가까이 있으려 하고, 엄마와 분리되어 있을 때 매우 당황해 한다. 그러나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불안전-회피 유형과는 달리 엄마 곁에 머무르기는 하지만 엄마에게 화를 내고 저항하며 쉽게 달래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접촉과

[156] Ibid., 285.

불안전-혼돈 경향의 애착	위로 둘 다를 거부한다. 회피와 저항의 양극화된 행동 특성을 보인다. 즉,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에게 다가가 안기기도 했다가 화난 듯이 응시하기도 한다.

(2) 원인

a. 예상치 못하는 주 양육자의 상실 (예: 사망,구속, 유기)

b.아이가 필요로 할 때 일관되게 함께 하지 못할 경우 발생 한다.(양육자가 우울하거나 정신적인 질병을 자진 경우)

c. 강압적인 도는 분노를 많이 표현하는 양육 (양육자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이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할 때)

d. 학대하는 또는 방임하는 양육을 할 때

e.양육자의 잦은 교체 (위탁 양육이나 친척들이 돌아가며 양육하는 경우)[157]

(3) 유아기관에서 협력 장애 전략

a. 부모의 의사소통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와 부모와 한 팀을 이루어 협력할 때 가장 많을 효과를 극대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애착분제는 유아에게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교사는 장기적으로 부모와 정기적 소통을 해 나가야 한다.[158]

---

[157] Jenna Bilmes & Tara Welker, *유아기 심리적 장애*, (출판사: 창지사, 2012), 82.

[158] Ibid., 83.

b.유아가 잘 따르는 사람을 정해서 유아가 자연스럽게 중재자가 되는 것이 좋다. 유아가 잘 따르는 사람은 대부분의 중재와 애착 활동을 제공하고 위안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c.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일과 만들어 운영 해야 한다. 유아가 분리되거나 교사의 부재가 예상 될 때 미리 유아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유아가 휴일과 방학도 미리 알게 해야 하고 잠시 교실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 주어야 한다.[159]

d. 애착에 어려움을 가진 유아는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하고 공격적이며 심한 짜증을 내고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를 의도적으로 화나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고 따뜻하고 확고하게 해야 한다.[160]

2) 어린이 정신적 장애 특성과 원인

(1) 정신적 장애 특징과 정신 병리 분류

어린이들이 감기, 설사, 폐렴, 백혈병등 신체적인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듯이 정서적 혹 행동상의 정신 건강의 문제를 보일 때가 있다. 어린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증진에 신경을 써야 한다.[161] 최근에는

---

[159] Ibid., 84.

[160] Ibid., 85.

[161] 박량규 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105.

정신 지체아의 사고와 정보처리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 지체아 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들이 있는데 주의해 보아야 한다. 첫째, 생각과 반응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둘째, 정상아에 비해 새로운 정보와 방법을 배우는데 더 완벽하고 반복적인 지시를 요하는 것이다. 셋째, 한 가지 지식을 일반화 하거나 새로운 문제 해결에 이용 할 수 없고, 유사성과 공통성을 발견하거나, 알고 있는 지식의 목록을 들추어 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162] 즉 이들 지체아는 같은 나이에 비해 학습방법이나 속도가 느리며 비능률적이며 어려운 과제 일수록 대처해 나가는 것에 난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2) 정신 지체의 원인

정신 지체아의 낮은 지능의 원인으로는 신체적으로 다운 증후군이자 허약 체질증후군(fragile –X syndrome)과 같은 염색체 이상은 경도 또는 중도의 지체를 동반한다. 다운 증후군은 21 번째의 염색체 쌍이 두 개가 아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운 증후군은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63] 또한 신체적인 원인의 하나는 뇌의 손상이다.

출산 전 거대세포증(cytomegalovirus)이거나 알코올 중독인 경우 뇌 손상이 우려 된다. 분만 도중이나 분만 후의 사고 때문으로도 뇌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164] 신체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지체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은

162 김경중 외, *아 동 발달 심리*, (출판사: 학지사, 2012), 410.

163 김경중 외, *아 동 발달 심리*, (출판사: 학지사, 2012), 411.

164 Ibid.,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능 지수가 낮은 부모들이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가정에서 유전적이며 환경의 영향으로 정서적이며 인지적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3) 유아기관에서 협력 장애 전략

유아교육 기관에서 는 유아의 특성을 보면서 첫째로 개별화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아의 강점을 확인하여 그 것을 토대로 삼는다. 유아를 '문제'아로만 단정하지 말고 유아의 진단명에 과도한 관심을 두기 보다는 발달적, 행동적 목표에 초점을 노력을 지향해 나가며 유아의 정신건강 증진에 더 기여 하도록 한다. 둘째로는 정확한 정신 건강을 평가 하기 위해 유아가 속한 문화를 고려하는 것처럼 중재 전략도 개별적 유아와 그 가족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문화의 다양함에 민감해야 하는데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며 대안적인 의사 소통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유아와 확고한 유대 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아를 돕기 위해 유아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165]

2.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

1) 복음서에 나타난 심리적 치유사역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가 있으신데 그것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가 예수님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165 Ibid., 44.

보여주고 있다. 이 세 가지 구원사업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치유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예수님의 치유활동 당시 유대사회가 지니고 있던 치유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었다. 신명기에 나타난 견해에 따르면,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가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질병은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이다 (신 28 장). 그래서 많은 경우에 환자나 불구자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병자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달랐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치유기사를 가장 많은 지면으로 할애했으며 4 복음서 전체의 내용 기사 중 치유기사와 이야기가 25%나 기록되어 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행위를 몇 가지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복음서에서 치유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난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마귀를 쫓아내는 치유행위를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소개했고, 마태복음서 기자와 누가복음서 기자 역시 치유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치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핵심적 사건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

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 11:4~5).

둘째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치유행위는 구원사업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눅 13:22).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눅 13:32).

2) 그리스도의 상식적 치유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기존의 우주법칙을 넘어서 치유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가지고 치유역사를 행하셨다. 인간의 눈으로는 기적처럼 보이는 치유행위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는 자연스런 역사일 뿐이다.

3) 그리스도의 치유 동기

그리스도의 치유 동기는 인간의 아픔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람의 영, 정신, 육체까지 완전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병든 인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의 사랑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있기를 원하셨다.

4) 그리스도의 죄와 믿음의 관계

그리스도는 죄와 믿음과 치유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아셨다.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이 많아 그 분이 계신 지붕

을 뚫고 병자가 누워 있는 들 것을 달아내려 보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그리스도는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치유의 말씀을 해주셨다.“ 애야 너의 죄는 용서 받았다.” (막 2:3~5)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즉 사람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이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치유를 받을 때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치유 속에서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려 주신 것이다.

사람마다 마음의 응어리 한 덩어리 정도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다. 온전함이란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조차 마음에 한을 두고 계시지 않고 여전히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분의 온전함은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치유 기도는 온전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치유하시는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治癒)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使役)에 나타난 세 가지 즉 가르치시는 일과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병든 사람과 허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나온다. 이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다시금 사람들을 치유기도 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온갖 질병과 귀신들인 사람들, 간질병환자들, 중풍병자들을 예수님은 수없이 고쳐주신 치유 사역(마 4:25)을 우리는 알 수 있다.

CHAPTER 5. 사회학적 접근 SOCIOLOGICAL COMPONENT

어린이 영성에 저해되는 사회적 요소를 보며 회복의 방법을 이론적으로 논하도록 한다.

1. 어린이 영성에 저해되는 사회적 요소

1) 부모의 신경성 폭력과 우울증

피로사회는 부모에게 신경성폭력을 조장하는데 쓰이는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발생된다. 21 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등이 21 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경색성 질병이며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166] 이러한 부모의 신경성 폭력 영향력은 어린이들에게 지대한 불안감을 조성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친 심신에서 폭력을 행사 할 힘이 있는 것이 피로 사회의 단면이며 이것은 바로 가정 속 어린이 들에게 미치는 요소가 된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피로는 우울증으로 많이 나타나면서 어린이들에게 사회를 부정적인 면으로 보게 한다.

또한 피로사회는 부모들에게 우울 사회를 유발하기도 한다. 우울 사회에 대해 소진"Burnout"은 자주 우울증으로 귀결되거니와 이때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오히려 과도한 긴장과 과부하로 파괴적 특성까지 나타내는

[166] 한병철, MUDIG KEITS GESELL SCHAFT , 문학과 지성사 (2012),P 11-12

과잉 자기 관계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탈진과 우울 상태에 빠진 성과주체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의해 소모되어버리는 셈이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의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탈진해버린다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알랭 에랭베르는 멜랑콜리와 우울증 사이에 단지 양적인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가정한다. 뭔가 엘리트적 분위기를 풍기는 멜랑콜 리가 대중화되어 우울증이 되었다는 것이다. "멜랑콜 리가 비범한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었다면 우울증은 비범한 것이 대중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울증은 "멜랑콜리에 평등을 더한 것이며, 민주적 인간의 전형적 질병이다." 그러나 에랭베르는 다른 한편으로 우울증을 니체가 예고했다는 주권적 인간의 도래가 대규모로 실현된 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67] 여러 사상가의 표현을 보면서 우울사회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우울증의 궁극적 내면을 드려다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우울증은 경쟁적 사회에서 오는 피로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축출되는 유전자 형성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 성과 사회를 위해 우울증을 불러드리며 가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는 지금 쉼이 필요함 삶의 시대적 상황을 직시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사회로 탈바꿈 할 수 있고 가정에서의 영성 회복이 중요성이라고 본다.

2) 어린이들의 사회적 피로와 변화

(1) 어린이들의 사회적 피로

[167] Ibid., 44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 기능 이론가인 뒤르켐(E.Durkheim) 교육이 결정된다고 했다. 그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하며 그러므로 교육은 사회적인 것이며 사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인 것이다.[168] 사회는 경쟁 사회이고 어린이들도 이 대열 속에서 피로사회에 들어 간다.

우리 사회에 지쳐가는 사람들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도 피로사회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어린이 집, 유치원, 운동, 영어 교육, 미술 지도, 언어 교육 수없이 사회 경쟁에 발 맞추어 나가느라 지쳐있다. 우린 어린이들은 사회 문화 속에 지탱하며 살아가느라 영적으로 매우 빈핍해 있다. 개인의 능력 개발보다 사회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다양한 우월성을 지니기 위한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개인의 능력 계발을 중시하며 그 토대에서 어린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인간적인 한계성을 이라고 한다. 이런 '개인적인 교육사상은 근대 이래로 발전하기 시작한 개인 중심의 인간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런 사상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 지적, 도덕적으로 완전한 개인 완성'에 두고, 개인 완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 발전을 이룩한다는 기본 이념'을 지니고 있다.[169] 이것은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교육 시스템으로 개인의 업적과 각 성적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이 각 개인의 행복을 담보한다는 교육 논리를 성립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교육이 개인의 삶의 바탕이며 자기의 삶이 가꾸어지는 상호작용적이고 대화적인 생

[168] 김천기, *교육의 사회적 이해*, 학지사(2002).p35

[169] Ibid.,113

활세계를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때, 인간의 상호관계성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 상실되는 것이다.' [170] 어린이들은 사회교육으로 개인의 인간 형성 교육에 낙후되어가는 것으로 개인 능력 계발로 사회 전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피로 사회에서 인간의 탈 자아중심적 주체성이 인간의 본 바탕이 되는 교육 인간학을 형성 할 수 있다.

여기서 '발아우프는 교육의 목적인 이상적인 인간성의 해명을 무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도한다. 이 개념은 어떤 한 개인의 고유하고 순수한 자기만의 세계에 기인 함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본래적인 상호관계성에서 비로소 발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171] 결국 이러한 상호 관계성으로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사는 인간성을 양육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발아우프는 교육 인간학은 자기 자신에게만 연관을 갖는 개인주의 적 입장을 중지하고 인간이 세계 내의 사물이나. 더불어 사는 인간과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의 기본적 속성, 즉 인간의 탈자아중심적 주체성이 인간의 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172]는 것이다. 긍정적인 이론이지만 개인 고유의 특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린이 사회교육에 대한 지대한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린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심신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170] Ibid. 113

[171] Ibid., 113

[172] Ibid.,113

요즘은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면서 7~8 개 프로그램을 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도 있다. 태교라며 영어 테이프를 듣는 어머니부터 돌 되는 영아들에게 영어 듣기교육을 시키는 부모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린이들에게 진정으로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린이로 하여금 피로 사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학자 Neil(1883~1973)을 소개해 보도고 한다. (김은 산, 1980)

Neil 은 자유관은 행복의 감정은 사람이 자유를 느낄 때에만 가능하며 행복과 자유는 불가분의 것이라는 것이다. 자유란 "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173] 즉 싫어하는 어린이에게 억지로 강요하여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어린이의 꿈을 접는 큰 요소가 되며 장성 할 때까지 피로를 가지고 가는 사회적 어린이 가 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잦은 지리적 이동,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 파괴, 아동 학대의 방임, 보다 더 빠른 많은 성취와 상대부모 아이와의 경쟁을 위해 또한 부모의 성취도를 위해 어린이들을 재촉하는 부모들의 성취압력 등은 아동들을 위기 압력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압박과 재촉은 어린이들은 심신이 더욱 지쳐 가며 병들어 가고 있다.

2. 어린이 회복의 사회적 요소

---

[173]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19

사회와 직장 생활로 가정을 지켜 나가기 힘든 것이 현 사회의 부모님들의 어린이 영성 회복을 위하여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해 나가야 할 것과 사회 변화에 따른 아동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자 한다.

1) 부모의 사회적 변화와 회복

최근 부모들이 맞벌이로 바쁜 가운데 어린이들을 키우며 양육하는데 '부부 갈등이 아동기 애착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Johnson 과 Talitman,1997) 으로 이것은 어린이 돌봄에 있어서 정서 중심적 부부치료 (emotionally focused marital therapy)가 필요한 부분이 된다. [174] 자녀 교육에 갈등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부부는 사회적 가족 치료를 받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회복의 기회를 삼는 것도 애착과정에 도움을 주며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된다.

정태원은 ' *부모의 생각이 아이의 운명을 만든다*' 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부모는 끝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며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과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부모 그리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자라 수 있는 토양 이라고 했다.[175] 기도하는 부모는 사회 생활에서도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도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 어린이 사회적 변화와 회복

---

[174]마크 A. *기독교 가족 치료.* (사) 기독교문서 선교회(2010).425

[175] 정태원은 . *부모의 생각이 아이의 운명을 만든다.* 세손 출판사 (2005).52

21 세기의 사회는 자유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방종의 사회가 되기도 하며 자유를 박탈하여 억압의 사회이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기통제(self –control)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참다운 자유 속에서 어린이들은 자라야 한다. 경쟁은 어린이들에게 피로를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요소 될 수 있으며 '자유는 자기의 자유 의지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자율 적인 어린이가 된다는 것'이다.[176] Neil(1883~1973)은 어린이들을 외적인 억압이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두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생활하는가를 관찰함으로 어린이들의 본성과 본연의 모습을 알아낸 후 서머일 학교에다 결과를 내었다.

1) 어린이의 본성은 선하고 악하지 않다. 선과 악을 현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기준에 비춘 선악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본성은 신이 주신 것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 생각은 Neil 의 모든 사상의 기초이며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2) 어린이는 본래 현명하고 현실적이다. 어른들의 간섭이 없을 때 어린이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에까지 발전하는 존재라고 했다.

3) 어린이는 본래 성실성을 자지고 태어난 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어린이를 존 더 신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거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거나 어른에게

[176]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20

마음에 없는 감사나 존경을 표시하도록 강요함으로 불성실하게 되도록 교육되어 간다는 것이다.

4) 어린이들에게는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사랑하다는 것은 감상적인 의미나 소유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 어린이 평이 되어 주는 것’을 의미 한다.

5)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어린이는 공경적이지 않고 매우 관대 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어린이는 매우 공상적이며 노는 것을 즐긴 다는 것이다.

6) 어린이들은 창조적이며 일하기를 싫어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7) 어린이들은 흥미로운 것을 직접 느끼고 정상적인 어린이도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소유욕에 의해서 말이다. 또한 거짓말도 한다.

8) 어린이들은 자유행위도 하고 사회와 부모가 어린이들에게 자위행위에 대해 책하지 않으면 쾌활하고 행복한 열의 있는 어린이가 된다는 것이다.

9) 어린이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어린이들은 흥미와 관심에 차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Neil은 어린아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부모들의 적절한 제재를 통해 바람직한 자유관을 심어 준다는 것이다.[177] 어린이의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사랑과 이해를 통해 어린이들을 사회 속에 피로에 지친 가운데 회복되어 가는 그리고 타인을 회복하는 영향력 있는 어린이가 되어 사회 속에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

[177] 박량규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22-24

Ⅴ. 시행 전략 (Strategy statement)

1. 의식적 변화를 위한 계획 (내면적 변화)

본 연구자는 1988 년 개웅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어려움과 성장 과정을 겪으며 누구보다도 공동 목회자로 교회에 대해 변화되어가는 체질에 잘 적응한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내면적면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본문을 연구하는데 있어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였을 때 NYTS (New York Theological)에서 요구되는 접근 방법에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었다. 교회가 어린이 사역이 부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함께 비전을 가지고 공감하며 동참하고자 하는 어린이 사역 방법을 도모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도 어른들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한다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공감대 의식 변화를 시작되어야 했다. 먼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말씀처럼 교회에 모여 어린이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1) 세미나를 통한 의식 변화

어린이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을왕리에서 사이트 팀과 자녀들이 모여 기도하며 의식 변화를 위해 준비했다.

교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성 교육 세미나를 실시한다. 2017 년 1-2 월 한 달 두 번 4 주 계획으로 시작했다.

< 표 > 어린이 영성 세미나 신청서

어린이 영성 세미나 신청서

주제 : 어린이에게도 영성은 존재하는가?

기간 : 2017 년 1 월 7 일~2 월 25 일 (4 회)

시간 : 17:00~19:00

장소 : 개웅교회 사무엘선교어린이집

강사 : 최권능 목사

1. 참가자 인적사항

신 청 인	
휴대전화	
자녀이름	

2. 일정 선택

일자	참여 여부
1 회(1.7)	(O , X)
2 회(1.21)	(O , X)
3 회(2.4)	(O , X)
4 회(2.25)	(O , X)

3. 서명

위와 같이 어린이 영성 세미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표 > 어린이 영성 포스터와 세미나 일정

어린이 영성 세미나

주제 : 어린이에게도 영성은 존재하는가?
기간 : 2017 년 1 월~2 월
시간 : 17:00~19:00
장소 : 개웅교회 사무엘선교어린이집
강사 : 최권능 목사

세부 세미나일정

일자	주제
1 회 (1.7)	어린이 영성은 존재 하는가?
2 회 (1.21)	말씀을 자손 대대로 대물림하자 (잃어버린 지상 명령 쉐마 I)
3 회 (2.4)	어린이 쉐마 교육론
4 회 (2.25)	어린이 영성을 위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 (신명기 6 장 4-5 절)

첫 주 세미나는 “어린이 영성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실시하였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요엘 2 장 28-29).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다. 사도행전 2 장 17 -18 절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재로 어린이에게도 영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의식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므로 영성은 어른들이 소유만으로 의식해서는 안 되면 어린이에게도 임하는 성령의 은사임을 지적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개별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갈 3:28; 골 3:11). 결국 영성은 특별한 연령 제한 없이 남녀노소에게 임한다는 것으로 어린이들에게도 영성의 존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 세미나 주제로는 말씀을 자손 대대로 대물림해야 한다는 “잃어버린 지상 명령 쉐마 I ” 현용우 박사의 책의 교육신학 근본원리에 대해 강조했다. 구체적 세미나 내용으로 ‘유대인 성년식이 13 세까지여야 하며 13 세 이전의 교육의 중요성’이다.

1.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13 세 이전의 자녀교육이 중요하다.

2.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항상 함께 있길 원하는 시기이다.

3.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가 순종을 잘하는 시기다.

4. 부모에게 끊임없이 순종하는 시기다.

5.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의 100% 믿는 시기다.

6. 호기심이 많고 배움과 지식의 흡수력이 강한 시기이다.

7. 어릴수록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기 쉽다.

8. 한 인간의 인생에 13 세 이전 교육은 평생토록 영향을 미친다.

9. 인간을 13 세 이전 교육은 평생토록 영향을 미친다.

10. 복음적인 토양이 옥토의 시기다.

11. 5 검의 문화가 거의 형성되는 시기다. (문화, 즉 입맛, 냄새, 소리, 음악, 보이는 환경 및 촉각을 통한 느낌 형성)

셋째 주 어린이 영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세미나는 "잃어버린 지상명령 쉐마 II" 이다. 쉐마 교육론의 주제들에 대해 강론했다.

1. 왜 유대인의 선민교육이 기독교교육에 필요한가?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2. 유대인의 지상명령 쉐마 (교육신학)

3. 가정 신학

4. 아버지 교육

5. 어머니교육

6. 효도 교육

7.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교육

넷째 주 세미나 '어린이 영성을 위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이다. 신명기 6 장 4-5 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1.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했다. (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and Only).

2.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 (신 6: 5)

우리와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도리에 대해 말한다. '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형성을 말한다.

3. 택한 백성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해야 할 도리 (신 6:6-9)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도리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 삼아 가르쳐야 하는 도리에 대한 세미나로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 연구에 의식변화를 위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2) 의식변화를 위한 설문 자료

< 표> 어린이 영성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표

어린이 영성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박사논문 앙케이트 조사 기독교 어린이 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조사 하고자합니다. 영성이란? (靈性) (명사)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O 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어린이에게도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children also have spirituality?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2. 어린이에게도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Do you think children need spirituality?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3. 어린이에게 영성교육을 통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children benefit from spiritual education?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4. 어린이 영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녀를 참석시키시겠습니까? If there was a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program would you send your child(ren)?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5. 어린이 영성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children's spirituality has an impact on the church?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6. 어린이들의 성령 체험과 그에 따른 영성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지요. I am aware of the importance of children's spiritual experience and spiritual development.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7. 어린이 들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어린이 영성 훈련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If your child(ren) is immersed in the worldly culture and does not want to come out of it, would you still actively get involved in participating in the child(ren) 's spiritual training?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8. 어린이 영성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What programs first come to mind when you hear the phrase, "children"s spirituality?"
9. 어린이 영성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What programs would you like to have for (your) child(ren) 's spirituality?
10. 자녀들이 영성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Do children want to experience a new change through spirituality?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이상 앙케트에 협조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토대로 어린이 영성을 위한 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2. 실천적 변화를 위한 계획

1) 어린이 영적 양성 프로그램

의식적 변화를 위한 세미나와 어린이 영성 세미나 설문지를 토대로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 내 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와 연합하여 프로그램을 2017 년 1 월부터 12 월 까지 실행했다. 예배와 기도 찬양과 피아노 그리고 섬김으로 어린이들도 영성을 통해 어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교회내부에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에서 시작되는 실행이기에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을 알고 그것을 토대로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 에서 변화를 위한 실천적 사무엘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5)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대해 옳다고 칭찬하셨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세워 주셨고 교회는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지켜 나가야 한다.

신약 성서에서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cclesia)" 라고 하는데 “소집된 모임” 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교회' 라는 책 저자 한스킹은 신약의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데 있다. 신약성서는 교회의 이러한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등의 개념으로 설명한 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머리하고 부른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동일성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현존하며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키면서도, 교회와 대립되어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이다.”[178]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자들이 소집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다. 하지만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분리론은 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행함으로 능력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교회는 그 명령을 지키도록 영성을 지도해야 한다.

개웅교회 1층에 어린이 영성을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기 위해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은 세워졌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앉아 주시면 축복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어린이들에게 부여되는 축복이 임한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2) 예배와 말씀 프로그램 실행

(1) 예배 (365일 어린이 예배 설교 자료 [179])

---

[178] Kund Hans. *The Church. (London: Burns & Oates Ltd,*1967).

[179] Appendices, A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 은 어린이들과 날마다 아침 11 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전부 일 수 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럼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예배에 대해 신중하게 알고 어린이들에게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해 주어야 한다.

먼저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김대권의 “*Worship and Music*”에서 예배의 본질 (The nature of worship)에 대해 알고 실행하고자 한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예배란 경배(Adoration) 하는 것이다.
경배란 샤하아 (출 4:31)와 프로스퀴네오(요 4:24)라는 단어로 “엎드리다, 고개 숙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프로스퀴네오는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면서 경의를 표한다. 경배란 경배의 본질은 대상의 두려움만을 내면으로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써 지극한 공경심을 들어내는 것이다.[180] 경배는 절대자 앞에서의 외형적인 낮아짐이란 굴복함을 나타내는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Ministry)

---

[180] 김대권, *Worship and Music*. (서울: 그리심, 2006.),17.

성경에 예배라는 용어 속에는 “섬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바드 (abad출 3:12) 라트류오(latreuo, 마 4:10)라고 사용하여 사람의 행위(action of people)와 사람의 일을 뜻하는 헬라어 레이투르기아에서 온 것이다. 레이투르기아(leitourgia)는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의 희생제사와는 달리 회중의 전체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는 봉사를 뜻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예배는 전체 회중의 일이요, 행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181]

셋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reverence; awe)
루돌프 오토(Rudolf Otto)는 예배가 “두려움과 떨림(numinous 장엄하고 초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의 반응을 가르킴)을 수반하는 거룩한 행위” 라고 한다.[182]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두려움 마음은 예배 자에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없이해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리는 내적, 외적으로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 12:13).

넷째는 예배는 감사 (Thanksgiving)하는 것이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The purpose and the meaning of worship)으로 예배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죄인을 의인에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경배도 나오게 되며 섬김도 행하게 됩니다. 감사는 성경의 야다(yadah, 시 136:1)와 엑소몰로게오 (exomologeo마 11:25)로 나타내며 “감사하다”를 표현 하는 것입니다. 이 어휘들

---

[181] Ibid., 19.

[182] Ibid., 20.

속에는 ‘두 손을 들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 예배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전 인격을 다한 고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183]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예배는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행위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먼저 어린이들에게 예배의 대상을 알도록 해준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대 안에 예배자로 훈련되어 져야 한다. 예배로 시작하는 사무엘 선교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에 대한 원칙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183] Ibid., 23.

(2) 어린이 성경 통독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다.

첫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딤후 3:16).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에 이르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하게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7).

< 표 > 사무엘선교 어린이집 1 년 영역 설교자료

월별	영역	주제	말씀
1 월	창세기	세계의 시작	창 1 장
2 월	출애굽기	십계명	출 20 장
3 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도 시험 치르다.	마 4:12-10
4 월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의 무덤	마 27:57-66
5 월	행복한 가정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수 24:15
6 월	나라 사랑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삼상 17:45
7 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성을 다시 쌓은 느레미야	느 2:20
8 월	토기장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렘 18:6
9 월	믿음의 사람들	지켰던 다니엘의 기도	단 6:10
10 월	예수님을 치료자	수가성 여인을 만난 메시아	요 4:25-26
11 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 50:23
12 월	예수님의 탄생	동방 박사 들의 성탄절	마 2:11

(3) 어린이 성경 암송

가. 성구암송 지도법 2[184]

1)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구를 암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3) 성경 요절이 자기의 매일의 활동과 생활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4) 성경 요절이 증거 할 때, 유혹을 받는 순간, 의심이 있을 때 등의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경험으로 학습해야 한다.

5) 효과적으로 성경 구절을 복습하기

나. 암송 후 어린이를 위한 말씀 지도

1) 배운 요절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준다.

2)학습 경험을 심화시키고 명료하게 해준다.

3) 어린이가 학습 과정에 동참하게 해준다.

다. 교사를 위한 지도법

1) 개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한다.

2) 흥미와 규율을 유지시켜 준다.

3) 가르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4) 어린이가 일상의 삶에서 요절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만족감을 제공한다.

(4)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성경 요절 가르치기

---

[184]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주애: 강릉어린이전도협회).

가. 아주 짧은 요절로 한다.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나. 어린이의 이해 한도 내에서 한다.

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5) 어린이 1 년 암송 말씀

< 표> 암송 구절 표

1 월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 편 1 절
2 월	잠 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 편 1,2 절
3 월	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 편 1,2,3 절
4 월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편 1 편 1,2,3, 4 절

5 월	마태복음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시라. 시편 1 편 1,2,3,4,5 절
6 월	빌립보서 4:13 내게 능역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1 편 1,2,3,4,5,6 절
7 월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8 월	시 148: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데서 찬양할 찌어다
9 월	시 119: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0 월	마태복음 7: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1 월	요한복음 13:34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 월	누가복음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 어린이들 하원 시간에 각 반에서 한번 씩 암송한다. 2. 1 년에 두 번씩 전 연령에 걸쳐서 암송대회를 통해서 시상한다.	

3) 어린이 다니엘 기도

선교 어린이 집(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에서 어린이 만 2 -만 6 세 까지 대상으로 2017 년 3 월부터 12 월 까지 기도 영성 프로그램을 실행 하였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17 장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항상 기도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을 알리고 사랑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가르쳤다.

둘째. 환경과 장소를 초월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다니엘 6 장 10 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셨다.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어 시기를 한 고관들의 모함인 것을 알면서도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 장소 상관치 않고 기도하기를 전하였다.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7 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간구할 수 있도록 알리었다.

어린이 다니엘 기도		

기도 프로그램	내용	시간
1. 기도의 생활화	1)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성립하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일상생활 가운데 하고 있다. 2) 식사기도 3)교사가 성경 입체 동화를 가지고 영유아 눈높이에 맞추어 들려주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기도제목을 나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 시 50 분에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눈다. (오전) 2) 매일 12 시 점심 시간 3)오전에 나누었던 기도를 회상하고 퇴교 3 시에 (오후)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해보기를 권면한다. 감사기도 드린다.
2.기도 따라하기	선생님이 하는 기도를 한 구절씩 따라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마음을 표현하고 드린다.	매일 오전 11 시 예배기도 시간

3.기도의 제목	1)성경 인물들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2)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야기 형식으로 말하게 한다.	오전 11 시 예배후 말씀 중에 성경인물를 통해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4.스스로 기도하기	기도 따라하기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 스스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한다.	2017 년 9 월부터 11 시 매일 예배 때 돌아가면서 스스로 대표기도를 한다.

4) 다윗 음악교실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악기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시행한다. 어린이들에게 찬양과 악기를 가르치는 영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며 더 나아가 교회 반주자로도 쓰임 받도록 준비 시킨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할 찌어다.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 할지어다” (시 150:3-5). 또한 악기 다루는 것과 더불어 어린이 하늘 양을 결성하여 찬양을 가르치며 각종 행사 때 어린이들이 통해 찬양하도록 하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한다.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하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것 목표를 두고 있다.

찬양은 첫째, 찬양은 영혼의 호흡이다. 시편 150 편 6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도 외우기 어렵고 딱딱한 말씀들을 찬양으로 곡조 있는 노래로 가르치는 것으로 접근하니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둘째, 찬양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사야 43 장 21 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셋째, 찬양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4 장 8~11 절에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하더라”고 말씀하셨다.

그 취지아래 ‘도레미 하늘찬양’과 ‘다윗 음악교실’을 통해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 도레미 하늘 찬양

매일 오후 1 시 - 1 시 30 분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은 아주 짧고 재미있고 영성 있는 찬양으로 엄선하여 가르쳤다.

사도신경송 (2014 여름성경학교 찬양 중 23 번 “새사도신경송”-앤프렌즈 K-POP Lyrics Song), 십계명송 (2011 년 겨울성경학교 십계명송(이상원 곡)), 주기도문송 (정소라 곡) 처럼 다소 어렵고 긴 곡들이지만 반복함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전종혁 작곡 송세라 작사), ‘왕이신 나의 하나님 (Stephen hah 곡, All Nations Music, copyright).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다 배우고 나서 워십을 배우기도 하고 노래를 배우면서 워십을 함께 배우는 것도 쉽게 노래를 익히기도 했다.

연령별로 나와서 발표해 보기도 하고 한명씩 나와서 발표해 보기도 하고, 찬양 드리고 싶은 사람 나와서 발표해 보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표> 도레미 찬양 곡

언제	곡명	어떻게	출처
2017 년 1 월	예수님 찬양	11 시 찬양 배우기	421 장 웨슬리 작사, 허드슨 작곡
2017 년 2 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	어린이복음찬송가 58 장

	주기도문송		
2017 년 3 월	왕왕왕 나는 왕자다	“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표준어린이찬송가 417 장-장로회총회
2017 년 4 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어린이복음찬송가 93 장
2017 년 7 월	나는 예배자입니다.		
2017 년 8 월	십계명송		
2017 년 9 월	사도신경송		
2017 년 10 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심었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2017 년 11 월	성경 말씀 목록가		찬미예수
	주께 감사하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		
2017 년 12 월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2) 도레미 피아노 교실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가장 쉽게 접하고 기본적인 파온 훈련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 일 수업을 하였다. 음악 감상을 통해 아이들이 좋은 음악을 접하게 되고 음악 감상 시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율들을 느끼며 표현을 해보고 느낌도 나눠 보았다. 잠들기 전에도 잠자는 동안에도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잔잔한 음악, 찬송가, CCM 을 틀어주었다.

악기 탐험시간도 월 1 회 가졌다. 여러 가지 악기를 실제로 보기도 하고 만져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들어 보기도 하였다.

< 표 > 일 년 피아노 수업

월별	활 동 명	월별	활 동 명
3 월	손가락 인사하기, 검은건반 흰건반 알기(세친구, 두친구) 엄지는 일번손가락 엄지는	9 월	굿모닝 꼬마 바이엘. 꼭꼭 숨어라 아이좋아 음악놀이 – 낮은 솔

	일번(x2) 2 번 손가락 어딨나?		
4 월	굿모닝 꼬마 바이엘. 바른 자세 음악 놀이 – 내 손가락 그리기	10 월	굿모닝 꼬마 바이엘. 올라가는 도 아이좋아 음악놀이 – 낮은 라
5 월	굿모닝 꼬마 바이엘. 도 자리 찾기 아이좋아 음악놀이 – 낮은 도	11 월	굿모닝 꼬마 바이엘. 내려오는 도 아이좋아 음악놀이 – 낮은 시, 도
6 월	굿모닝 꼬마 바이엘. 왼손 도시, 시라, 도시라, 오른손 도레, 레미, 도레미 아이좋아 음악놀이 – 낮은 레	12 월	굿모닝 꼬마 바이엘. 즐겁게 노래하자/슬프게 노래하자 아이좋아 음악놀이 – 계이름
7 월	굿모닝 꼬마 바이엘. 떴다	1 월	연주곡 – 올라가다 내려오다

	떴다 비행기 아이좋아 음악놀이 – 낮은 미		
8 월	굿모닝 꼬마 바이엘. 왼손 – 도시락솔파 오른손 – 도레미파솔	2 월	연주곡 – 올라가다 내려오다

피아노 – 개별지도 (손가락 노래로 함께 모여 시작한다.)

이론 교재 – 올라와 함께 하는 음악 놀이 아아 좋아 – 삼호뮤직출판사

레슨 교재 – 굿모닝 꼬마 바이엘 – 삼호뮤직출판사

작은별 바이엘 – 현대음악출판사

3. 구조적 변화를 위한 계획

1)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 구성과 훈련

선교원을 구성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므로 영성을 키워 나가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초 위에 지식을 쌓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일 년 동안 신, 구약을 그림으로 인물구성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로 비디오를 통하여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지도한다. 그러기 위해 선생님들은 4 년 정규 대학교 유아교육과 또는 아동 복지과를 졸업하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교회 학교 선생님들로

신앙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어린이집으로 2007 년? 으로 전환하면서 선생님들의 신앙교육과 육아 전공 2 년제 졸업에서 편입하여 4 년째로 더욱 학문을 하는 일을 마쳐야 했다.

교회에서는 차량 지원과 선교원을 장소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예산을 세워 원을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다. 나라의 보조도 한몫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 선교원의 목적은 말씀을 토대로 현 문화권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나가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세운 것이다.

2) 조직화 변화를 위하여

조직화를 위한 기본 원칙은 '천재 백과'에서는 경영 조직은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4 단계에 따라 조직하며, 각 단계에 따른 일정한 원칙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첫째는 일의 분할이다. 둘째로는 부문화 이다. 셋째로는 책임과 권한의 부여이다. 넷째로는 조정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경영의 상황에 따라 적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조직화를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서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의 조직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첫째로 일의 분할이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적인 업무 활동을 파악하고 논리적·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일의 분할과 관련된 조직화의 원칙에는 전문화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훈련시켜 나간다. 교회에서 어린이 영성에 대한 필요성은 전달하기 위해 일을 분업화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조직 구성원인 선생님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할을 분담하므로 의식을 변화 시켜나가는데 효율성을 가지자는 의도이다. 책임과 각자의 받은 업무에 권한과 그것을 통한 상호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부문화이다.

일의 분할이 끝나면 확정된 업무 수행을 위한 선생님들이 일의 부서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부문화 또는 부서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 선생님들의 부문화를 통해 각 구성원이 특정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직능화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생님들의 역할 분담 후에도 일을 위해 사람을 더 채용하여 어린이 영성을 위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책임과 권한의 부여

어린이집 원장은 조직이 커지면 선생님들에게 업무 중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감을 세워 위임하는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그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어린이 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장의 명령에 의거하여 움직여져야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다. 원장은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임한 원감이 잘 지시를 따르고 이행하는 지를 관찰해야 한다.

넷째로는 조정이다.

각반 선생님들은 부서마다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은 부서 간의 마찰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3) 동원을 위하여

인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의식화와 조직화의 필요성이 상실하게 된다. 마치 관객 없는 무대의 연극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원을 위해 광고를 해 나가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모님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다.

4) 사무엘 영성 어린이 연구회

사무엘 어린이 집에서 2016 년 1 월 호칭을 바꾸어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 (사무엘 영성 어린이 연구회)을 당회의 허락으로 구조 변화를 시도 했다. 어린이 영성 훈련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 설립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영성 훈련이 형성되어 가는 작업을 착수 했다.

(1) 먼저 어머니 “유니게 기도 모임”을 결성하고자 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기도 모임을 형성 했다. 매주 금요일 9 시 교회 본당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모여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 결성을 위해 기도한다.

매월 1,3 주 오후 5 시경 모여 자녀들과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2)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 운영 위원회 결성하였다.

가. 2016 년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연번	구분	성명	연락처 H.P	주소	비고
1	학부모 대표 (위원장)	이수*	010-8766- ****	서울 구로구	장도* 어머니
2	지역인사 (부위원장)	김정*	010-4899- ****	광명시 소하동	예* 어머니
3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 원장	조경*	010-7355- ****	경기도	시설장
4	학부모 대표(위원)	남영*	010-3377- ****	서울시 구로구	김이* 어머니
5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 부원장	심순*	010-8413- ****	서울시 구로구	교사

나. 사무엘 선교원 시설현황

대지 : 204.8 ㎡

시설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20 길 91-10	
시설설비 현황	보육실	160.81 ㎡
	화장실	10 ㎡
	홀,복도	30.81 ㎡

VI.과제 평가 (Project Evaluation)

1. 의식변화에 관한 시행 결과 평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보호 속에 있어야 한다는 잠재적 인식으로 어린이들의 영적 필요성을 소홀하게 여기기 쉽다. 실제로 백혜리(1997)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장유유서 (長幼有序) 의 위계질서 속에 조선 시대 때는 유아들을 성인 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다. 즉 인격적 존재가 아닌 가족 단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 정도로 포함 되어 있었다.

1960 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유아기의 지능 발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만 유아들의 영성에 대한 필요성은 부상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다. 서양에서도 유아들을 불완전한 인격체로 즉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겼지만 16 세기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이후에는 하나의 독립체로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해 주었다. 유아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준 계몽주의 사상가로는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를 시작으로 해서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이어서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프로벨 (Friedrich W.A.froebel) 등이다.

기독교 사상이 지배하던 중세의 유아는 신체적인 크기만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성인과 똑 같이 존재로 여겨졌다.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유아들이 이미 완성된 성인의 축소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아들이 걷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놀이. 의복. 일. 공부 등에서 성인과 같은 수준의 기대를 했다. (심성경 외, 1998 재인용) 이처럼 고대 중세에는 유아들을 독

립된 인격체로 부상한다는 것을 볼 때 영적인 부분도 똑 같이 보면 된다고 여긴다.[185]

의식화 변화를 위해 먼저 부모님들에게 어린이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관심과 필요성을 위해 설문조사와 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해나간 결과이다.

1) 어린이 영성 세미나 실행 결과

< 표 > 어린이 영성 세미나 출석표

이름	주소	휴대전화	참여여부			
			1 회	2 회	3 회	4 회
이하*	경기도 부천시	010-4145-****	O	O	O	O
김샤*	경기도 부천시		O	O	O	O
김시*	경기도 부천시		O	O	O	O
박홍*	인천광역시 계양구	010-5245-****	O	O	O	O
조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010-7355-****	O	O	O	O
박찬*	인천광역시 계양구	010-8540-****	O	O	O	O
박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O	O	O	O
강선*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	010-5430-****	O	O	O	O
이미*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		O	O	O	O

[185] 이은화 외 6 명, 유아교육 개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이소*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	010-3169-****	O	O	O	O
이시*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	010-9220-****	O	O	O	O
심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010-8413-****	O	O	O	O
이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010-8613-****	O	O	O	O
이승*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010-9794-****	O	O	O	O
김하**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010-2734-****	O	O	O	O
이훈*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O	O	O	O
이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010-3455-****	O	O	O	O
이찬*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010-7372-****	O	O	O	O
김민*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010-8745-****	O	O	O	O
이승*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010-5050-****	O	O	O	O
이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010-9271-****	O	O	O	O
이 상 은 모두 출석한 인원입니다.						
그 외 30 명						

2) 어린이 영성 세미나 만족도

어린이 영성 세미나 만족도 설문지

성명	

조사일자	2017 년 2 월 24 일 오후 5 시 ~ 7 시 까지
조사방법	☐ E-mail ▫ 유선통화 ▫ 방문작성 ▫ 서류발송 ▫ 기타 ( )

■ 어린이 영성 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영성 세미나의 발전을 위해 간단한 설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잘 읽고 다음의 질문에 체크해주세요.

1. 세미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세미나 소요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이 세미나를 통해 귀 자녀의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이 세미나를 통해 어린이 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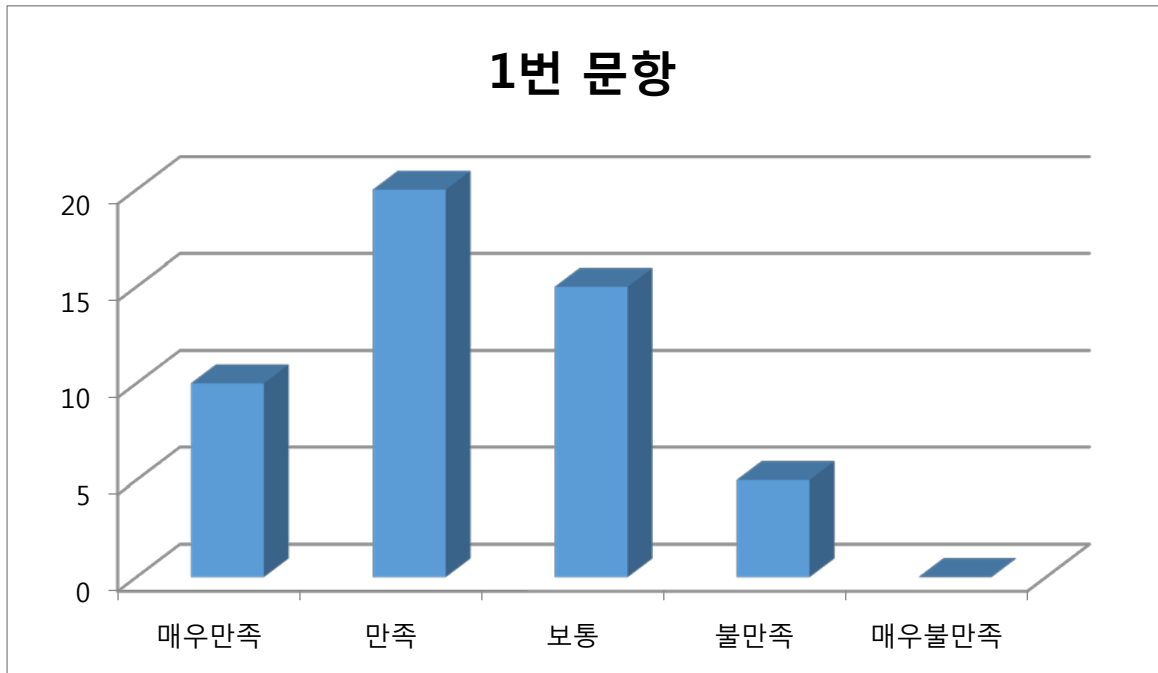
5. 이 세미나를 통해 느낀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이상 어린이 영성 세미나에 참석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위해 더욱 연구하여 어린이 영성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어린이 영성 세미나 만족도 설문지 통계자료 (참여인원 5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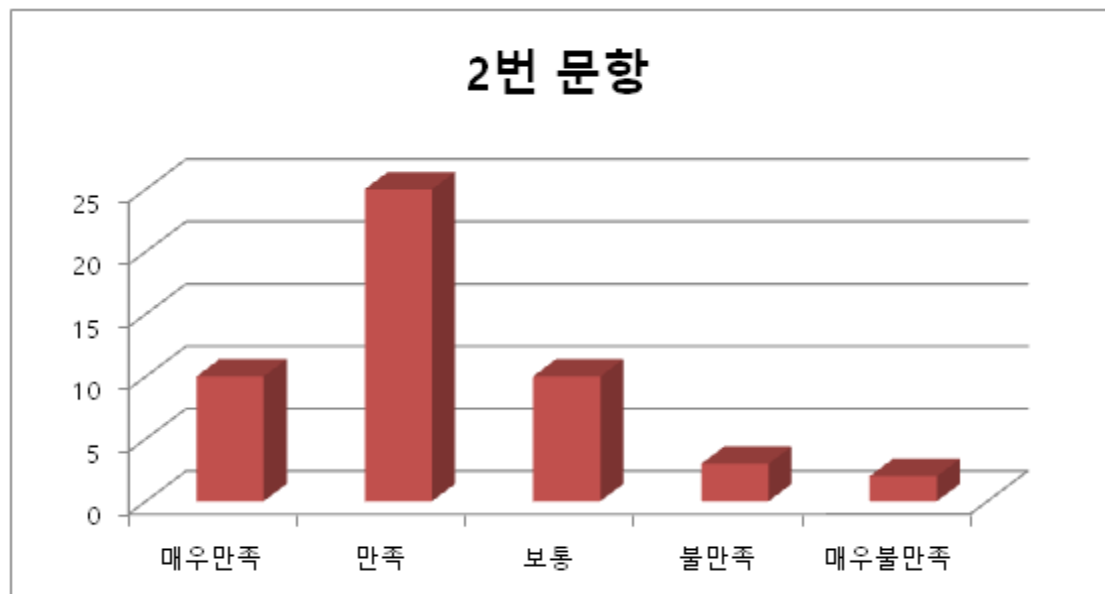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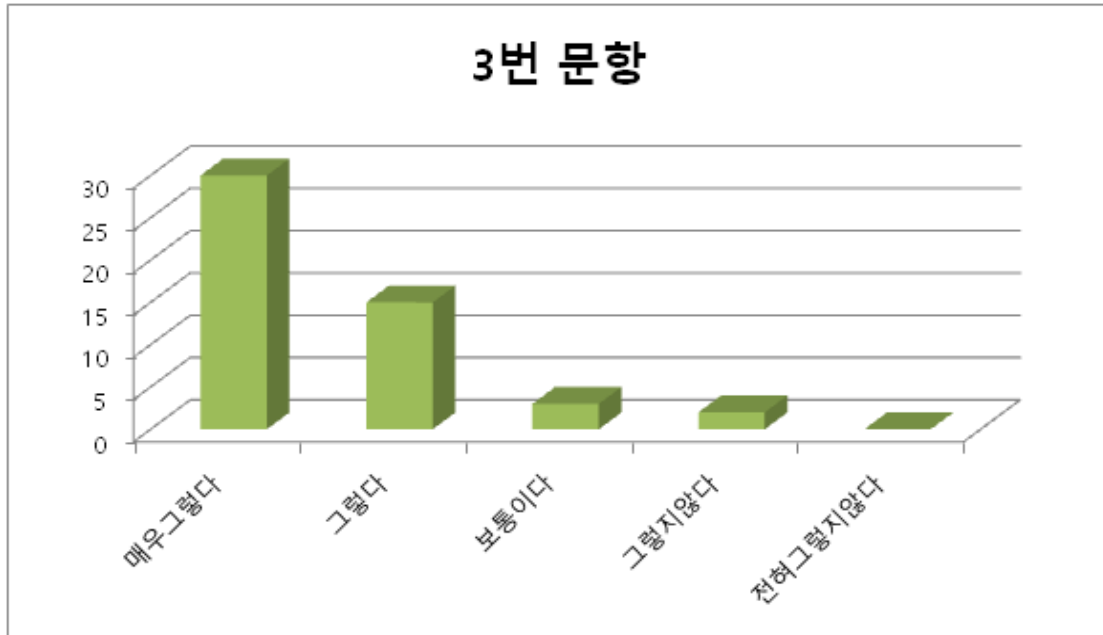
1. 세미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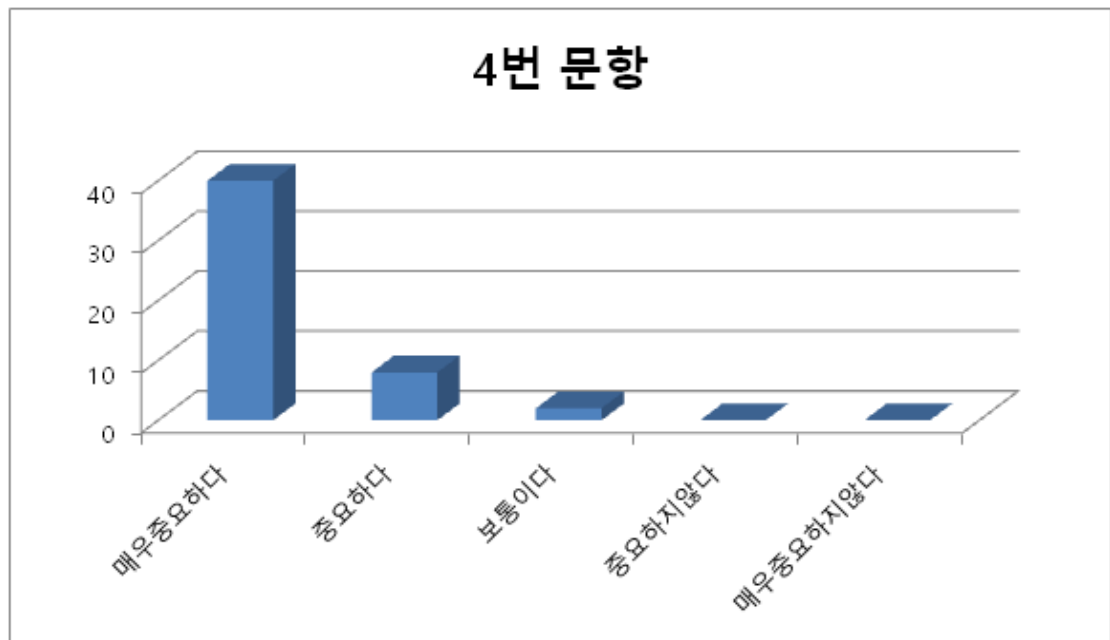
2. 세미나 소요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이 세미나를 통해 귀 자녀의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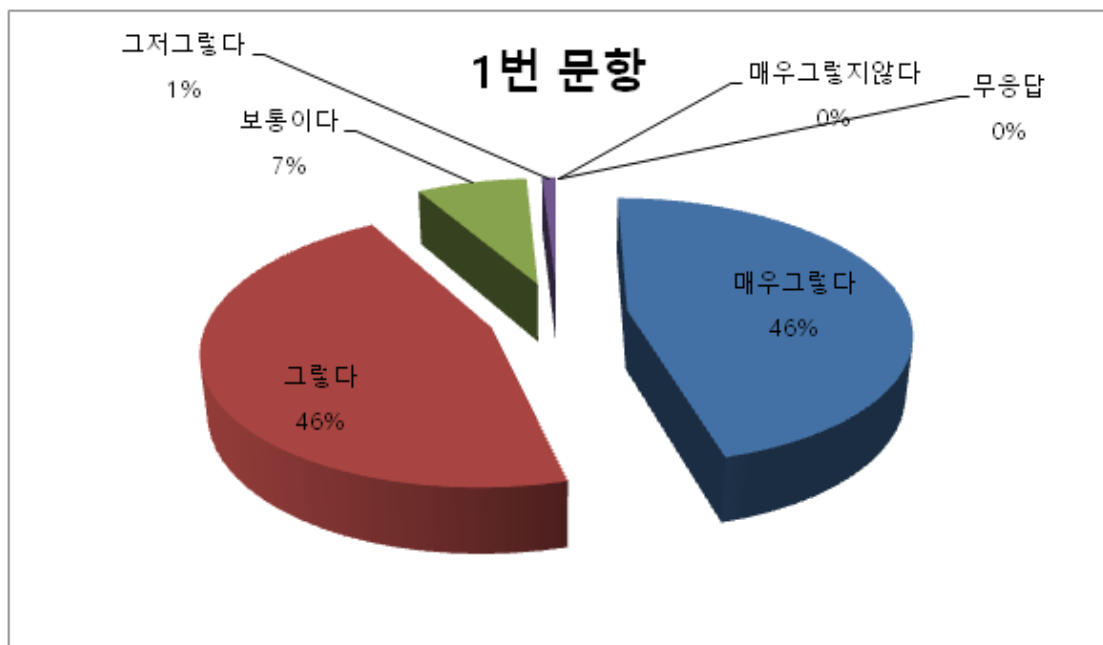
① 매우 그렇다② 그렇다③보통이다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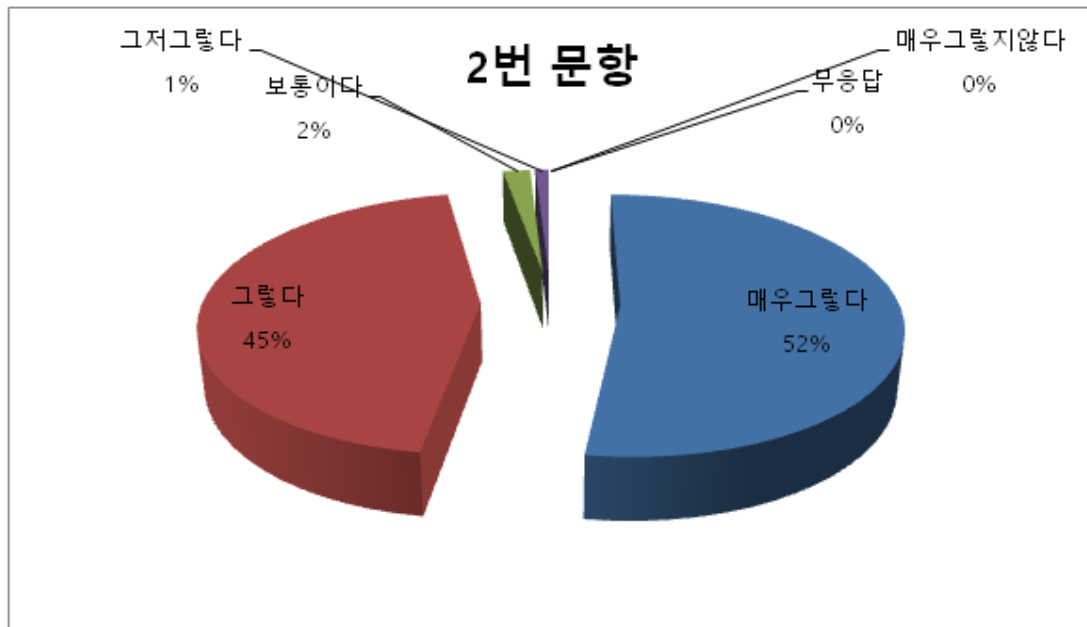
않다

4. 이 세미나를 통해 어린이 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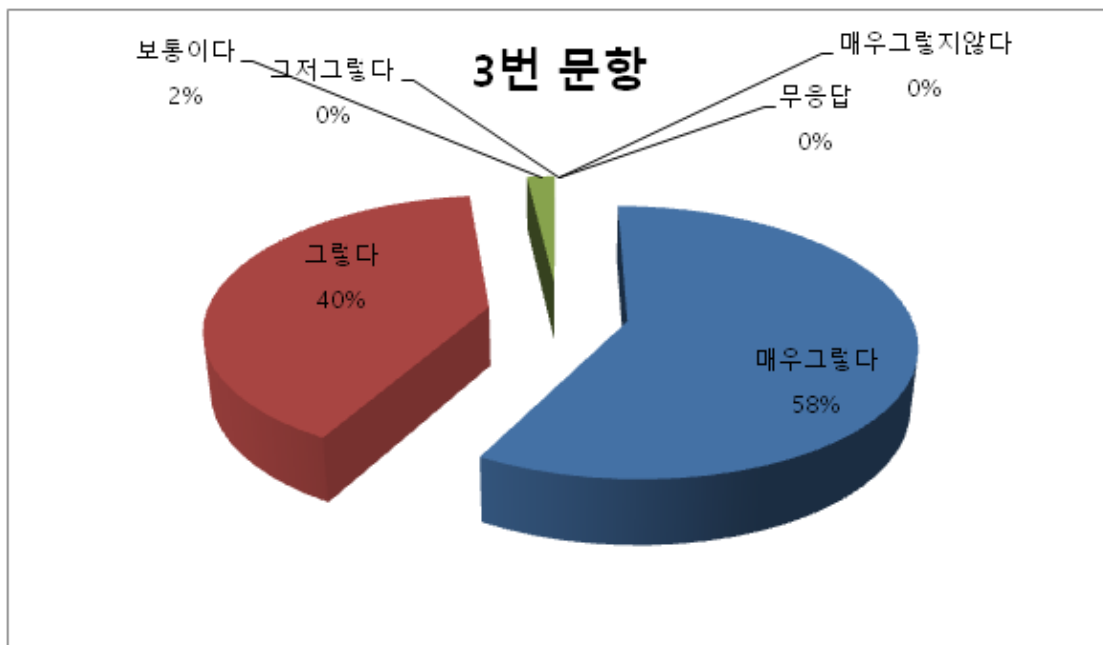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③보통이다④중요하지 않다⑤매우중요하지 않다.

3) 어린이 영성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지 작성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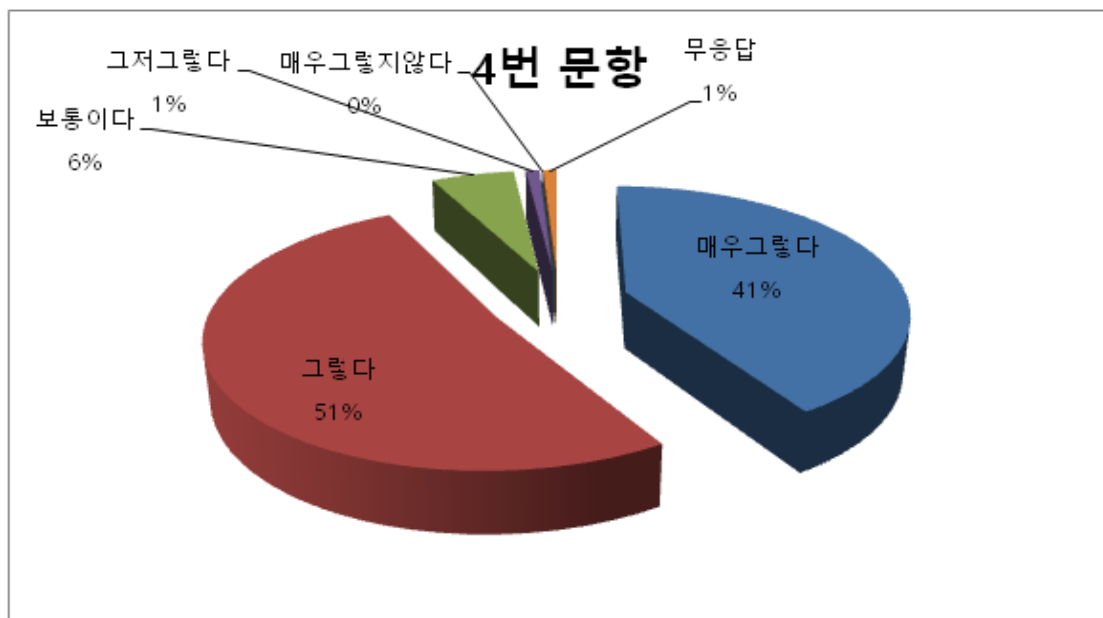
어린이 영성의 중요성과 어린이 영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라는 설문 조사를 하였다. 미국 시카고성도와 교사 조사대상 으로 63 명, 기독교 유아 교육 연합회 (기유연) 30 명, 그 외 부모님 등 107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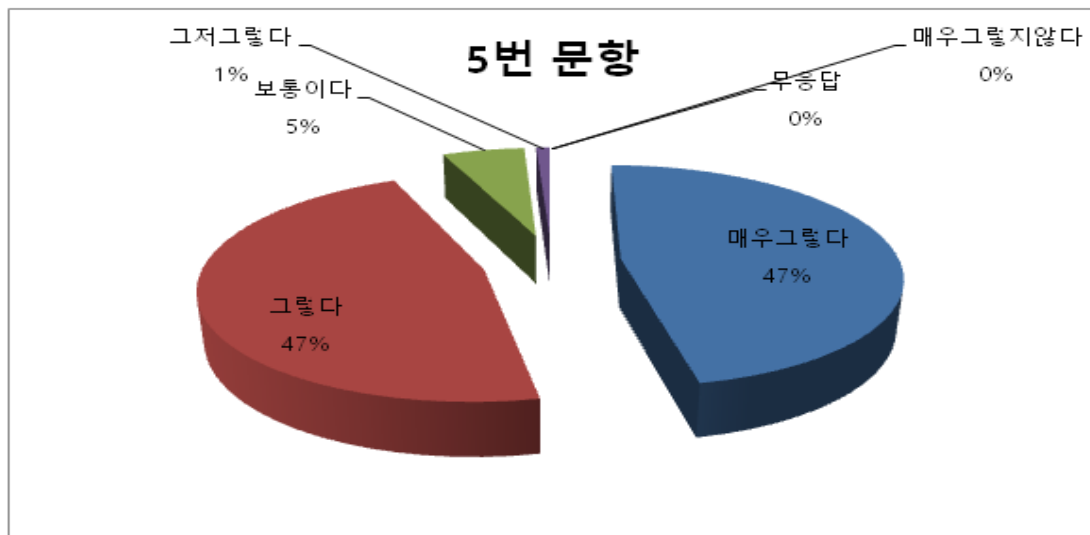
1. 어린이에게도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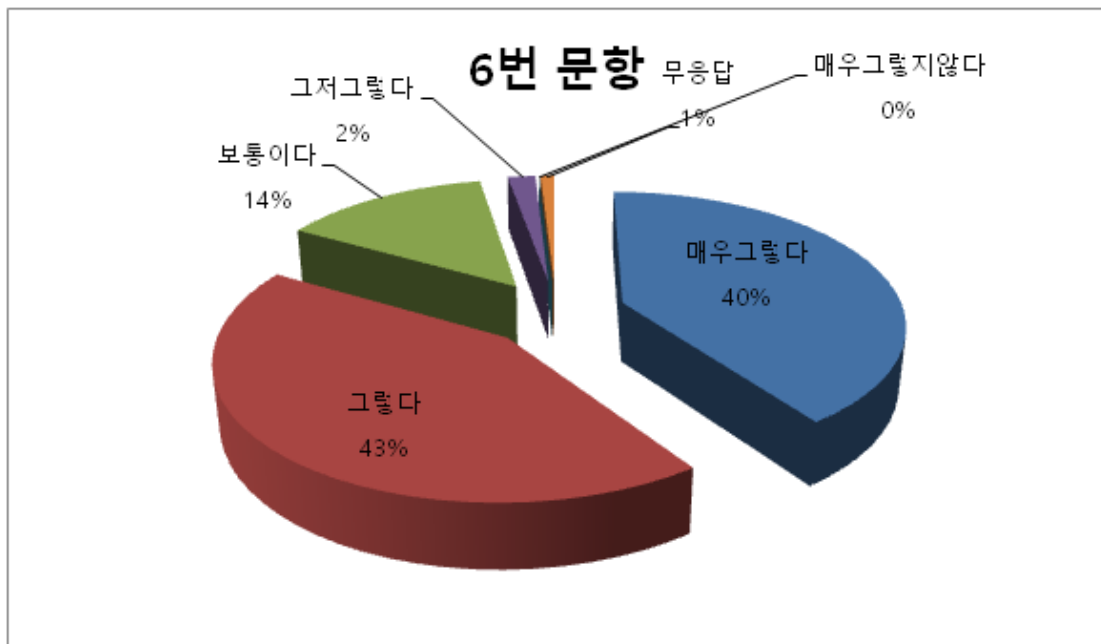
107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참여 인원	49	49	8	1	0	0
응답률(%)	45.79	45.79	7.48	0.93	0.00	0.00

2. 어린이에게도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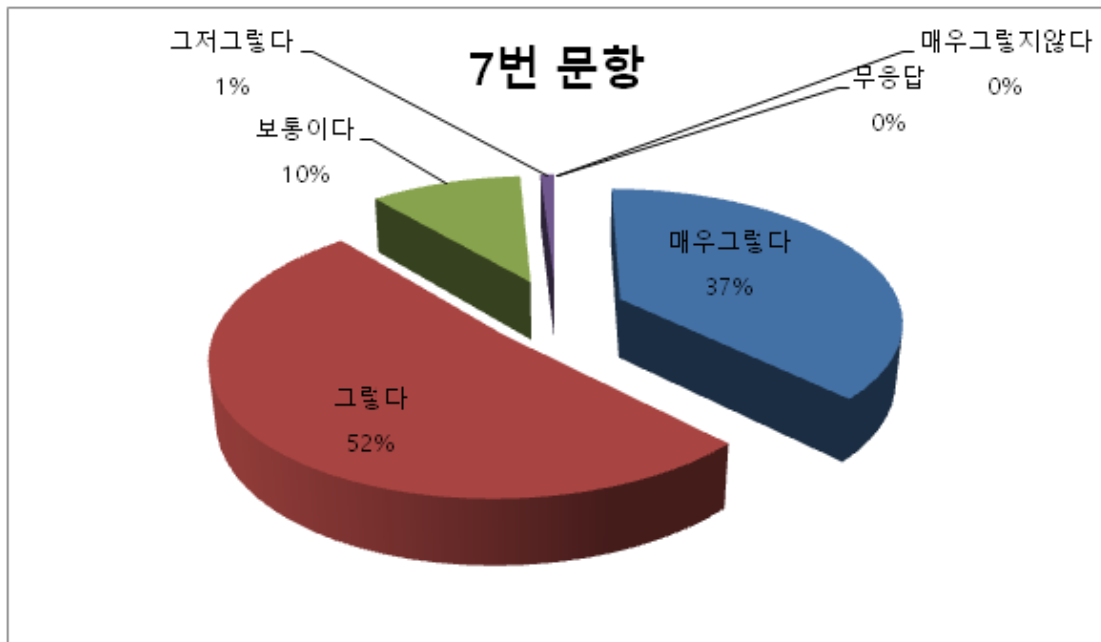
107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참여 인원	56	48	2	1	0	0
응답률(%)	52.34	44.86	1.87	0.93	0.00	0.00

3. 어린이에게 영성교육을 통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7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참여 인원	62	43	2	0	0	0
응답률(%)	57.94	40.19	1.87	0.00	0.00	0.00

4. 어린이 영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녀를 참석시키시겠습니까?

107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참여 인원	44	55	6	1	0	1
응답률(%)	41.12	51.40	5.61	0.93	0.00	0.93

5. 어린이 영성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7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참여 인원	50	50	6	1	0	0
응답률(%)	46.73	46.73	5.61	0.93	0.00	0.00

6. 어린이들의 성령 체험과 그에 따른 영성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지요

107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참여 인원	43	46	15	2	0	1
응답률 (%)	40.19	42.99	14.02	1.87	0.00	0.93

7. 어린이 들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어린이 영성 훈련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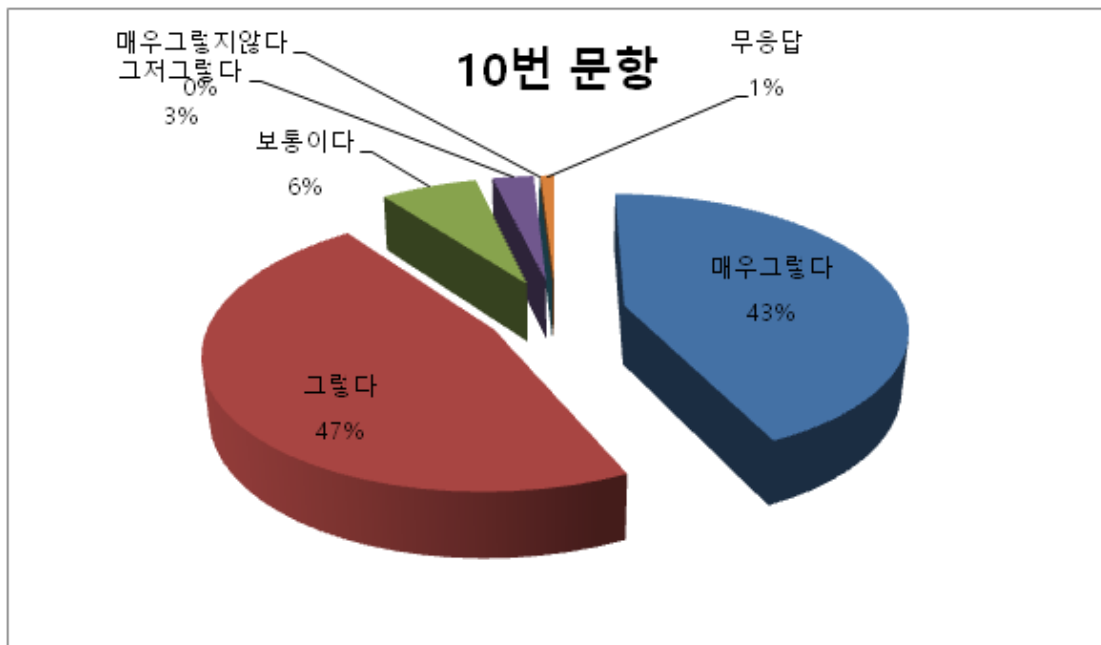
107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참여 인원	40	55	11	1	0	0
응답률(%)	37.38	51.40	10.28	0.93	0.00	0.00

8. 어린이 영성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영성 프로그램 종류	응답 인원	영성 프로그램 종류	응답 인원
주일성경학교	16	성경읽기	2
찬양, 율동	14	성경인물이야기	2
성경공부	11	성경캠프	2
기도	11	콘서트	1
여름성경학교 (VBS)	10	가족교육	1
Q.T	5	성경게임	1
예배	4	제자훈련	1
수련회	4	가족치유	1
가정교회	4	부흥회	1
성경암송	3	신체게임	1
영상	2	퇴보	1
세상속에서 사탄의 일을 공개하는 프로그램	1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1
참여 인원 70 명 무응답 34 명			

9. 어린이 영성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영성 프로그램 종류	응답 인원	영성 프로그램 종류	응답 인원
성경공부	17	율동	2
기도	8	N/A	2
찬양	8	동화	1
성경학교	6	성경일독	1
Q.T	5	성극	1
가정예배	4	품성교육	1
체험활동	4	소그룹	1
여름성경학교 (VBS)	3	미디어 프로그램	1
수련회	3	세상보다 더 진보된 프로그램	1
예배	3	어린이들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정체 프로그램	1
성경	2	봉사	1
참여 인원 58 무응답 49			

10. 자녀들이 영성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107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참여 인원	46	50	7	3	0	1
응답률(%)	42.99	46.73	6.54	2.80	0.00	0.93

2. 실천적 실행에 대한 평가

1) 예배와 말씀 프로그램 결과

(1) 어린이 예배

① 바르게 앉아 들을 수 있다

② 말씀을 따라 읽을 수 있다

③ 다짐, 실천을 위해 크게 따라 할 수 있다.

④ 말씀을 듣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⑤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적극적 반응을 보인다

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⑦ 전도가 무엇 인지 알고 왜 전도 해야 하는지 안다

⑧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안다

⑨ 매일 말씀 한 절씩 듣는 다는 약속을 생각하고 지킨다

(2) 어린이 성경 암송

① 말씀 암송구절을 듣기만 했다.

② 한 구절씩 따라 할 수 있다

③ 계속적으로 반복하므로 80% 이상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다.

④ 암송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친구들과 함께 암송할 수 있게 되었다.

⑥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말씀을 암송했다

⑦ 발표회 때 말씀을 큰소리로 정확하게 암송했다.

2) 어린이 다니엘 기도 실행 평가 결과

어린이들이 기도를 시작 할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던 친구들이 매일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내가 어려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도와주실 뿐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기도 제목은 짧지만 진실 되었고 가장 많은 기도내용은 "예수님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였다.

첫째로는 예수님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로는 엄마 아빠 선생님들 말 잘 듣게 도와주세요.

셋째로는 친구들, 선생님들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넷째로는 예수님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섯째는 아픈 사람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위해 친구를 위해 간구하는 중보 기도하는 모습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시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게 되었다.

3) 다윗 음악 교실 실천 시행 평가 결과 (발표회)

(1) 도레미 하늘 찬양

처음에는 아이들이 찬양을 익힐 수 있을까 의구심으로 연구를 임할 때 한명도 따라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힘들었지만 노랫말을 따라하게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 하다 보니 며칠 만에 어느 순간 1 살 영아까지도 따라하게 되었다.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 비록 어리지만 영성이 느껴졌다.

a.어린이 모습

영성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어두운 얼굴 또는 무관심한 얼굴을 띠었는데 영성 프로그램 후 밝은 얼굴이 되었다.

b. 처음에는 안 듣는 척, 장난치고 친구와 이야기 하며 산만했는데 프로그램 시행 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러 친구들 앞에 나와 잘 못해도 발표하고 싶어한다. 서로 드리겠다고 앞에 나와 찬양 드리려고 한다

c. 생활

영성 프로그램 전에는 노래를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관심했는데 프로그램 시행 후 놀이 할 때도 찬양을 흥얼흥얼하며 즐겹게 놀이 한다.

d. 완전히 익혀진 후

어린이에게서 주님을 향한 영성 있는 찬양을 드릴 줄 알고 이에 교사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 워십, 율동으로 함께하니 자연스럽게 어린이에게서도 깊은 영성이 느껴진다.

(2) 도레미 피아노 교실

다윗음악원을 통해 어린이들이 탐험하며 좋은 음악을 들으며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배우고 익힌 것을 발표회를 통해 발표력도 기르고 자신감을 키워 나가는 기회로 삼았다. 피아노교육은 3 월부터 월.수.금 굿모닝 꼬마 바이엘 (삼호뮤직출판사) 개별 교재로 레슨을 하였다.

유아들은 처음에 함께 손가락 번호 익히기 위해 손가락 번호 노래를 통해 손가락 번호를 익히게 하였다. 음악이론 또한 ‘올라와 함께 하는 음악 놀이 아이 좋아’ – 삼호뮤직출판사 교재를 통해 색칠하며 스티커 붙이며 즐겁게 이론 공부하게 했다. 매월 1 회 음악 감상을 통해 음악가 탐험과 함께 좋은 음악을 감상하게 하였다.

악기 탐험 또한 매월 1 회 악기들을 보거나 만져보거나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악기들은 음악놀이터를 통한 연주회로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모두 볼 수 있게 하였다.

유아들이 즐겁게 내 몸의 악기와 하나님 주신 악기들을 보고 익히고 배움을 통해 자신감 있는 아이로 리더쉽이 있는 아이로 미래를 이끌어 갈 하나님의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유아들과 그 부모님들과 함께 연계하여 활동을 이어 나갔다. 매년 2 월에 그동안 익히고 배운 것을 엄선해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회를 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유아들을 보면서 영적 육적으로 성장한 모습에 모두 흡족하는 기회로 삼았다.

(3) 발표회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 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 주관 하여 발표회를 가지게 되었다.

1 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껏 우리가 함께 프로젝트로 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표회를 하였다. 피아노 연주 발표회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찬양과 워십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열심히 연습할 때 잘한 아이였는데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우는 영아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한층 더 영육으로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고 부모님들도 자랑스러워하였다.

3. 사역 현장 구조 변화에 대한 평가

각 위원회 구성과 훈련으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어린 이 영성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은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적으로 날마다 운영된다. 위원회 구성과 교사 선생님들 훈련을 통하여 고 있다.

1) 구조적 변화에 대한 평가

(1) 2017 년 예수님 닮기 원해요. 어린이 예배를 매일 오전 11 시 어린이 영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 유아들을 통해서 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가 형성되어 운행 하게 되었다.

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는 선교 어린이 집에서 한 달에 두 번 1,3 주일 오후 5 시와 매주 교회 본당에서 금요일 오후 9 시에 정적으로 모여서 제반 상황을 토의하며 더 나은 어린이 영성을 위해 기도하며 연구하게 되었다.

구조적 변화로 모든 실행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며 외부 어린이도 수용 할 수 있도록 진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에 등원 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주일 11 시 예배로 국한 된다.

(2) 어린이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 을 통해 어린이 “에스라 말씀 암송반 교실”이 구성되었다.

(3) 기도회 실행으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형성되었다.

(4) 어린이 하늘 찬양대 구성과 어린이 다윗 음악 교실을 통하여 외부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전도하는 “다윗 음악원”이 형성 되었다.

(5) 어린이를 위해 성도와 학부모 기도모임 “유니게 어머니 기도회”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매일 새벽 5 시 예배 후 기도한다. 오전에 못할 경우 각자 매일 오후 2 시에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도록 한다.

2)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 (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

사무엘 어린이 영성 연구회를 통해 2017 년 어린이집 영 유아 현황과 교사 현황 구조 변화와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3) 보육 운영 계획 (2017 년)

Ⅶ. 목회 능력개발 (Personal Evaluation)

1. 연구반

1) 연구반의 구성과 의무

< 표 > 연구반

명단	조경순	사무엘 선교어린이집 원장
	심순복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 원감
	김하천성	주일학교 전도사
	김민숙	상담가
	이승기	생명과학학사
	이경미	신학 대학생, 주일 학교 교사
활동 내역	1.격주 토요일 2-4 시에 선교 어린이 집에서 기도회와 논문을 모임을 가진다. 3. 어린이 영성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문제들을 논의 한다. 4. 논문에 제기할 문제들을 질의 토론하여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기여사항	1. 사이트 팀과 토의를 통하여 논문 방향 설정을 잡아 본다. 2. 어린이 영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논의 한다. 3. 어린이들의 영성개발을 통하여 장래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할 목적으로 미래를 본다.	
목회 능력 평가	1. 사이트 팀의 추천과 목회 방향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 지향 2. 목회자 ,지도교수, 신학자, 어린이 영성가, 어린이 교육 전도사, 가족 상담자, 사회 CEO 목회 평가와 발전을 지도받는다.	

2) 연구반 모임 결과

연구반 모임은 한 달에 두 번씩 논문을 위하여 기도회와 모임을 교회와 사무엘 선교어린이 집에서 주로 가졌다.

첫째 모임 때는 연구반의 목적이 무엇이며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설명과 필자가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것과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서를 전달했다. 또한 논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과 어린이 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나누었다.

두 번째로는 매번 모임 때 논문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며 그 후에 연구반원의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유익된 점과 느낀 점과 어려움 점을 나누며 동조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상 속에서 자신 만을 공간 안에서 자신 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것처럼 동시대에게 함께 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지길 바란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내면을 서로 보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므로 서로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는 시간을 가져 본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 대상 어린이들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므로 사이트 팀의 구성원인 원장, 원감 선생님, 교사들과 의논하며 교인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위해 준비했다. 먼저 성도들 대상으로 어린이 영성에 대한 의견을 미국 60 명에게 미국 선교 때 한국에서 40 명 학부모와 선생님과 교인들로 질문에게 1 개월 정도를 거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린이 영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성경공부와 찬양 그리고 기도 프로그램이 압도적이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현저 하게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어린이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자고 했다.

2. 능력 있는 설교 개발과 후보자 평가

1) 목회능력 개발

목회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것 점을 토대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회의 중심축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런 근거가 반석이 되어 더불어서 현 문화권 속에서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하며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강조해 나가고 싶다. 현 목회는 세상 문화권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세상의 문화를 도리어 우선시 하는 경향을 종종 보게 된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이 하는 기초 없는 목회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의 비전과 기본기를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독서를 통하여 세 가지로 목회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설교가로서는 성서연구와 대중설교 능력을 배양 한다.

팀 켈러 (Timothy Keller)는 그의 책 'Preaching'에서 설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근본 대상은 '성경 말씀'과 '듣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싶다. 예를 들어보면 밀을 추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지 않으면, 양분을 공급할 수도 기쁨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186] 이렇게 건강한 설교는 두 가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온다.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보여 주고픈 열망이 솟아나게 하는 원천이 된다고 본다. 오직 하나님만이 듣는 이의 마음을 여실 수 있음이 분명하지만, 전하는 자도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듣는 이의 마음과 삶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란 설교자만 있어도 설교하는 자 없이 청중만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설교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자 사모해야 한다.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설교자의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설교자 또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틀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며 전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팀 켈러(Timothy Keller)는 또한 설교단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려는 유혹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이 우리를 설교단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기보다 설교자로서의 삶을 더욱 힘써 준비하라.

삶이 없는 설교는 죽은 메시지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진정한 설교와 진정한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것을 독서를 통해 연마하고자 한다. 더불어 독서 하므로 얻고자 하는 것을 습득을 통해 배우며 실천적 행함을 통해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자 목적을 정했다.

[186] Ibid., 82.

둘째 종교 교육가로써 영적 훈련에 대하여 연구하며 어린이 영성에 관한 존재와 이해에 대해서 독서를 통한 원리를 지향한다.

셋째로는 상담가로서 상담 기법과 상담의 이해와 실제 그리고 상담 가족 치료와 독서를 통해 원리와 목회현장에서의 적용을 하는데 기초를 두고자 한다.

(1) 독서 계획표 (201 년 1 월 ~ 12 월)

2017 년			
	영역	월	학문 연구
설교자	성서 연구	1 월	*The New Testament*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2 월	*An old Testament Theology* (블루스 왈트키) 조직신학 (웨인 그루뎀)
	대중 연설 능력	3 월	*Peeaching* (Timothy Keller)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Byron Yawn)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 (제프리 크로츠)
		4 월	*Preaching with Power* (마이클 더두잇) *한국 교회 설교자 33 인에게 배우는 설교,* (문성모) Choosing to Preaching (켄트앤더슨)
어린이 영	영적 훈련	5 월	*Spiritual Disciplines for The Christian*, (Donald

성 교육자			Whitney)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 (이 태복)
		6 월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Richard Foster) *영적 지도력*, (Oswald Sanders).
	어린이 영적 존재 이해	7 월	*어린이 영적 세계의 탐구*(David Hay,Rebecan Nye)
		8 월	*어린이들에게 영성은 존재하는가?* (Aline D.Wolf)
상담 가	상담 기법과 상담의 실제	9 월	*Effective Christian Counseling Technique* (전 요섭)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10 월	가을학기 상담 때 부모님과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깊은 심적 상담을 실천 한다.
	상담치유	11 월	*아픔. 상담. 치유* (정태기)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박랑규외),
		12 월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웬)

(2) 참여 계획표

일정	내용	장소
2017.3.9	세로토닌 교사교육 1. 세로토닌 1 년차, 2 년차, 4 년차 사례 발표회	구로구 대광교회 사무엘관 (오후 4 시)
2017.5.2(화)~5.5(금) 하루만 참석	목회 리더쉽 연구소 세미나:설교 클리닉 강사:이동원 목사	필그림하우스
2017.11.2	다암교육 2. 독서토론 디베이트교육	구로 베니스 (시흥) (오전 10:20)

2) 적용

(1) 도레미 하늘 찬양 단 모임 개설

(2) 다윗 음악원 개설

(3) 어린이 요셉 섬김 실시

(4) 소그룹 어린이 예배 진행 업그레이드

(5) 선교어린이집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기도 운동실시

3) 개인적 적용

(1)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영성프로그램을 위한 선교 전략의 책을 만든다.

(2) 교사들의 미래 지향적 세미나를 개최한다.

(3) 어린이 영성 세미나를 교회에서 가지도록 한다.

(4) 다음 세대를 어린이를 위한 상담실 운영

(5) 다음세대를 위한 가정회복 운동

(6) 설교에 도입한다.

4) 결과적 반응

지금까지 개웅 교회는 개척하여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어린이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 역시 꾸준한 시도 속에 설립하고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본 논문은 선교 어린이 집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영적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에게도 영성이 있고 성인과 동일 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영성 개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도 성경 공부, 찬양,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실기되었습니다. 어린이도 영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며 어린이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도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려했지만 선지자 요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 2:17)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어린이들의 영성에 대한 의식변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설문지를 통해 어린이 영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선교어린이집을 통해 영성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어린이를 통하여 전도된 부모님들도 계셨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성 프로그램을 거절하시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 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영성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는 어른과 동일한 장성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전도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

3. 평가의 근거

사이트 팀의 목회 능력 평가를 통하여 어린이 영성지도자, 상담가, 설교자 분야의 능력을 개발함으로 나의 목회에 미래를 계획하며 대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현대 교회는 어린이들을 세상 문화를 가져다가 접목 시켜야 신앙교육과 영성이 이루어져 나가는 줄만 안다. 물론 Karl Barth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읽어 낼 수 있는 분별이 중요하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찬양등 기초 없는 신앙교육은 분별없는 어린이들에게 영적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초 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영성을 개발하여 어린이들도 사역에 도움을 주는 영성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력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훨씬 다양한 능력을 통해 좋은 결과가 산출될 줄 합니다. 평가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확성을 위해 뉴욕 신학교(NYTS)에서 제시한 후보자의 유능성, 신실성, 그리고 스타일 평가 기준으로 했다.[187]

---

[187] Appendix. C

4. 기독교 어린이 미래적 영적 상황 프로그램 개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이 제자들과 생각이 다르셨다.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은 무릎에 앉혀 놓고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한 축복을 지금도 이어 나가길 원하신다. 미래에도 어린이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질 않길 원하신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막 10: 13-16).

최윤식은 한국 교회의 매래 전망을 예측하기를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고 했으며 성장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어린이주일학교 미래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교육부서가 이미 1980 년대부터 줄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환호성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장통합 측에서만 지난 10 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가 38 만 명에서 28 만 명으로 줄었고 기독교성결교회는 30%가 감소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1990 년대 후반부터 정체기를 맞고 서서히 감소하는 패턴은 교육부서가 1980 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는 패턴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교육부서의 감소는 한국교회 전체 숫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2010 년을 기점으로 30 세에서 50 세의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2050 년경이 되면 교인 중 6,70%가 은퇴자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독신주의 현상이 팽배한 현 세대에 교회 부흥은 더욱 어려 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미래학을 전공한 학자로써 예측한 것입니다.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한 것들이 거의 들어맞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제가 예측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개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10 년이 지나면 교단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회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않으면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윤식은 개척교회를 '유아사망형' 교회라고 한다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는 '요절형' 기성교회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국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곧 교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재정적 위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평이동에만 관심을 쏟아 붓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을뿐더러 영혼구원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진실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도 머지않아 선교교육은 있어도 대상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 속에서 미래가 무척이나 어둡다.

또한 어린이들은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복음에 대한 강요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유럽, 미국들의 교회는 부흥에 때에 비해 노년층들이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게 했다. 어린아이들은 많이 감소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제하라는 공문들이 학교나 어린이 집에 날아온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전도의 대상과 전도하는 복음자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목회능력 개발 결과 연구 반원 평가

연구 반원 평가는 연구자가 자신을 평가 한 것보다 좋은 시각에서 평가해 주신 것 같다. 하지만 알던 부분도 재평가 되어 졌고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고 확고하게 되어 재건되어져서 유용하고 대단한 참고가 되었다.

1) 설교가로서

후보자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밖에 있는 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다. 청중에 따라 믿음의 수준을 보고 그 수준에 맞추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외우고 기도를 통해 항상 설교를 준비한다. 하지만 미리 다른 설교를 준비 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면 과감히 놔두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씀을 전한다. 시간과 정해진 틀에 박혀 설교하기 보다는 청중의 수준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청중으로 하여금 설교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2) 어린이 영성교육가로서

후보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따라 먼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먼저 천국을 소유하길 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린이들에게 몸소 행하며 교육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하려고 노력하는데 더욱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아이들과 동일선상에서 교육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3) 상담가로서

후보자는 교육이나 지식만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따뜻한 사역자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돕고 싶은 진실한 마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분별력과 지혜로 모든 상담 과정에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함께 풀어가는 탁월한 지도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담자가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는 최고의 상담가이다.

후보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너무 바쁜 일과와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육체가 고되고 피곤하여 건강이 상할까 염려가 되는 어려움이 있다.

Ⅷ. 결론 (Conclusion)

현대 교회는 급속히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부모의 양육 지도하에 있는 어린이들도 교회에 스스로 올 수 없는 것은 기존 사실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는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며 부모님을 전도하고 어린이 스스로 영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시키므로 효율적인 신앙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 프로그램을 세상과 접목 시켜 흥미 위주로 예배를 진행하며 인도하는 것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어린이 예배가 줄어 들고 있다. 현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무리하게 끌어드리는 것에 급급하여 교회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도리어 기존의 교회 분위기를 훼손하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보게 된다.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며 믿음의 반석 위에서 도리어 세상 문화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린이들을 양육하고자 사무엘 선교 어린이 집과 사무엘 어린이 영성에 연구회를 설립하였다. 년 초 만 0 – 만 6 세 어린이들이 30 명을 모집하여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적용하여 방식으로 3 월에 개강을 하여 12 월에 졸업을 한다. 어른들에게만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어른들과 같이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영적 부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실행 할 때에는 “어린이에게 영성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의 질문들이 있었지만 의식 변화를 위한 세미나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도 영성이 존재하며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에 어린이 영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며 개발하여 미래 교회의 구성원으로 장성 시키고 교육 시킬 것에 대해서는 생 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 또한 그러했지만 교회 어린이들이 일반 놀이로 어른 예배 드리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며 더 나아가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매일 선교 어린이 집 와서 예배 드리므로 영성을 키워 나가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영성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 하면서 어린이들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을 흥얼거리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며 어려울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 어린이들에게 일년간 성경 말씀을 지도하며 사도신경 ,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암송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른들 보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성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어린이들에게 영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영성 개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양육되는 결론을 얻었다.

Ⅶ. 부록 (Appendix)

APPENDIX A. 일 년 사무엘 선교 어린이집 설교 자료

1월 창세기

영역	주	2/월	3/화	4/수	5/목	6/금
1월 창세기	1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세계의 시작 창1장	처음 창조된 남자 창2:4-17	처음 창조된 여자 창:18-25	죄의 시작 3장	부키성경동화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2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가인과 아벨 창4장	노아의 방주 창 6장-9장	하늘까지 닿는 탑 창 11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다 창12:4	부키성경동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3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이삭을 주신 하나님 창17장:19	세 천사 창18:2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다 창19:25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창22:14	부키성경동화 죄의 시작1
	4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이삭의 신부	부자가 된	하늘나라의	야곱에서 이스라엘	설날

		리브가 창 24:67	이삭 창26:24	사닥다리 창28:13	창 32:28	
	5주	30/월	31/화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대체공휴일	1월 성경퀴즈			

2월 창세기

영역	주			1/수	2/목	3/금
2월 창세기	1주			야곱과 에서의 화해 창 33;4	꿈꾸는 소년 요셉 창37:9	부키성경동화 죄의 시작 2
	2주	6/월	7/화	8/수	9/목	10/금
		이상한 꿈 창 40장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창 41:40	가족들을 다시 만난 요셉 창 47:1	바구니 속의 아기 모세 출 2:3	부키성경동화 가인과 아벨
	3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열 가지 벌 출 7장-11장	이집트에서 나가던 날 출 14장-15당	메추라기와 맛있는 만나 출16:13	십계명 출 20장	부키성경동화 노아의 방주1
	4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열두 정탐군 민 13장	놋으로 만든 뱀 민 21:9	말하는 나귀 민 22:30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신4:39	부키성경동화 노아의 방주2
	5주	27/월	28/화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매일 성경을 읽어요 신 6:6-9	2월성경퀴즈			

3월 예수님

영역	주			1/수	2/목	3/금
3월 예수님	1주			삼일절	예수님의 시험받으심 마 4:1-11	부키성경동화 바벨탑
	2주	6/월	7/화	8/수	9/목	10/금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마4:12=25	사랑의 가르침 마 6:5-15	기도의 가르침 마 6:5-15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마 8:1-17	부키성경동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3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열두 제자의 파송	안식일에 대한 질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오천명을 먹이심 마14:12-21	부키성경동화 아들 이삭을 바친

		마 10:1-15	마 12:1-8	마13:10-23		아브라함
	4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베드로의 고백 마 16:13020	천국에서 가장 큰사람 마18:1-4	잃은 양 비유 마18:10-14	무자비한 종의 비유 마18:21-35	부키성경동화 나의 재능을 소중히 가꾸어요
	5주	27/월	28/화	29/수	30/목	31/금
		부자 청년 마19:16-30	포도원 일꾼의 비유 마20:1-16	성전에 가신 예수님 마21:12-17	3월성경퀴즈	부키성경동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4월 예수님의 부활

영역	주	3/월	4/화	5/수	6/목	7/금
4월 예수님의 부활	1주	예수님의 책망 마23:1-28	마지막 때 마24:1-14	열 처녀의 비유 마25:1-13	최후의 만찬 마26:17-35	부키성경동화 예수님을 닮을래요
	2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주	겟세마네의 기도 26:36-46	예수님의 체포 마26:47-58	베드로의 부인 마26:69-75	빌라도의 심문 마27:1-26	부키성경동화십자가에 못 박힘 마27:27-56
	3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예수님의 무덤 마27:57-66	함께 계시는 예수님 시 46편	하나님에 대한 열망 시편 6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23편	부키성경동화 하나님이 참 좋아요
	4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구원의 기도 시편 51편	기쁨의 노래 시편 95편	가장 큰 계명 마22:34-40	4월성경퀴즈	부키성경동화 이삭의 아내 리브가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5 월 행복한 가정

영역	주	1/월	2/화	3/수	4/목	5/금
5월 행복한 가정	1주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 시139편	달란트 비유 마25:14-30	석가탄신일	라합은 큰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이날

					수2:11-12	
	2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무너진 여리고성 수 6:20-21	태양과 달이 멈추었어요 수 10:12-13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수24:15	기드온을 용사로 삿 6:12	부키성경동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3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기드온과 300용사 삿 7:20	삼손 부모님의 고민 삿13:13	긴머리 장사 삼손 삿 16:17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사시대 삿 17:6	부키성경동화 이삭의 축복
	4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룻이 나오미 곁에 머물다 룻 1:16	보아스와 룻의 결혼 룻 4:17	기도로 아이를 얻은 한나 삼상 1:20	바른 예배를 높이심 삼상 2:18	부키성경동화 야곱과 에서의 화해
	5주	29/월	30/화	31/수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 삼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삼상7:12	5월 성경퀴즈		

		3;10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6월 나라 사랑

영역	주				1/목	2/금
6월 나라사랑	1 주				조급함으로 실패한 사울왕 삼상 13:11-12	부키성경동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2 주	5/월	6/화	7/수	8/목	9/금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삼상 16:7	현충일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삼상 17:45	사울을 살려준 다윗 삼상 24:6	부키성경동화 왕으로 선택된 다윗
	3 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말씀에 순종함 열상 13:8-9	까마귀가 떡을 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구함	부키성경동화 다윗과

		다윗 삼하6:21		왔어요 열상 17:5-6	열상 18:3-4	골리앗
	4 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열하 5:14	8살에 왕이된 요시아 열하 23:35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대하1:10	성전에 계신 하나님 대하7:3	부키성경동화 다윗과 요나단
	5 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순종의 사람 여호사밧 대하20:32-33	이스라엘의 악함 대하28:8	새해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느 1:8-9	6월 성경퀴즈	부키성경동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 사도신경(찬양배우기)					

7 월

영역	주	3/월	4/화	5/수	6/목	7/금

7월	1주	예수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느 1:8-9	예루살렘성을 다시 쌓은 느헤미야 느 2:20	왕비 에스더 에 4:16	유다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에 9:31	부키성경동화 꿈을 꾸는 요셉①
	2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 욥 1:21	끝까지 이겨낸 욥의 믿음 욥 42:10	복 있는 사람 시 1:1-2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시18:2	부키성경동화 꿈을 꾸는 요셉②
	3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교만하게 살지 말자 잠16:18	부모님을 공경한 예수님 잠 23:25	충성된 일꾼이 되어요 잠 25:13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사 1:13	부키성경동화 감옥에 간 요셉
	4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포도열매 사 5:2	하나님이 바라시는 포도열매 사 5:7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 사 6:8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 7:14	부키성경동화 총리가 된 요셉①
	5주	31/월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7월 성경퀴즈				

			. 사도신경(찬양배우기)

8 월

영역	주		1/화	2/수	3/목	4/금
8월	1주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 사 38:5-6	새로운 출발 사 43:19-20	선지자로 부름 받은 예레미야 렘 1:7	부키성경동화 총리가 된 요셉②
	2주	7/월	8/화	9/수	10/목	11/금
		비누로 씻을 수 없어요 렘 2:22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렘 9:1	토기장이 같으신 하나님 렘 18:6	레갑 족속을 본받으라 렘 35:19	부키성경동화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
	3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두루마리를 태운 여호야김 렘 36:23	광복절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 렘 38:6	꿀보다 더 단 말씀 겔 3:3	부키성경동화 바귀니 속의 아기
	4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마른뼈를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 겔 37:9-10	믿음짱 다니엘 단 1:8	뜻을 정하고 행동한 다니엘과 세 친구 단 1:8-9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다니엘 단 2:20	부키성경동화 뱀이 된 지팡이
	5주	28/월	29/화	30/수	31/목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한 다니엘 단 2:23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세사람 단 3:11-12	풀무불에서 살아난 세 사람 단 3:17-18	8월 성경퀴즈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 사도신경(찬양배우기)					

9 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영역	주					1/금
9월	1주					부키성경동화 무서운 열가지 재앙①
	2주	4/월	5/화	6/수	7/목	8/금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단 4:37	교만하여 망한 벨사살왕 단 5:2	지켜진 다니엘의 기도약속 단 6:10	사자굴속에서 살아난 다니엘 단 6:21-22	부키성경동화 무서운 열가지 재앙②
	3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사랑을 실천한 선지자 호 2:19	니느웨를 변화시킨 요나 선지자 욘 3:4-5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 욘 3:10	박넝쿨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욘 4:10-11	부키성경동화 바다가 갈라졌어요
	4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정의로운 사회를 외친 미가 미6:8	여호와로 즐거워 한 하박국 합 3:17- 19	겸손한 어린이를 높이시는 하나님 합 3:19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습 3:17	부키성경동화 만나와 메추라기
	5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성전을 재건케 한 학개 선지자 학 1:14	십일조를 바쳐라 말 3:10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친 말라기 말 4:2	9월 성경퀴즈	부키성경동화 십계명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 사도신경(찬양배우기)

10 월

영역	주	2/월	3/화	4/수	5/목	6/금
10월	1주		개천절	추석연휴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2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한글날	하나님 자녀의 고백 요 1:12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요 1:14	형 베드로를 전도한 동생 안드레 요 1:41-42	부키성경동화 금송아지
	3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나다니엘을 전도한 제자 빌립 요 1:45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 요 2:11	천국 가는 길을 물은 니고데모 요 3:3	믿음으로 천국 가요 요 3:16	부키성경동화 다시 쓰신 계명
	4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위대한 전도자 세례요한 요 3:30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요 4:24	수가성 여인이 만난 메시아 요 4:25-26	예수님의 특별한 음식 요 4:34	부키성경동화 열두명의 정탐꾼
	5주	30/월	31/화			
		왕의 신하의 믿음 요 4:46	10월성경퀴즈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 사도신경(찬양배우기) . 예수님의 12제자 외우기					

11 월 감사드리자

영역	주			1/수	2/목	3/금
11월 감사드	1주			베데스 연못가의 기적 요 5:9	오천명이 먹고 남았어요 요 6:11-13	부키성경동화 라합과 두명의 정찰병
	2주	6/월	7/화	8/수	9/목	10/금

리자		죄를 용서하자 요 8:7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요 9:7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요 9:39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 11:25-26	부키성경동화 무너진 여리고 성
	3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시 50:14-15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 50:23	감사를 표현한 믿음의 사람들 시 시100:4	내가 주께 감사 하리이다 시118:23	부키성경동화 기드온과 삼백용사①
	4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시127:1-2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시 139:14	한알의 밀알 되신 예수님 요 12:24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요 13:13-14	부키성경동화 기드온과 삼백용사②
	5주	27/월	28/화	29/수	30/목	
		오직 한 길 요 14:6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요 14:26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요 15:5	11월성경퀴즈	
	.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 사도신경(찬양배우기) . 예수님의 12제자 외우기 . 성탄찬양 배우기

12 월

영역	주					1/금
12월	1주					부키성경동화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2주	4/월	5/화	6/수	7/목	8/금
		참좋은 친구 요 15:13-14	내 죄를 위해 흘린 피 요 19:30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요 20:22- 23	베드로를 찾으신 예수님 요 21:17	부키성경동화 아기 예수의 탄생
	3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하늘로 가 신 예수님 행 1:8-9	다시 오실 예수님 행 1:11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 행 9:3-5	바울사도의 감사 빌 1:18	부키성경동화 아기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
	4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처녀	예수님을 맞이한 요셉의	동방박사들의 성탄절 마 2:11	부키성경동화 사가랴를 찾아온 천사

<table>
<tr><td></td><td></td><td>눅 2:30-32</td><td>마리아
눅 1:41-42</td><td>믿음
마 1:24-25</td><td></td><td>가브리엘</td></tr>
<tr><td></td><td rowspan="2">5주</td><td>25/월</td><td>26/화</td><td>27/수</td><td>28/목</td><td>29/금</td></tr>
<tr><td></td><td>성탄절</td><td>예수님의
마음을
닮자
빌 2:5</td><td>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빌 4:12</td><td>12월성경퀴즈</td><td>부키성경동화
세례요한</td></tr>
<tr><td></td><td colspan="6">. 주기도문(주기도문 송 배우기)
. 성경 순서 암송하기(성경목록가 배우기)
. 십계명(십계명송 배우기)
. 사도신경(찬양배우기)
. 예수님의 12제자 외우기
. 성탄찬양 배우기</td></tr>
</table>

Appendix B-후보자 유능성, 신실성 및 스타일 평가

(Candidate Competency, Authenticity and Style Assessment)

지침

후보자의 유능성, 신실성, 스타일 평가 지침은 개인적인 목회 측면이나 유용성에 두기보다는 지역 목회적 역할 수행에 둔다.

1. 예비지침

목회적인 유능성을 따라 평가하는 단어를 쓰도록 하라.

1) 각 유능성 평가 질문 끝에 평가, 설명, 실례 및 관찰 등을 위한 여백이 주어져 있다.

2) 자신이 구체적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모델을 생각하며 평가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후보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도록 하라.

2. 평가 어휘들의 주요 의미

1) 우수 혹은 만족 : 후보자의 능력이 충분히 우수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태

2) 개발 : 능력이 정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더 개발시켜야 함을 의미

3) 중지 : 평가를 하지 않기로 함. 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해야 함.

4) 시작 : 현재 발휘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된 능력이기 때문에 개발해야 할 분야임.

5) 충돌 : 개인의 특성이나 문제점이 능력의 수행과 충돌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아마도 이것은 스타일이나 기질, 감정, 억압 등의 문제일 것이다.

3. 평가를 할 만한 기호가 없는 경우 여백으로 남겨 두라.

4. 후보자의 유능성, 신실성, 스타일 평가 방법

1) 신학자 : 자신의 상황에서 말씀을 특수한 시간과 장소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성숙한 학자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활동적인 성서 연구 생활에 전념하는 사람이다. 성서신학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2) 설교자 :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적당한 언어나 어법을 사용하여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청중들이 신앙 훈련에 도전하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성서 중심적인 설교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3) 예배 사회자 : 조직적이고 의례적인 예배, 성례등을 수행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살아계심을 재현한다. 예배 사회자는 교회의 전통이나 취향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예배의 기회들을 공급하고 그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목사/목자 : 목사/목자는 목회적 사역을 제공하면서 성례나 예식을 진행하고 병자를 방문하며 유족을 위로하고 예비 신자들을 영접하며 기성 신자들을 양육하고 비활동 교인들과의 접촉을 가진다.

5) 범교회주의자 : 다양한 신앙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하며 끊임없이 접촉점을 만드는 사람이다. 다양한 종파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종교 상호간의 신앙 이해, 대화, 교류를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6) 예언자적 대리인 ; 예언자적 대리인으로서 목사는 사람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고 사회의 불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워 윤리적인 의미를 고취시키도록 한다. 또한 사회와 교회의 변혁에 윤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7) 영적 지도자 :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이다. 그는 일하게 하는 사람이며 스스로 경청하고 적절한 능력과 자료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순발력 있는 사람이다.

8) 종료 교육가 :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새로운 자질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전한다. 종교 교육자는 청중들을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새롭고 영적으로 개회된 의식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를 가져오는 새로운 단결을 확립한다. 이와 같은 도전은 성령의 은사를 통한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 이 은사들을 공동체 안으로 넘쳐 흐르게 한다.

9) 상담자 : 어떤 형식의 상담이든 그 효과는 항상 상담자에게 달려 있다. 상담자 자신의 개방적이고 진지하고 거리낌 없고 수용적이며 성숙한 정동에 따라 그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러한 자질들을 돌볼 수 있다. 상담자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독창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말이다. 상담자에게는 근본적으로 네 가지 중요한 상담 기능, 즉 고치고 지탱하고 안내하고 화해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완전을 향한 내면적 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Bibliography

1. 한국서적

김운삼, *교육학 개론*, 출판사: 창지사, 2003 .,

신명희외, *교육 심리학의 이해*, 출판사: 학지사, 2003.,

김종서외, *최신 교육학 개론* 출판사: 교육 과학사, 2001.,

유영희 외, *유아 교육 개론*, 도서 출판: 오래, 2001.,

윤영탁. *Selected Essays in Old Testament Theology.*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12., 총회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 (총회 신학교 출판부).,

김남준. *깊이 읽는 주기도문*,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2013.,

문혁준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5.,

이건희, *어린이 신학*, 출판사: 신앙과 지성사, 2017.,

김경중 외, ***Psychology of child development***, 아동 발달 심리, (주) 학지사, 2012.,

곽노의 외. *영유아 발달.* 서울: 양서원, 2010.,

조복희. *인간 발달*. 서울: 교문사, 1989.,

박량규 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출판사: 학지사, 2011.,

이희경, *유아교육 개론*, 출판사: 태영, 2008.,

현용수. *잃어버린 지상명령 쉐마.* 서울: 도서 출판 쉐마, 2004.,

박찬옥 외. *유아 다문화 교육.* 서울: 창지사, 2011.,

김대권. *A Philosophy of Church Music.* 서울: 중앙아트 J&A Music, 2003.,

김도일.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and the Flow of Its Core Thoughts & Ideas.* 서울: 동연, 2010.,

전요섭. *Effective Christian Counseling Technique.*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9.,

한병철. *MUDIG KEITS GESELL SCHAFT 피로 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김대권. *Worship and Music.* 서울: 그리심, 2006.,

김대권. *예배와 음악.* 서울: 그리심 출판부, 2008.,

김남수. *찬송의 이해.* 서울: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오정현. *거룩한 결심 순종 선언.*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2007.,

정태기. *아픔. 상담. 치유, 생명의 말씀사.* 서울: 상담과치유, 2000.,

이한수. *Acts and Pauline Epistles.*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지용훈. *말씀으로 기도하라.* 서울: 규장, 2016.,

조숙자 외 1인. *찬송가학.* 서울: 장로신학대학 출판부, 1981.,

전호진. *The Christian Mission During the Clash of Civilizations.*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3.,

최은규 외 3인. *서울대 한국어.* 서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이용규. *내려놓음.* 서울: 규장, 2006.,

한홍. *거인들의 발자국(Survey of Christian Leadership).*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4.,

목창균. *현대 신학의 논쟁.* 서울: 두란노, 1995.,

강준민. *묵상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1997.,

조항범. *우리말 어원 이야기.* 서울: 예담, 2016.,

곽노의 외 3인. *영 유아 발달.* 서울: 양서원, 2007.,

박랑규 외 9인. *아동 심리치료학 개론.* 서울: 학지사, 2011.,

문혁준 외 6인. *아동학 개론.* 서울: 창지사, 2016.,

유소영. *성경 이야기(한권으로 읽는 시리즈).,*

강신권 외 1인. *한권으로 된 4복음서.* 서울: 쿰란 출판사, 2011.,

정주영. *현대문화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윤영탁. *구약신학 논문 선집.*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12.,

조희숙. *아동발달 심리.* 서울: 학지사, 2003.,

문성모. *한국 교회 설교자 33인에게 배우는 설교.* 서울: 두란노, 2012.,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송지헌. *주일 학교 교사 바로 세우기 (지도자 가이드 북).*서울: 크리스천리더, 2016.,

최규명. *교사여, 다음 세대에 날개를 달아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김청봉.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학교의 미래.* 서울: 이레미디어, 2004.,

강요셉. *응답받는 기도 습관 20가지.* 서울: 성령, 2017.,

한홍.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이태복.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 서울: 지평서원, 2010.,

이은화 외 6명. *유아교육 개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한병철, MUDIG KEITS GESELL SCHAFT , 문학과 지성사,2012.,

2. 번역 서적

A Kempis, Thomas . *그리스도를 본 받아.* 두란노, 2010 .,

R. W. Stott, John. *기독교의 기본진리(Basic Christianity).* 황을호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Climacus, John. *거룩한 등종의 사다리 (The Ladder of Divine Ascent).* 최대형 역. 서울:은성출판사, 2013.,

McKendree Bounds, Edward. 순수영성. 최요한 역. 서울:두란노,2011.,

Randy Alcorn,Spurgeon Charles, Haddon.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 서경의 역. 서울:터치북스, 2012.,

J. wiseman, Donald 외, *NEW BIBLE DICTIONARY*,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6.,

Bilmes Jenna&Welker, Tara , *유아기 심리적 장애*, 출판사: 창지사, 2012.,

B. Tai, Karen. *BASICS OF CHRISTIAN EDUCATION*, 출판사:크리스챤, 2009.,

D.Wolf, Aline. *어린이들에게 영성은 존재하는가?* 조성자 역. 서울: 학지사, 2000.,

Beale, David. *근본주의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4.,

K. Beale ,Gregory. 김귀탁.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Kund Hans. *The Church. London: Burns & Oates Ltd,*1967.,

Dietrich, Bonhoeffer. *Gemeinsames Leben, Das Gebetbuch der Bibel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10.,

Dietrich, Bonhoeffer, von wedemeyer, Maria. *옥중연서.* 정현숙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3.,

bethge, Eberhard. *Dietrich Bonhoeffer.*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4.,

Bater, William. *성공 유혹인가, 축복인가?*.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Mcgrath, Alister.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Michael더두잇 ,*PREACHING WITH POWER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한다).* 권영주 역,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2009.,

Foster, Richard. *Spiritual Formation for Christian Life.*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Smith, Huston. *The World's Religions.*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3.,

Hwain Lee. *Building Chpacity for Ministry.* 서울: 동방 인쇄출판,

Dietrich, Bonhoeffer.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6.,

Sanders, Oswald. *영적 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5.,

Wesley, John. *Journal of John Wesley.*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0.,

Whitney, Donald.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 서울: 네비게이토, 1997.,

Blackaby, Henry. *영적 리더십.* 윤종석 역.서울: 두란노, 2002.,

Foster, Richard. *기도.* 송준인 역, 서울: 두란노, 1999.,

A. Yarthoue, Mark. N.sells, James. *Family Therapies.*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2010.,

Sabine, Dramm. *본회퍼를 만나다.* 김홍진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13.,

Luther, Martin.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

Grenz, Stanley. Olson, Roger. *20th Century Theology.*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1997.,

Ramm, Bernard. *복음주의 신학의 흐름.*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O. Beale, David. *근본주의의 역사 (PURSUTT OF PURITY).*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Metaxas, Eric.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 서울: 포이에마, 2011.,

Hay, David. Nye,Rebecan. *어린이 영적 세계의 탐구.,*

Grudem, Wayne. *조직신학,* 도서 출판 은성, 노진준, 2003.,

B Tye, Karen. *BASICS OF CHRISTIAN EDUCATION.* 조혜정 역. 서울: 크리스챤, 2009.,

Nouwen, Henri.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2001.,

G. Hibert, Paul. *성육신적 선교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CLC), 1998.,

F. White, James. *기독교예배학입문.*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0.,

S. Childs, Brevard. *신구약 성서신학.* 유선명 역 서울: 은성,2009.,

J. O'Connor, Kevin. *놀이치료입문.* 송영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2001.,

Watson, David. *Discipleship.* 문동학 역. 1982.,

Keller, Timothy. *PRAYER.*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5.,

Keller, Timothy. *Peeaching.* 서울: 두란노 서원,2016.,

Bruggemann, Walter. *The Practice of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설교.* 송병룡 역. 서울: 성서유니온교회, 2017.,

Yawn, Byron.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 전의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Crotts, Jeffrey.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 이승진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2011.,

Bruggemann, Walter.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홍병룡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Machoski, Marty. *The Ology, Ancient Truths Ever New.*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7.,

Anderson, Kent. *choosing to preaching.* 이웅조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Scriputure Union), 2008.,

Wright, Thomas. *New Testament Prayer for Everyone 신앙의 모든 기도*. 백지윤 역,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IVP), 2015.,

Wright, Thomas. *he Lord and His Prayer.*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IVP), 2014.,

McKendree Bounds, Edward. *기도의 능력.*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McKendree Bounds, Edward.*기도의 본질.*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2005.,

Dietrich, Bonhoeffer. *현대인을 위한 성도의 공동생활 프리셉트 클래식 10* 조현진 역. 서울: 프리셉트, 2011.,

Dietrich, Bonhoeffer Weber, Manfred *본회퍼와 함께하는 하루*, 권영진, 송상섭 , 홍성사, 2014 .,

Archer Torrey, Reuben. *기도의 영을 받는 법*, 이용복, 서울: 규장문화사, 2007.,

Grun, Anselm. *안셀름 그륀의 희망*, 김선태, 서울: 바오로딸, 2010.,

Bethge, Eberhard. *디트리히 본회퍼의 초상*, 김순현, 복있는 사람, 2014. ,

원본 서적

R. Kelly, Thomas. *A Testament of Devo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1.,

Bonhoeffer, Dietrich. *Sonderausgabe Dietrich Bonhoeffer Werke* (DBW), 17 Bände Paperbackausgabe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17 Bände, 10.331 Seiten, .,

Archer Torrey, Reuben. *How To Pray.* CruGuru , 2008.,

Luthe, Martin. *A Simple Way to Pra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Wink, Walter. *Unmasking the Powers.* Phil.: Fortress Press, 1986.,

기독교 타임지

글로벌 세계 대백과, 도서출판 범한, 백과사전 1,500여 명의 집필자

한국민족대 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연령별 아동 발달, 마음 백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천재 학습백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어린이영성론 연구: 데이빗 해이와 레베카 나이의어린이영성론에 대한 비평적 대화, 유선희